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사

GALLERY303
Contemporary

칼럼 꿈이 사라진 건축설계
시론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의 의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건축사
특집 최근 독일 현대건축에 관한 동향 소개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0
<http://www.kira.or.kr>
201002

꿈이 사라진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has lost its dream

나는 오랜 동안 'W' 일보를 즐겨 읽는 편인데 온갖 기사를 다꼼꼼히 읽지는 않지만 매일 빠짐없이 보는 것은 사회면의 칼럼이다. 한때 유클리드, 김대중 선생들의 날카로운 필치에 반하여 중독이 될 정도이고, 요즘은 박효종 교수나 북거일 선생 등의 예리한 필치에 감동하고 공감하는 편이다. 그들의 필봉은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을 사정없이 질타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분들이야 예리한 필봉으로 사회를 질타할 수 있는 언론의 권력을 부여받았기에 마음껏 그리 말할 수 있고 또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축설계 업계에도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분명 필요 한데도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도 건축설계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 살아오다보니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가 되어 길로 말하면 반환점을 돌아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만해도 언젠가 동아일보에 "큰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건축설계 업계에도 불어 낙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기사로 게재한 적이 있는데, 어느 사석에서 대조직의 수장인 친한 선배로부터 "너 아직 힘 좋다. 아직도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니?"라고 응수당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 너는 남들 다를 때 무엇을 했니?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커지는 것도 다 경쟁인데 너 루저(loser) 아니니? 하는 말을 들은 셈이라고 치부했다.

보자, 그런데 요즘은 건축경기가 불경기라 그런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간다. 오죽하면 전에 내게 그렇게 말하던 선배도 본인 소유회사보다 더 큰 회사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가로채간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사무소에, 간까지 작은 사무소의 소장들이 삼삼오오 만나게 되면 하는 말들을 종합하면 이렇다.

"2009년에는 S 회사가 설계경기는 거의 다 당선되었다며? 그래서 그 막강한 H 회사도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자체로비 외에 그 뒤에 포진한 대기업의 힘까지 빌려로비해 일 따기는 데는 속수무책이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이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냥 침묵 속으로 들은 말들을 접어 놓고 있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이다. 게다가 건축사사무소 뒤에 건설회사까지 포진하고 있는 경우 먹이사슬의 첫 번째인 설계비가 총공사비의 4~5%라고 하면 그것은 건축사사무소의 최대먹잇감이지만 뒤에 있는 건설사에게는 그 20~25배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기에 건설사차원의 대규모 로비가 동원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사실이 나를 비롯한 많은 건축사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사무소들이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 굳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노비신분이면 죽을 때까지 면천이 안 되어 노비로 죽듯이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죽을 때까지 큰일은 손도 못 대보고 갈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천후 로비를 하는 텐키 프로젝트부터 작은 텐키나 마찬가지인 BTL까지 제외하면 소규모 아틀리에 사무소의 영업대상은 정말 한정적이 되는 셈인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조' 일보에 신춘문예 당선작이 얼마 전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건축계에는 참신한 계획안으로 신인이 당선되어 지면을 장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당은 미디어법이다 뭐다 이면에 목숨을 걸고 전천후 길거리 투쟁을 하지 말고 각 분야에 있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그 힘을 몰두한다면 차기 정권창출은 떼어 놓은 당상일 뿐데 하는 생각도 해본다.

도대체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학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기협회 명예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의 의미

Meaning of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s
2010 Seoul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올해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2010 UIWA SEOUL)'를 10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2008년에 부산의 아카시아대회에 이어 건축계에서는 국제대회가 두 번째, 세계대회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UIWA(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대회는 1963년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1983년 6차 프랑스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 데마크 코펜하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본 동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르루즈를 거쳐 2007년 15차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대회까지 참가하였다.

그동안 대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 전시회 출품, Tour 등의 Program에 참여하였고 2007년 15차 루마니아 대회에 배시화 전임회장이 참석하여 대회를 우치하였다. 대회 참가 전에 서울유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행사 개최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창립 28년, 그리고 199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법인단체로 인가를 받은 우리 협회는 매년 봄가을에 보육, 노인복지, 주거를 주제로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올해 2회 국내의 새로운 건축물, 신도시, 공동주택의 건학, 올해 해외건축물 견학 등의 Program을 가져왔다.

UIWA에 참가하거나 국제 세미나 개최 때 만나본 해외여성건축가들은 놀랄 정도로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가까운 일본 여성건축가 조차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여 놀랐었다. 배용준, 이병현은 알면서도,

이번 대회의 주제는 최근에 우리의 일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Green Environment」라는 대주제로서, 또 3가지 소주제 – 1. 전통에서의 그린 2. 초환경 주거 3. 여성친화 도시와 드시재생 – 를 가지고 3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우리의 전통건축물 소개를 통하여 중국의 거대하면서도 끔찍이 Detailed한 전통건축물과 일본의 극단적으로 형식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전통건축물 사이에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적절한 Scale의 우리의 전통건축물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주거형식 '아파트' 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국토를 뒤덮고 있는 이 아파트들 여과 없이 보여줄 것이고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경제 분야에서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도달한 효율적인 결과물 – 초고층 아파트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 아마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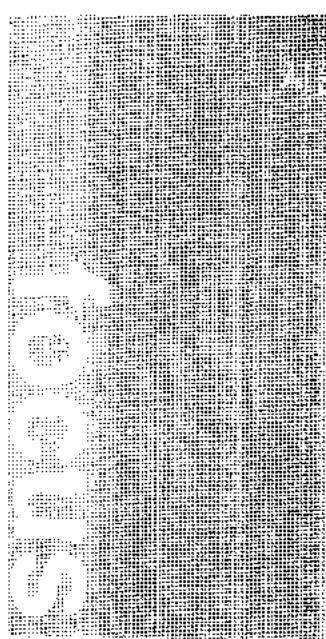
그들이 돌아가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이 아파트가 눈에 어른거릴지도 모른다. "대단하다. 너무하다. 끔직하다"고 말한다면 성공한 것이다. '아파트' 하면 Korea가 생각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IT강국으로서의 Korea를 심어주고 싶다. 그것은 이 행사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표현 될 것이다.

계획대로, 기대대로, 목적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여성건축인들의 – 건축사, 교수, 건설, 인테리어, 공무원 – 통합단체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대한민국의 건축계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아낌없는 배려와 전폭적인 지지를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기대해 본다.

이 행사가 여성건축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건축인들의 축제가 될 것이고 서울의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홍보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후원을 기대하고 또한 확신한다. ■



오경은 / Oh, Kyung-eun, KIRA
(주)피아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한국여성건축기협회 수석부회장
- 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건축사

An architect for a better world

요즘 취재를 다니다 보면 건축사들로부터 “일하기 참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는 일감도 일감이지만 예비 건축사들이 대형 사무소로 몰리는 풍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게다가 ‘건설사의 설계 겸업 허용’ 같은 움직임은 건축계의 분위기를 더욱 침통하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모 건축사사무소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 건축계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발제자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여러 측면의 분석이 있었고 나름대로 방향도 제시되었던 듯하다.

각설하고, 아무튼 그 실증적 자료들이 보여준 결론은, 대형 사무소는 점점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숫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또 수행 프로젝트의 규모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일례로 2005~2008년까지 수행한 주거 시설에서 대규모 사무소가 100,000m² 이상의 규모를 차지한다면 소규모 사무소는 고작 2,000m² 미만의 일감이 대부분이다) 즉 한국의 건축사사무소는 규모에서, 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소규모 사무소가 중규모 사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도 늘어야 하고,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 건축사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어려운 매일수록 건축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의 설계 겸업 허용 반대를 위한 건축사들의 단체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의 결집된 힘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지난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개방된 시민사회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존중받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전문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건축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몇 년 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직업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신을 회생하는 일’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따른 것은 소방관, 교사 등이었다. 반면, 건축사란 직업은 기여와 헌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텐데도 그 진면목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세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과 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려는 노력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개인에게 달아 있는 오늘날, 불안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역량을 선(善)하게 발휘하는 개인의 승고함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건축계에도 건축사 개개인의 아름다운 행보와 관련된 소식들이 넘쳐나고, 명예로운 건축사보다는 아름다운 건축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에서 건축사들이 존경받고 호응을 얻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정귀원 / Chung, Kwi-weon
건축리포트 와이드 편집장,
간향미디어랩 공동대표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월간 공간지 기자
- (주)서울건축 설계부
- 건축인 poar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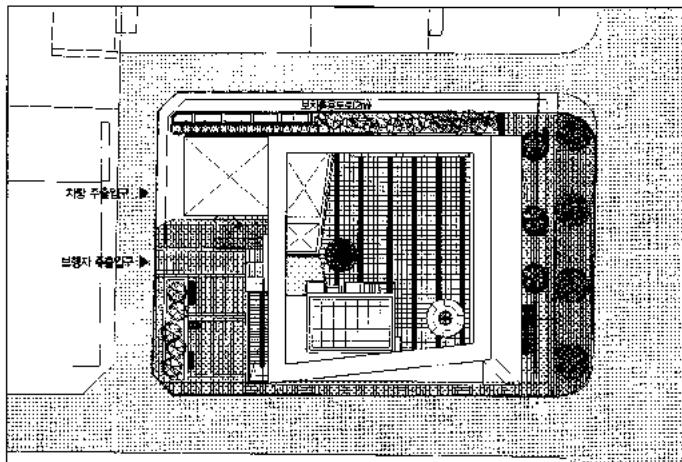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Neighborhood-Convenience Facilities, Daechi

오성훈 / 정희원, (주)건축사사무소 이반엑스

by Oh, Seom-hoon, KIRA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9-3, 4, 5, 6, 7 (6필지)	용적률	247.87%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용시설보호지구,	구조	지하 3층, 지상 6층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_사무소, 수리점, 자동차정업소/업무시설_일반업무시설 총 사무소	외부마감	THK30 고층석출드마감, THK3 ALpanel, 두명강화접합유리
대지면적	1,280.00m ²	설비설계	(주)용도엔지니어링
건축면적	632.35m ²	구조설계	(주)선구조
연면적	6,384.70m ²	전기설계	(주)공간N.G
건폐율	49.40%	인테리어	(주)디자인 매가
		시공사	(주)호성
		설계담당	이주한, 안윤정, 이상수



배치도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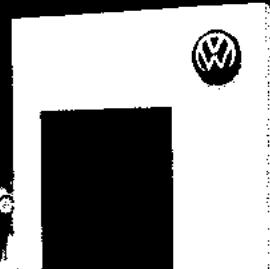
대지읽기_취문고등학교에 붙어있는 비교적 조용하지만 취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인지가 되는 그런 장소다. 대지 사거리에서 접근하면 취문고등학교 운동장 때문에 인지가 높은 땅이다. 주변은 평범한 저층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대지가 주는 강한 잠재력 보다는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우선 될 수 있는 땅이라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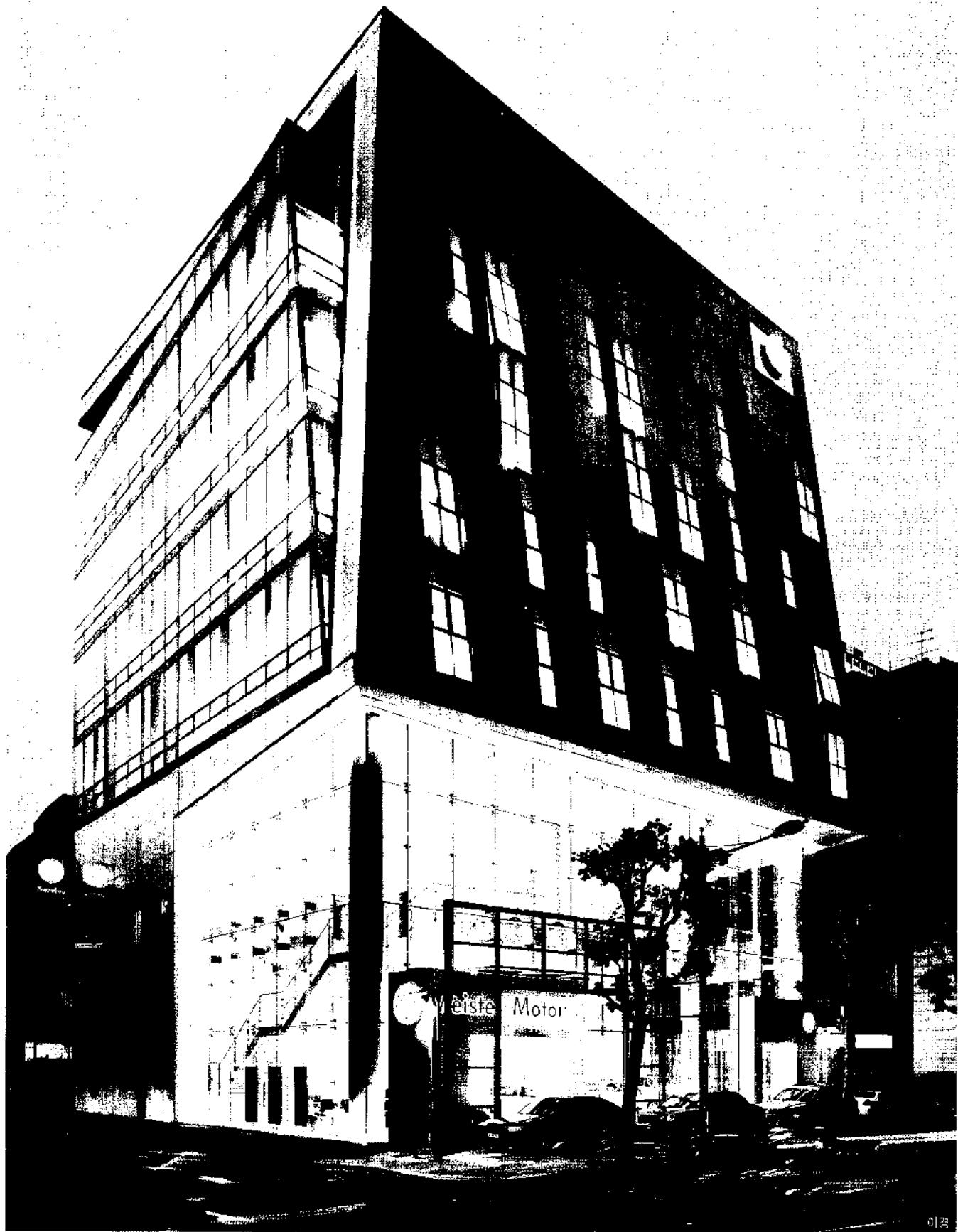
프로그램 해석_주어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로 인한 재스처가 생기는 일련의 과정 중에 즐겨 사용하는 건축적 수단이 면속면(Surface)에 관한 것이다. Surface를 다루는 방식과 그를 구성하는 재질, 주어진 프로그램과의 관계… 등이 설계 초기의 주요 이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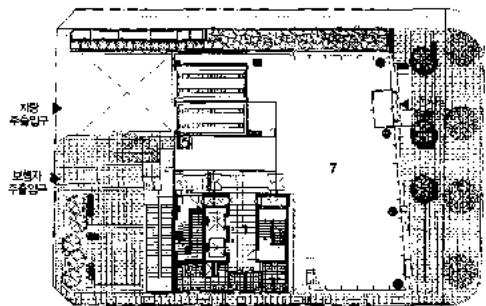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주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1, 2층에 자동차 전시 및 판매와 3~6층의 임대 사무실로 구성되었다. 두 개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잘 벼루려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갖고자 하였다. 여러 시도 끝에 하나의 강렬한 Surface를 접어서 이를 매개로 저층부는 투명하고, 외부와 같은 느낌의 Void와 같은 자동차 전시장을 만들고, 상층부는 임대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Solid의 Volume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면 상층부 외피의 패턴이 자동차 전시장의 전성과 후면, 바닥을 타고 외부까지 연장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설계했다. 그래서 2층 비단 전시장도 투명도와 가벼움을 위해 유리바닥의 전시장을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측면은 접힌 면을 깊이 감을 가진 두께로 확장하여 건축적 재스처를 확실히 가지도록 하였고, 경관 조명의 기본틀이 되도록 하였다. 대치동의 위치적인 성격 때문에 좀 화려한 조명을 제안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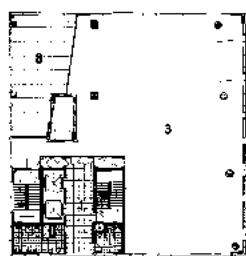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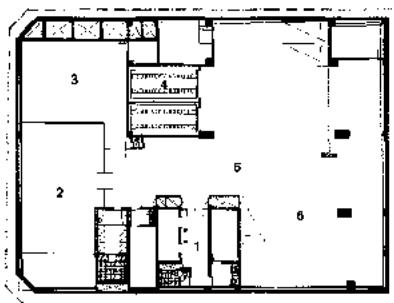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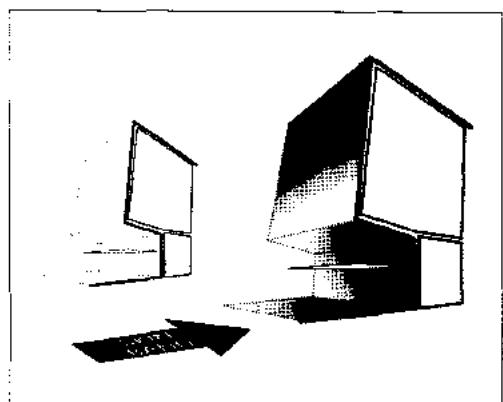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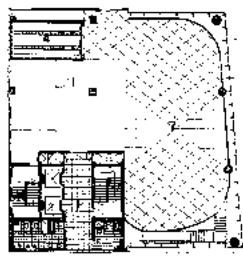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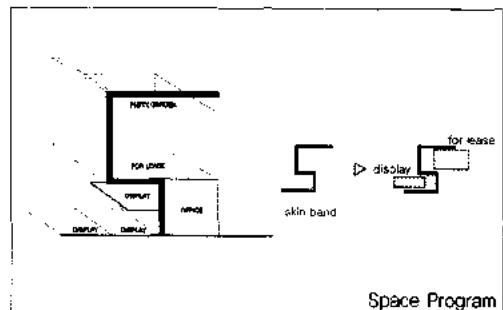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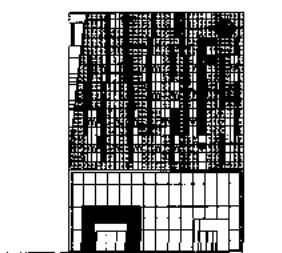


Spac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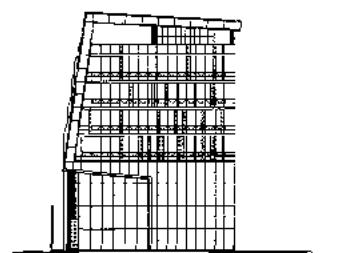
- 01_ 층
- 02_ 그림(소계점)
- 03_ 사무실
- 04_ 기기프트
- 05_ 주차장
- 06_ 수리점
- 07_ 전시장
- 08_ 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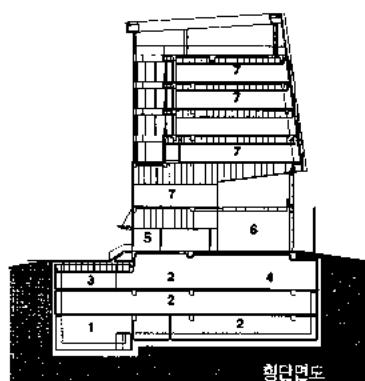
01_기계실 05_홀
02_주차장 06_전시장
03_구성(소예정) 07_사무실
04_수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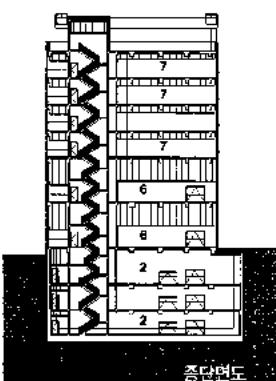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층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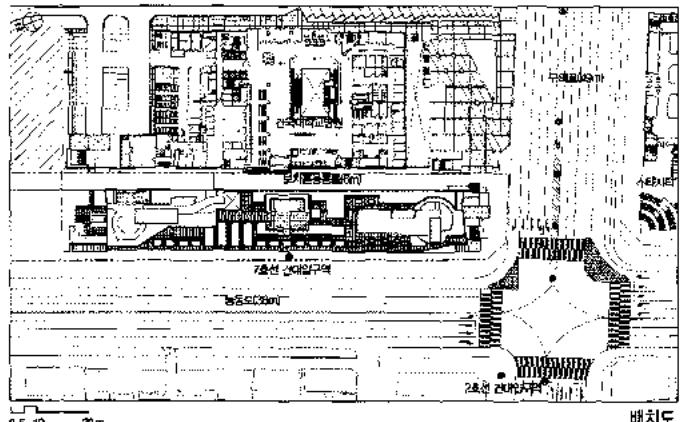


스타시티 영존

Starcity Young Zone

이관직 / 정희원,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ck, KIRA



제작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20 일대	구조	침공형근육 콘크리트 구조
제작자/자주	준주서자역, 지구단위계획구역_드넓게	외부마감	AK30 퍼티션, 코타트리온, 고라늄부 릴구역
주요용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청화시설_현시장, 공연장	구조설계	(주)사립구조 컨설팅로
대지면적	5,621.30m ²	설비설계	(주)세아엔지니어링
건축면적	3,051.81m ²	전기설계	(주)부림이엔씨 컨설팅로
연면적	31,078.93m ²	시공사	상환기업
간 빼율	54.29%	설계단장	김호경, 이호숙, 정경배, 백승우, 한철희, 한동식, 유흠미, 임형진
총 빼율	297.93%		제우민, 김정래, 손재동, 이상화, 김경이, 김산칠, 허유미, 육재훈, 김미순, 김윤수, 한소영, 유희완
구 모	지하 5층, 지상 1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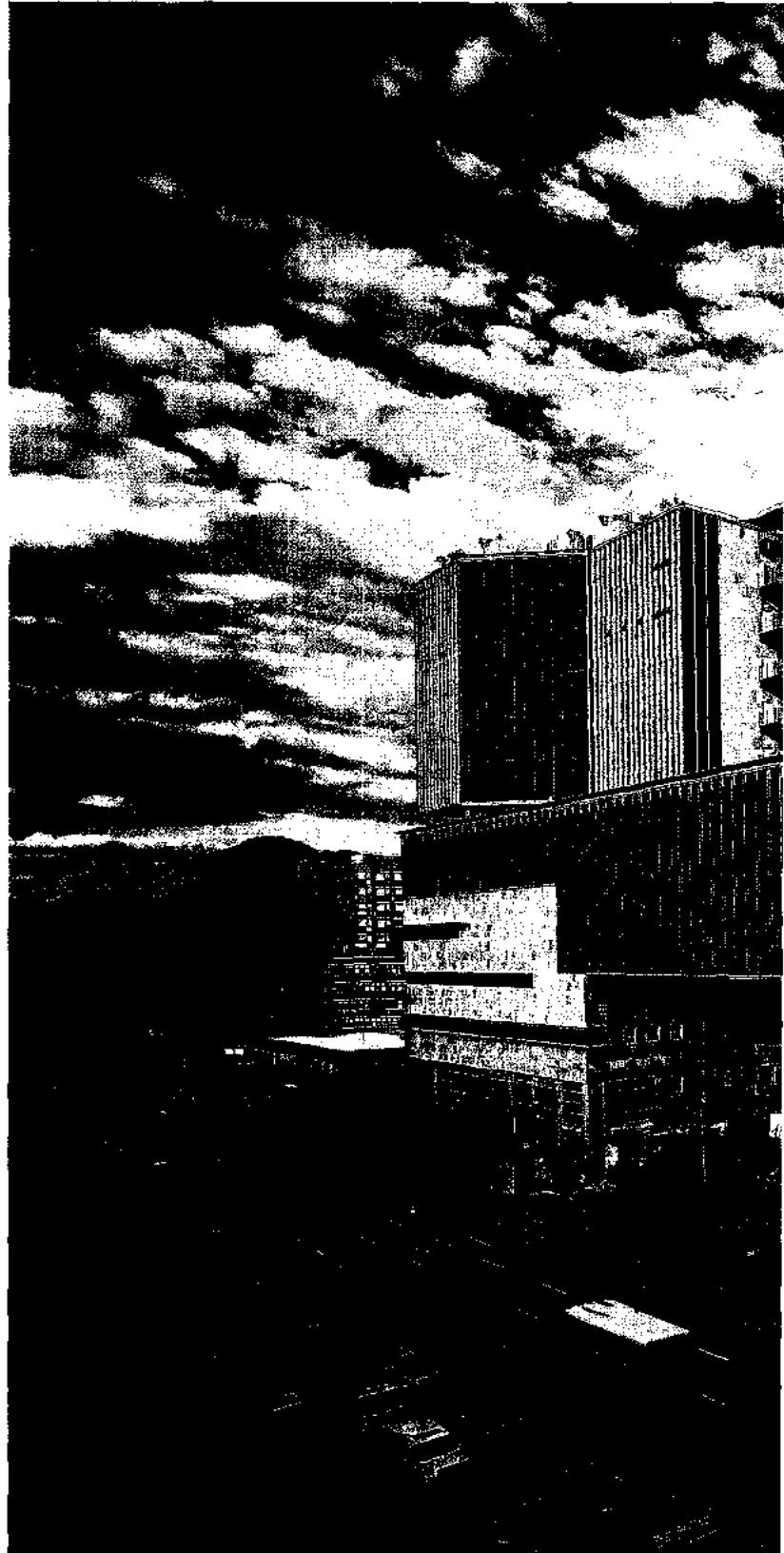
퍼블릭스페이스 중심의 커머셜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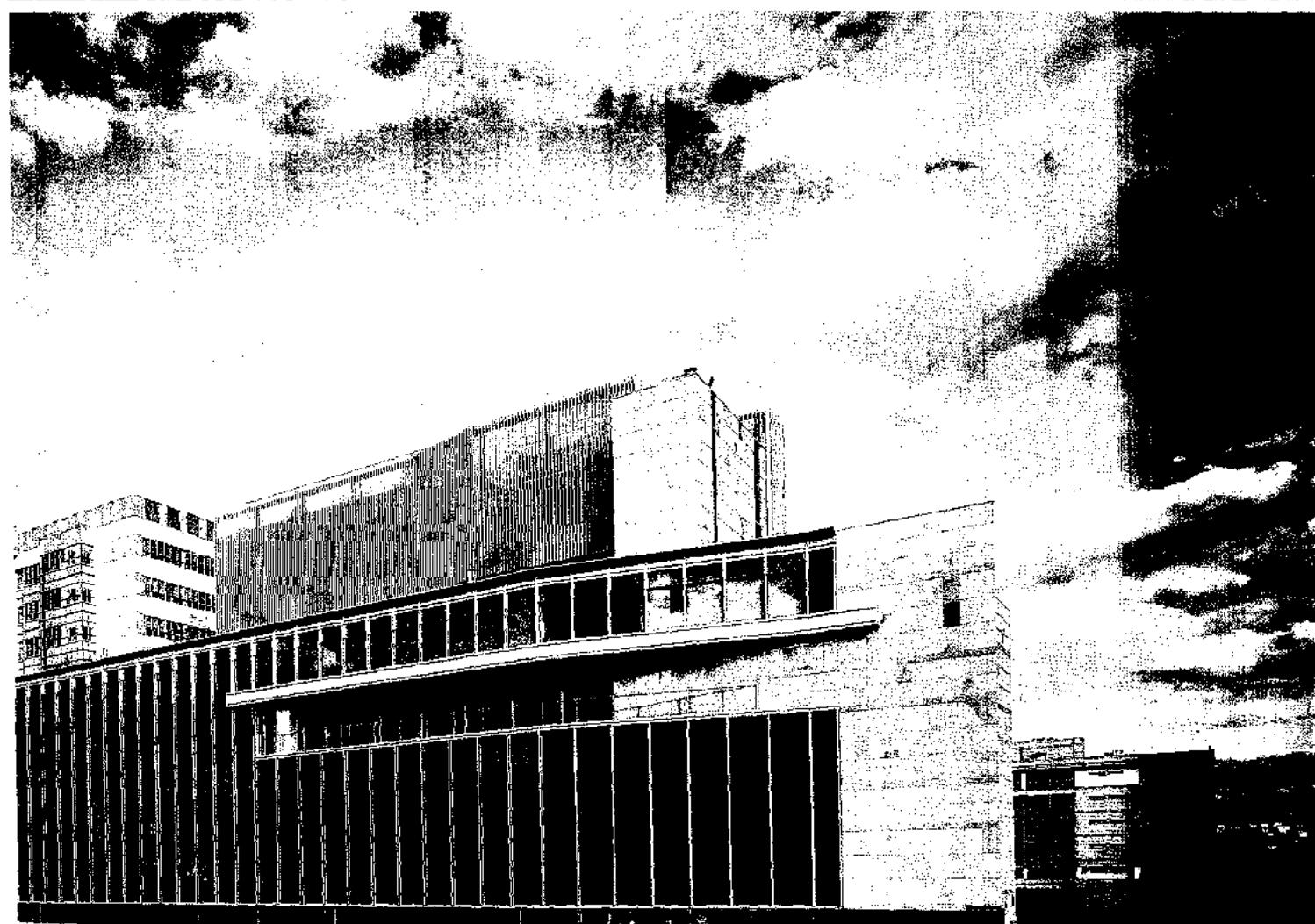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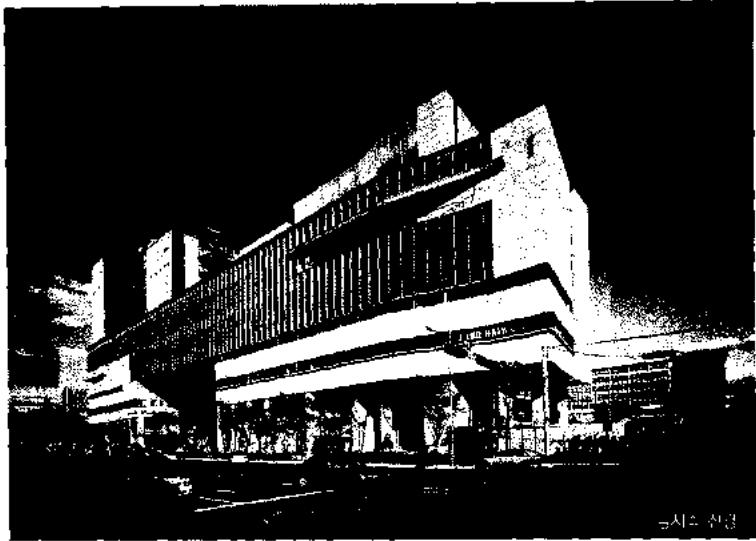
2004년에 지명현상설계에 당선된 이후 시작해서 2009년 후반에 된 이제 서야 세상에 건물로 서게 되었다. 초기에 현상설계안을 발전시키는 반면의 시간과 실시설계의 작업 시간을 제외하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행정적인 절차와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거듭하면서 보낸 시간들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주무르고 보살피고 애지중지하면서 프로젝트는 더 강하고 더 세련(洗鍊)되어져 왔다. 아직도 5층과 6층의 용도에 대한 조정과 변경을 넘겨놓고 있다.

현상설계 당시 프로젝트의 대지는 180m 정도 비슷한 길이의 A, B, C블록으로 구분된 폭 33m, 전체 길이 약 500m로 긴대역 시거리에서 건대 쪽에 면한 능동로 대로변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한 좁고 긴 모양의 땅이다. 대지 모양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이 프로젝트는 현상설계 진행과정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주는 설계경기 참여자가 사용용도 즉,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MD구성을 포함한 개발 사업성 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 혹은 시행 전문팀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작업하도록 한 것이다. 개발개념을 설계자가 제안하는 쉽지 않은 방식의 현상설계였다.

세 개의 블록 속 이번에 완공된 스타시티 영존 빌딩은 도시계획 상 10지구 A블록이며, 사거리에 면해있어서 지하철의 진출입구 두 곳을 건물 계획에 포함시켰다. 대지 길이의 반 이상이 7호선 건대역 지하역사로 약 10m 정도가 침범되어 있어서 기용 폭이 20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지상부의 건물하중을 기준 지하철 역사의 기둥 위에 지지시켜야 하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지하 부분은 지하철의 옹벽에 건축물의 옹벽을 붙여서 계획해야 했다. 구첨의 요구에 의해서 인도에 둘출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를 위한 환기구를 건물 계획 범위내로 이전 계획하는 조건이 있었다. 지하 2층의 지하철 개찰구와 병원 그리고 남측 블럭의 스타시티 블록과 공공 통로를 통해서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계획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하층은 전부를 지하철의 역사사무실과 주





제작: 신경

차장, 그리고 연결 공용 통로에 내어주고 1층도 2개의 지하철 출입구와 공개 공시에 할애를 해야 하는 상업적인 효율이 거의 없는 상업건물인 셈이다.

건축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비단 우리의 프로젝트와 이 건물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5년이란 시간 속에 있다. 건축은 조건 속에 피는 꽃이다. 그 많은 도시계획상의 조건과 건축주의 사업적 성공을 위한 끝없는 노력, 도시철도공시의 공공성과 안전에 관련된 요구, 시와 구에서의 도시계획상의, 디자인상의, 건축상의, 소위원회, 자문회의의 모든 내용이 함께 한 프로젝트이다.

대지여건에 따라 긴 건물을 길게 강조하면서 치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계획 단계에서의 주된 관심사였다.

건물 중앙부의 대형 오픈스페이스와 좌측의 공개공지, 우측의 선큰된 공개공지는 상업 건물이지만 여러 이유로 공공성이 할애되어 보행 높이에서 이 건물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중앙에는 지하철을 위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 사무실을 위한 선큰 입구, 병원 출입구,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공공적인 장치로 가득해서 계획 초기에 구상했던 시민 행사를 할 수 있는 소광장과 같은 기능은 포기되었다. 또한 분리된 저층부의 연결을 위한 40m길이의 우리나라 초유의 브릿지에 대한 설계 내용도 서울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면에서 개방감을 가린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남쪽부지와의 연결점에는 선큰으로 계획된 공개공지가 있다. 이 선큰의 공간은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지하철의 출입구가 있고 남쪽의 대규모 상업 시설인 스타시티와도 연결되어 공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일체적인 오픈스페이스로 기능한다.

건물의 저층부는 가벼운 느낌의 유리 커튼월로 구성되고 서향의 일사와 실내 유입을 저감하도록 열선 차단 유리를 사용하고 유리 커튼월의 캡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세로 리브를 계획했다. 이 세로 리브는 기다란 입면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 주황색과 은색으로 건물이 나르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건물 표피의 새로운 성격이 된다.

로 코로버지에는 건물을 바다를 향해하는 산박에 바유해온 했다. 조형적인 층 면에서, 향선은 기본적으로 물위에 부유하고 향해하기 위해 수평적인 조형을 가지게 된다. 물위를 떠 다니는 물리적 기능의 성격은 물에 의한 부력과의 관계 때문에 가벼움이라는 현대건축의 이상과 부합된다. 건축들은 물과의 부력 대신에 자연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둥으로 바쳐진 필로티 형상으로 중력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건물도 근대 건축의 그 가벼움과 수평성의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저층부 옥상은 도심 안에 휴식의 장소로서 휴게, 공연, 조망의 기능으로 계획하였다. 도심 건물의 옥상은 형식적인 조경민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리 부실로 벼려지기 쉬운 곳이다. 상업적이든, 문학적이든, 녹화와 휴식의 기능이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의 노력은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시각적 공간적 호기심의 유발, 활용 가능한 건축적 장치 등을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저층부 옥상은 그러한 관점을 구체화하려고 노력 했다.

상업적인 성격이지만 도시적 공공적 장소로서, 인공적 도시 구성물로서, 하나의 시각적 작품으로, 사람들의 만남과 휴식과 보행과 시각에 즐거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긴 건축물로서 긴 것이 강조되지만 공공적 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표피의 다양한 표정을 통해서, 저층과 고층의 강한 대비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형태주의적인 실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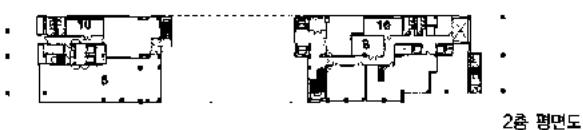
도시는 수평과 수직을 기본으로 하여 많은 부분적인 다양화의 요소가 첨가된다. 도시의 주된 시각적 대상은 이제 상업건물이 주를 이룬다. 건축을 그들의 도시적 기능 중에 하나는 눈에 띠고 자신을 드러내는 과장된 몸짓으로 건축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틀과 구조로서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좋은 공간과 공공적 노력과 구체적인 공공성의 배려, 오브제적인, 시각적인, 공간적인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이 건물이 그러한 시민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

01_ 팬틀
02_ 주차장
03_ 임상형 병지공원
04_ 업무시설

05_ 경매역 정거장(7호선)
06_ 경국대학과 병원
07_ 플로버
08_ 판매사무실

09_ 지하철 출입구
10_ 공조실
11_ 문화 및 학회사설(전시장)
12_ 야외무대

13_ 미난교(건대병원 연결)
14_ 클링타워
15_ S.T
16_ 야외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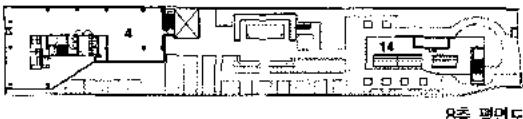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9~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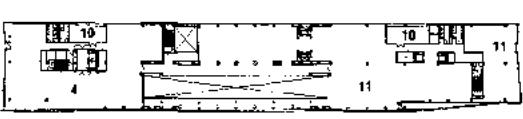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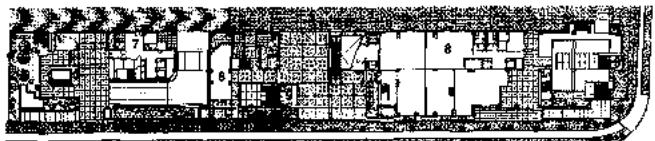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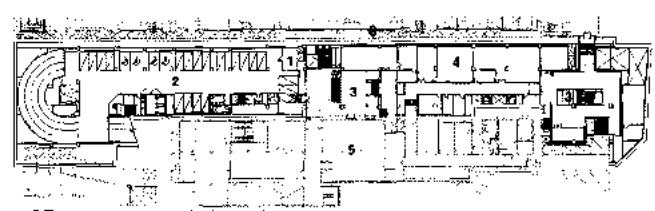
7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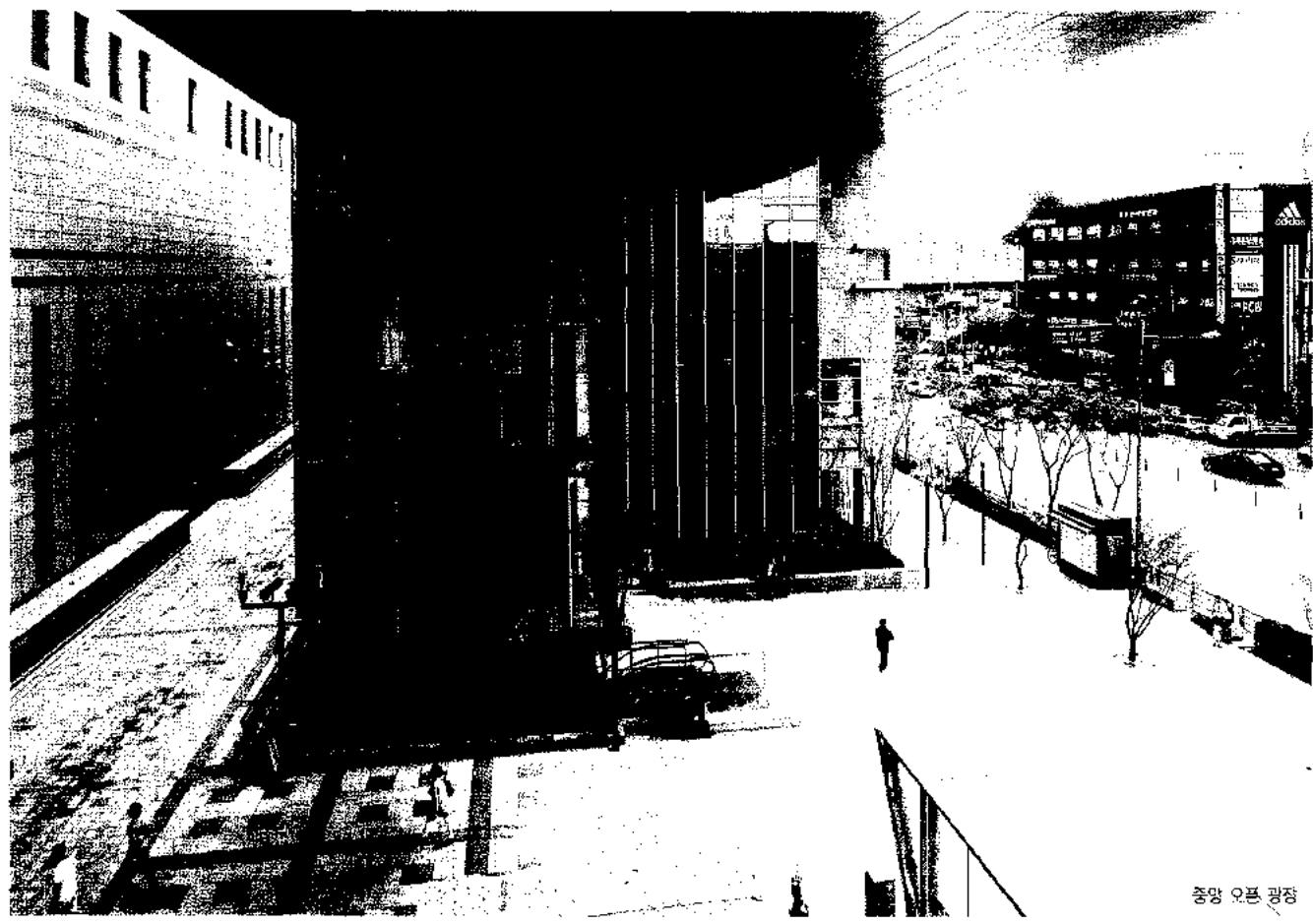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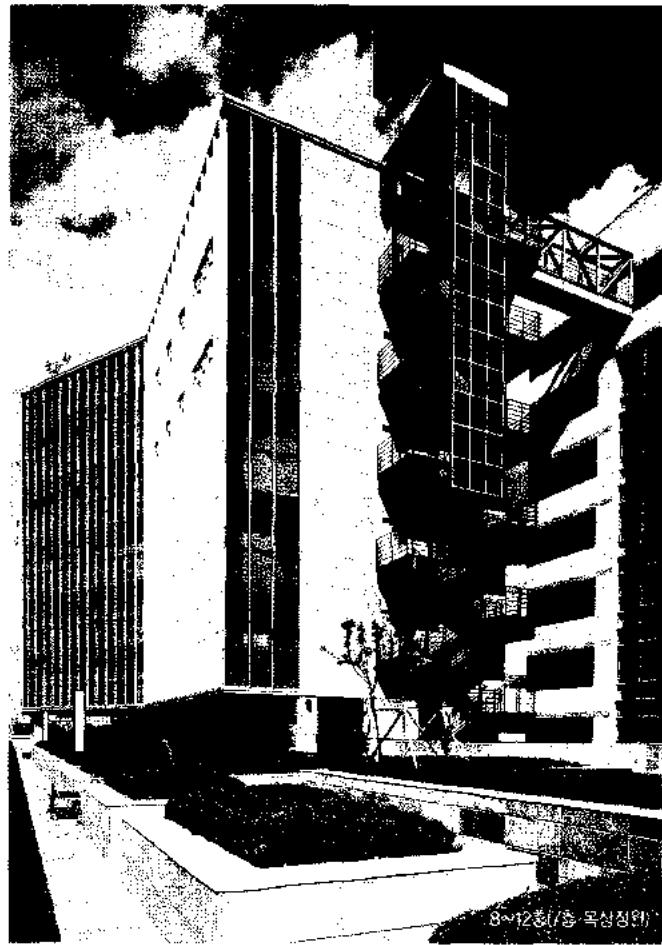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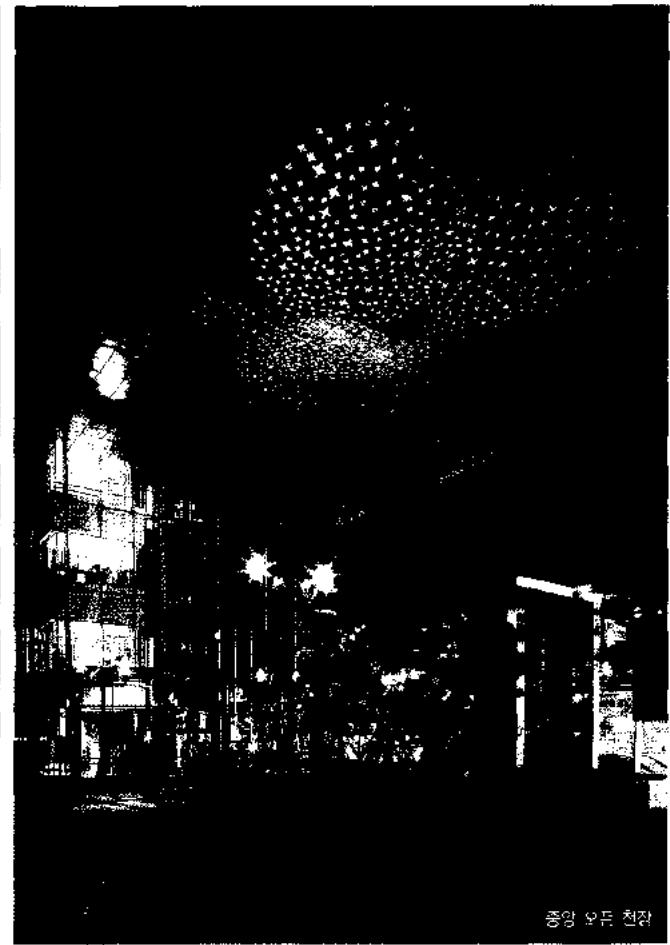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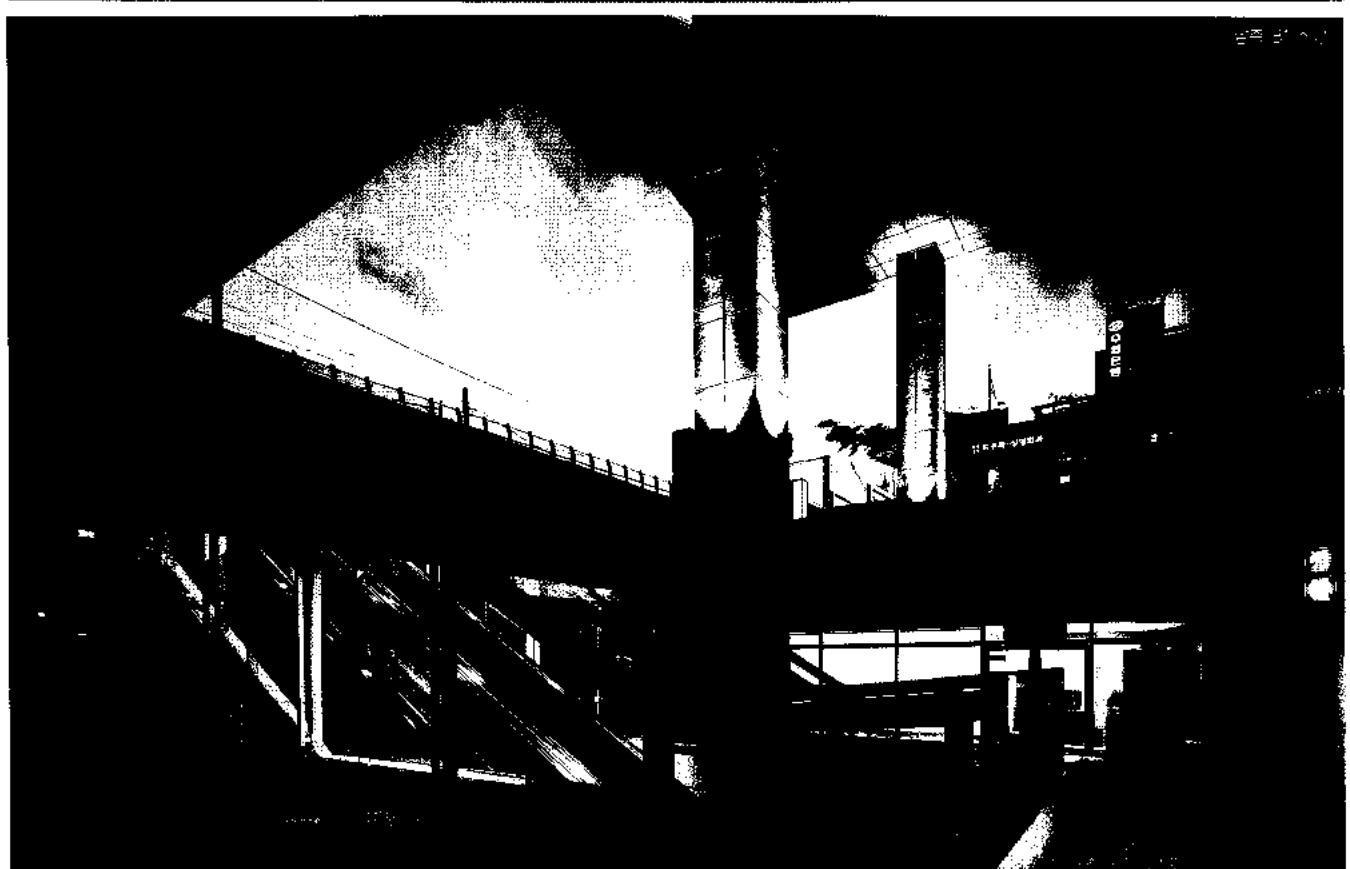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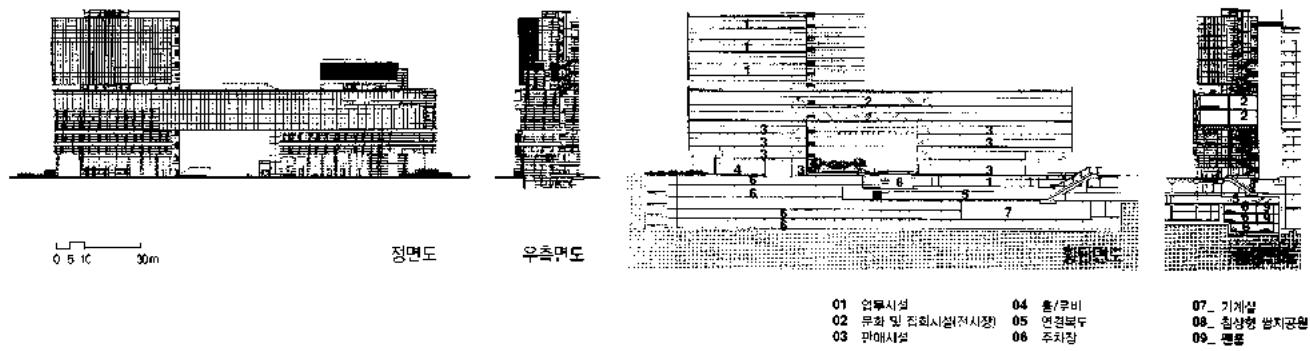
중앙 오픈 광장



8~12층(/층 목성정원)



중앙 오픈 천장



철도기관 공동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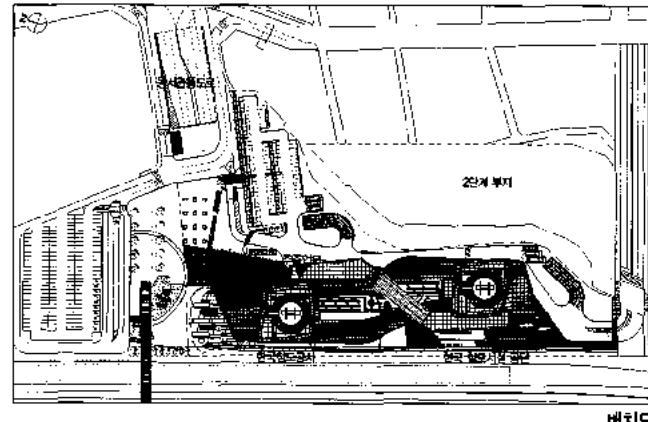
KORAIL & KRNERWORK Headquarters

정영균 / 정희원, 케이아키티파크 종합건축사사무소

by Jung, Young-kyoon, KIPA

김종문 · 정승덕 · 정희원, 케이아키티파크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by Kim, Jong-moon · Jeong, Seung-deok, KIPA



배치도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1-16	설계_총괄	대일이엔씨
주요용도	업무시설	기획설계	심사(설계주)
대지면적	23,508.19m ²	소 면적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면적	8,108.63m ²	별 주 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면적	111,365.97m ²	시 광 치	우산건설(주), 한진공명(주)
건폐율	38.75%	사 진	박원순
생 력 률	309.31%	설계총괄	김두연, 임동건
규 모	지하 4층, 지상 28층	설계담당	김진수, 김 상, 김태현, 윤종진, 유후연,
구조	킬로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이인수, 최상덕, 김현수, 신경수, 김진식,
마감	알루미늄 쉐트, 유리커튼월, 화강석		김정현, 이강우, 문진수
설비설계	설비설계		김우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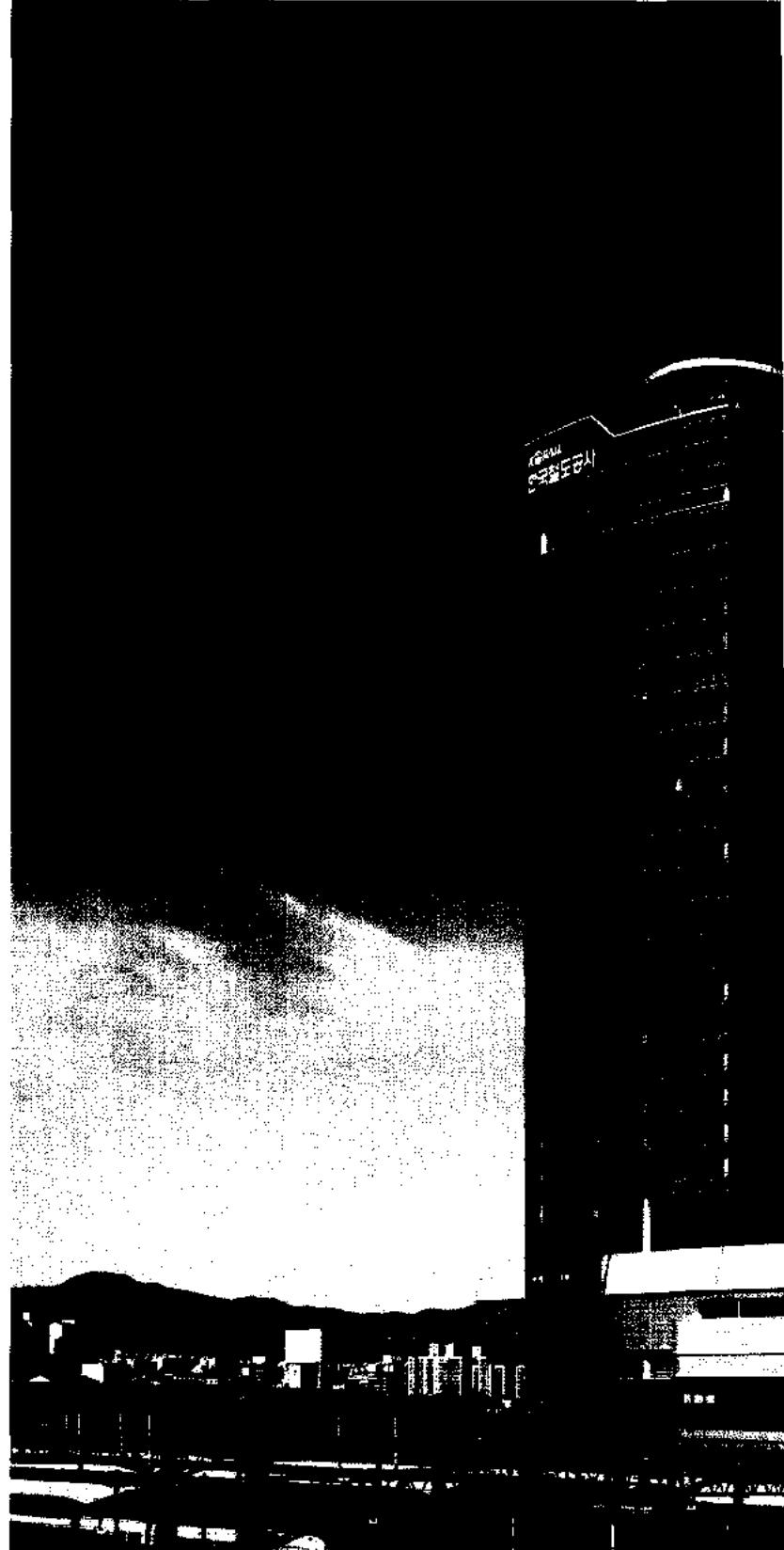
2005년 1월에 새로 출범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청사는 대전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함께 고속철도사업의 새로운 첫발을 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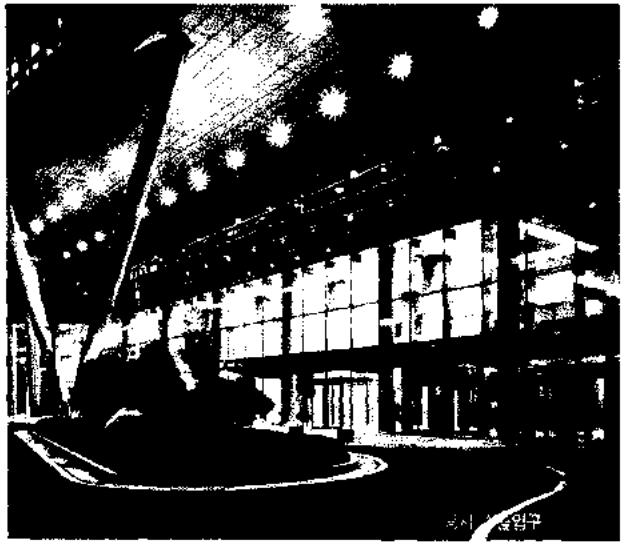
지역의 새로운 발전_대전역사를 중심으로 동, 서의 심한 불균형적 도시 현황은 신청사의 건립과 본격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대전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동광장과 연계된 신청사의 대자는 지역발전의 신호탄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새로운 철도사업의 발돋움_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의 기능분리는 곧 철도사업 전반의 전문화와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 전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고속철도 사업의 가속화 뿐 아니라 향후 통일에 대비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철도사업의 주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힘을 의미한다.

공공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청사_과거 단순히 철도에 관련된 사업만을 관리하는 폐쇄적이고 평범한 업무시설이 아니라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의 변화를 시도한다. 기존 소극적이던 철도사업 및 시설의 흥보를 대강당로비, 편의시설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더욱 친근한 한국 철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디자인 컨셉/변환-Trans_Miracle를 향한 새로운 길(New Railway)을 제시하는 청사 철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타워와 저층부는 각각 새로운 대전의 도시맥락, 철로의 연속성이 속도로 치환을 의미한다. 즉, 고층타워를 통하여 동서를 잇는 강한 시각축을 형성, 변화하는 대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절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저층부는 철로의 Focal Point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속도감을 보여주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청사의 모습을 담아낸다. 고리-Möbius Ring : 한계를 가지지 않는 끝없는 궤적_4, 5, 6층에 걸쳐 떠있는 철로(Floating Railway)라는 시각적 메시지는 땅에 국한된 철로의 궤적이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이다. '동광장, 대지 남측의 진입램프-공용로비-편의시설-대강당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공프로그램들은 Möbius Ring에 융화되어 연속적 레일의 흐름으로 표출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시민 미래의 운송수단을 표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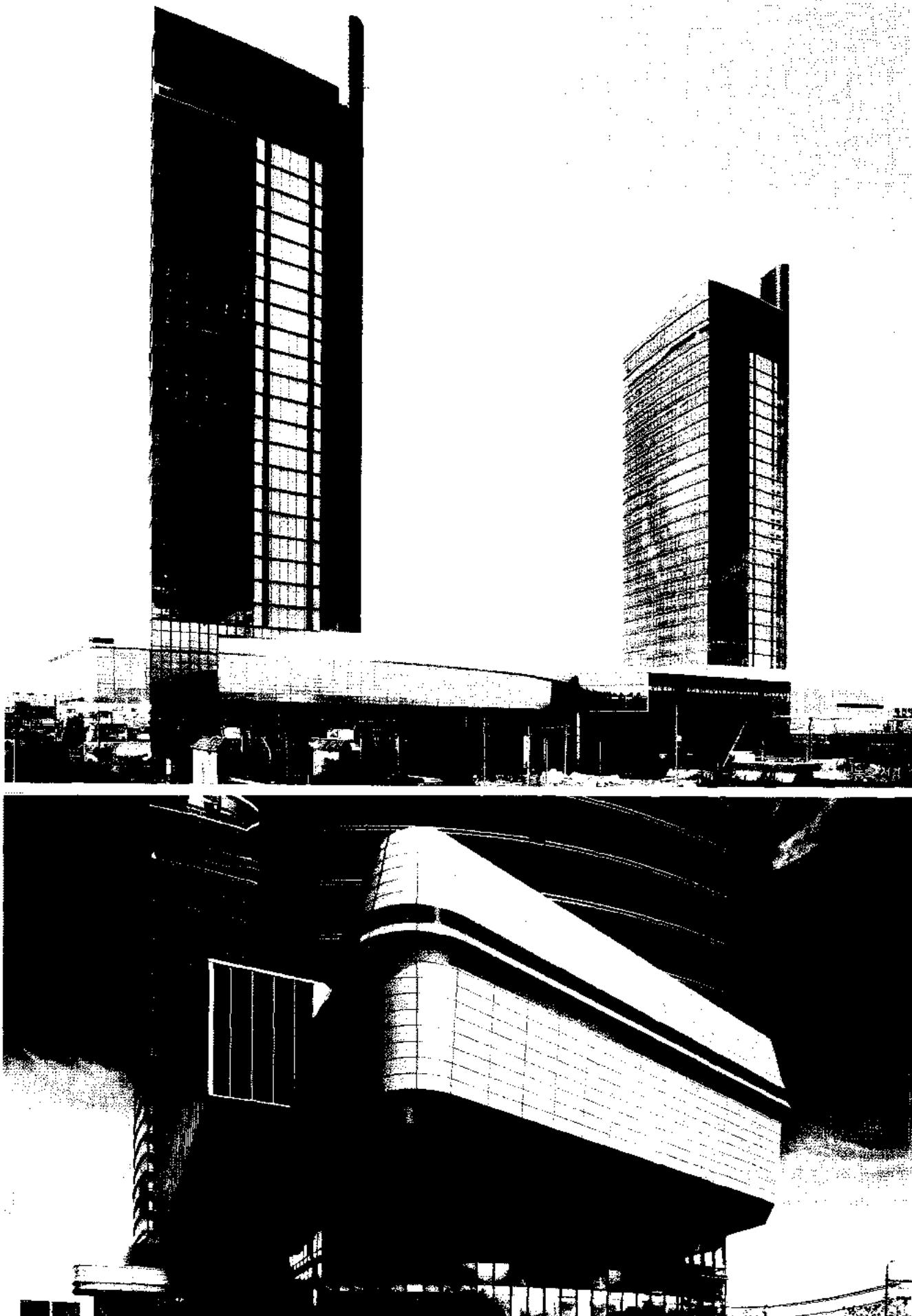




통제-Control 한국철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와 공단은 분리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떠있는 철로(Floating Railway)는 곧고 강직한 두 개의 타워를 연계함과 동시에

에 두 개의 타워를 통하여 통제된다. 현재/미래의 운송수단을 건너를하는 두 개의 타워는 과거(대지)-현재(철로)-미래(Floating Railway)를 지탱, 연결함과 동시에 대전 지역에 대한 강한 랜드마크로서 작용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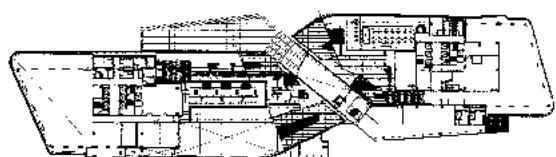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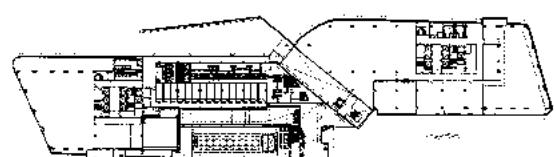
7층~26층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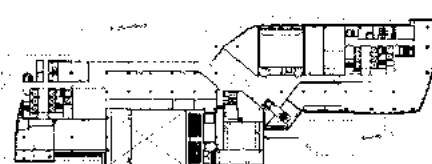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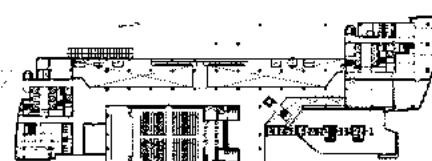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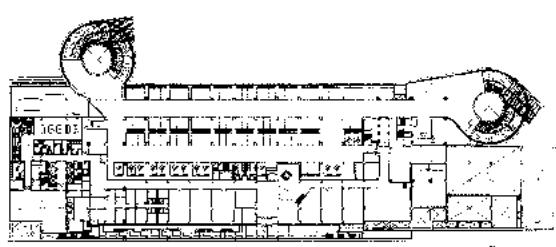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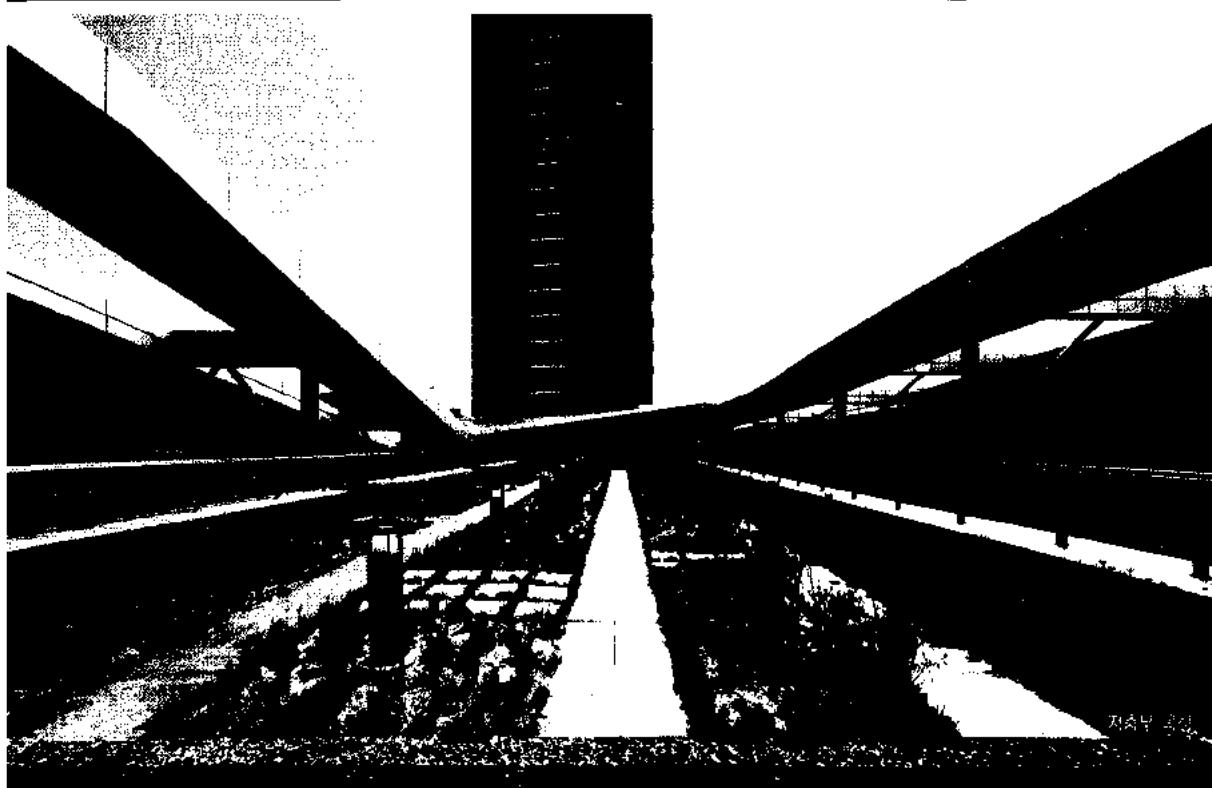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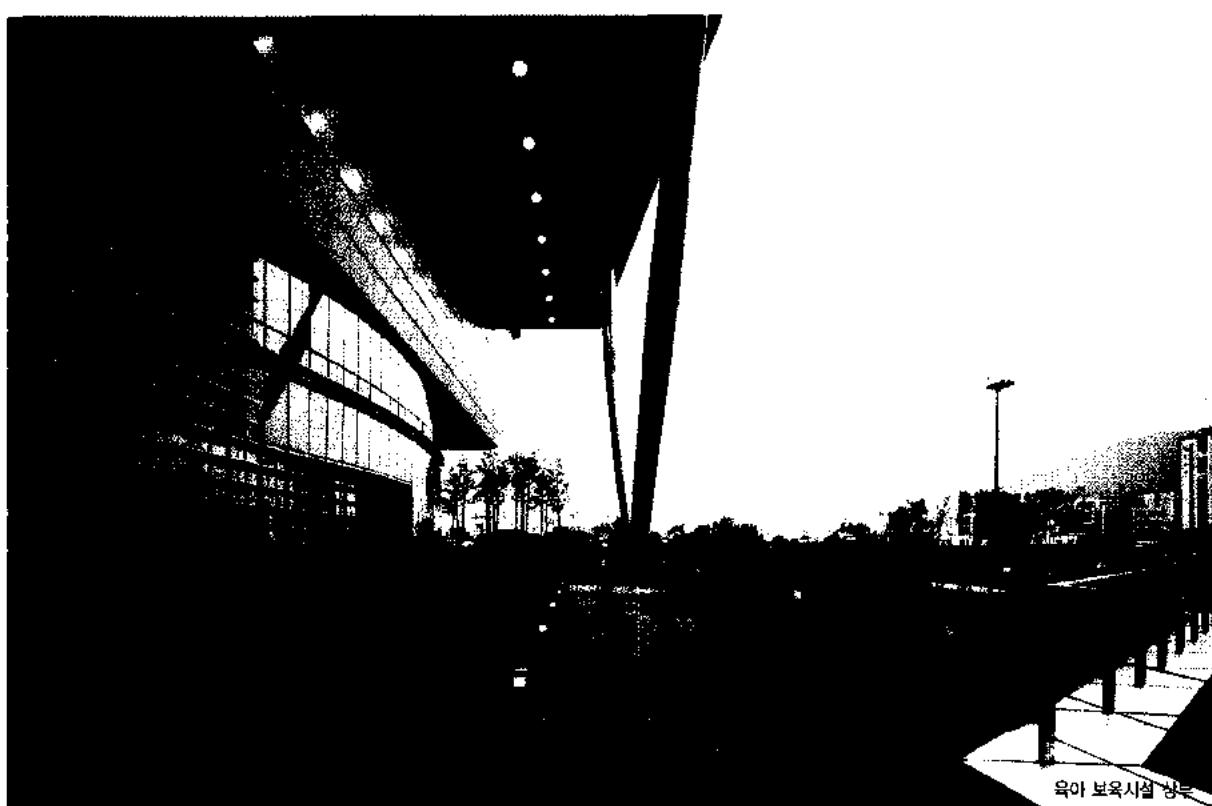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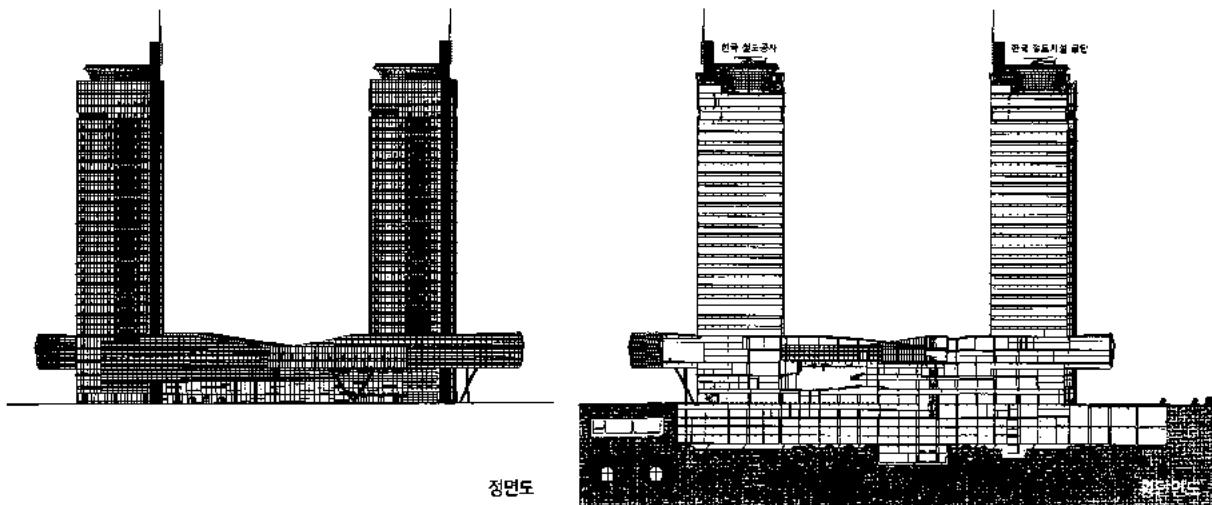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1층 모상주강 및 미니 우스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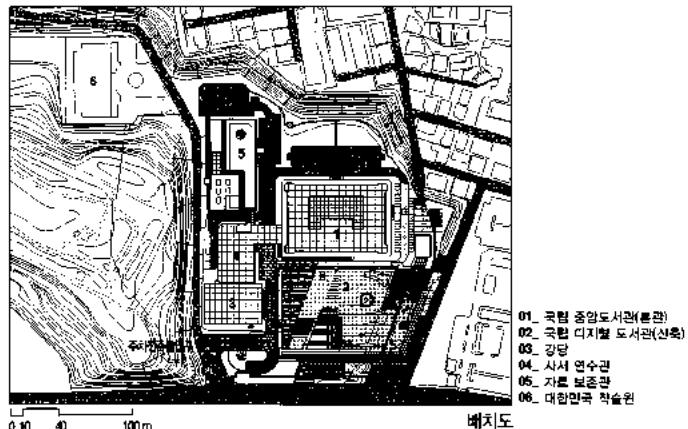




국립 디지털 도서관

National Digital Library

이필훈 / 정회원,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l-hoon, KIRA



대지적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일대	법), THK24 투 경복총 유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THK3 알루미늄쉬트
대지면적	66,888m ²	구조설계
건축면적	12,369.46m ²	철 단우 구조컨설팅
전 면적	96,466.87m ²	전기/통신 서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전 데 월	18.53%	기계설계 (주)우원 M&E
용적률	63.16%	토목설계 (주)대경 E&C
구	모 시화 5동, 지상 3층	인테리어 (주)간디아웃 관현디자인
구	조 출입구문코크리트구조	시 공 사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외부마감	THK30 회강석 물갈기(고온조인트리스	설계단장 임성필(주)(주), 이형재, 김기한, 유종숙, 김성우

디지털 도서관은 서리를 공원 내에 기존 중앙도서관 전면광장에 계획되었으며, 건폐율 10%의 제약조건과 아니로그를 디지털로 암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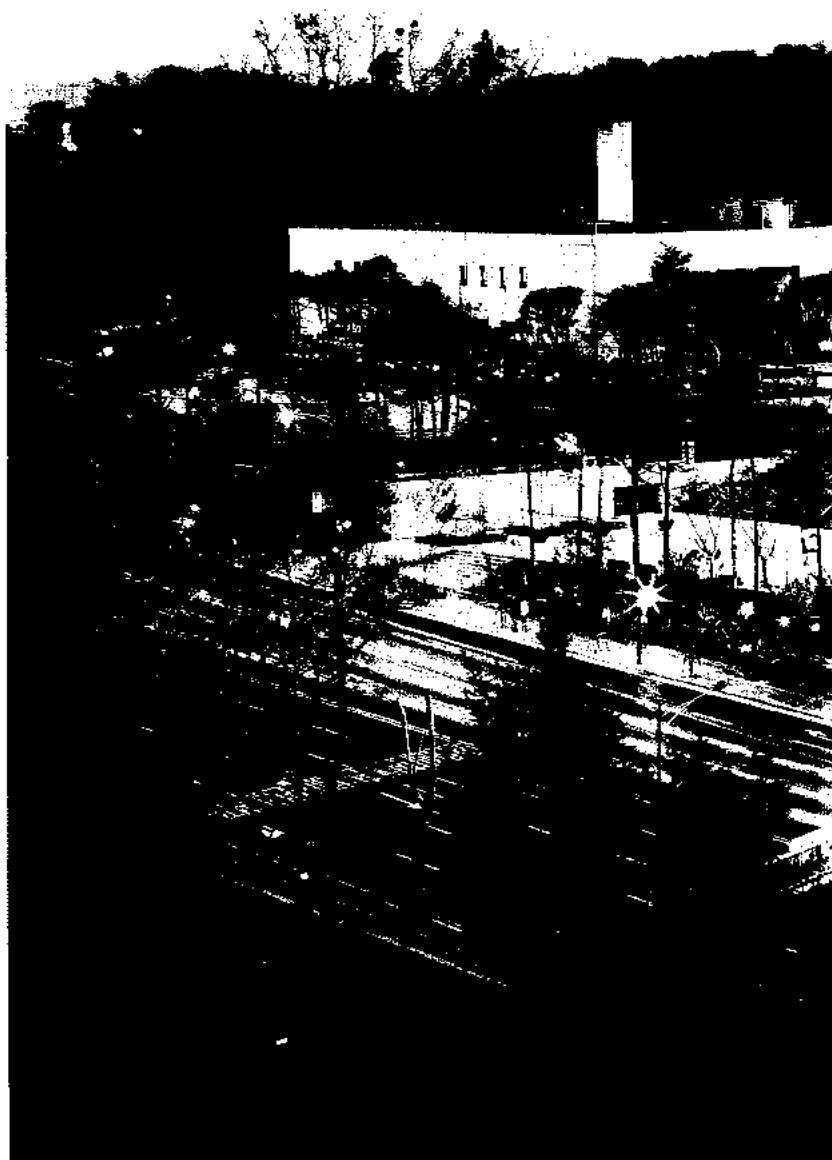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본관을 가지지 않고 존중하는 열린배치를 시작으로 마치 녹색의 카펫을 펼쳐 놓은 듯 넓고 푸른 광장의 조성, 그리고 커다란 저층부 기단을 통한 단지의 재통합과 기존 본관과의 편리한 연계를 통해 기계적이고 차기운 디지털이 아닌 자연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녹색의 따뜻한 디지털 공간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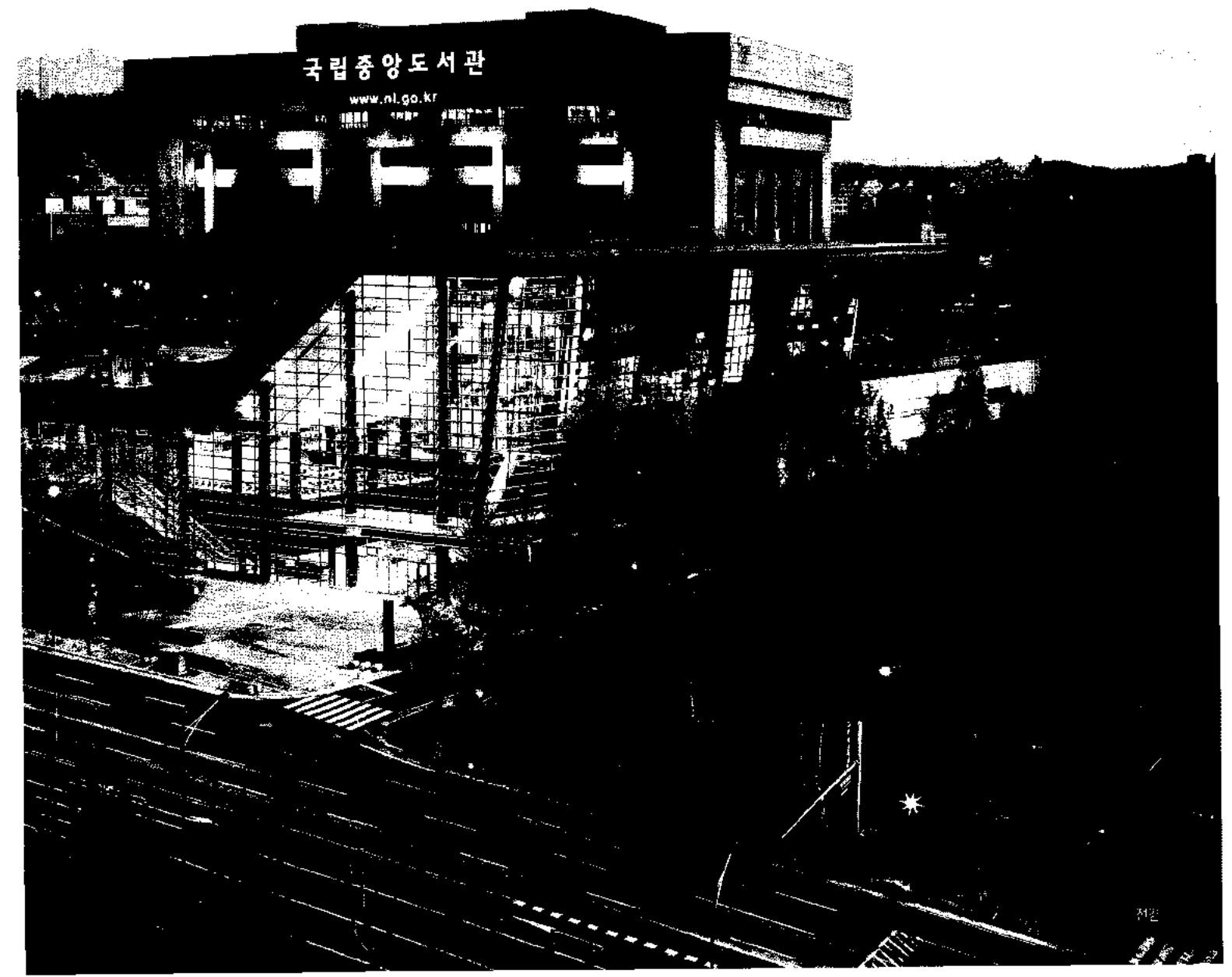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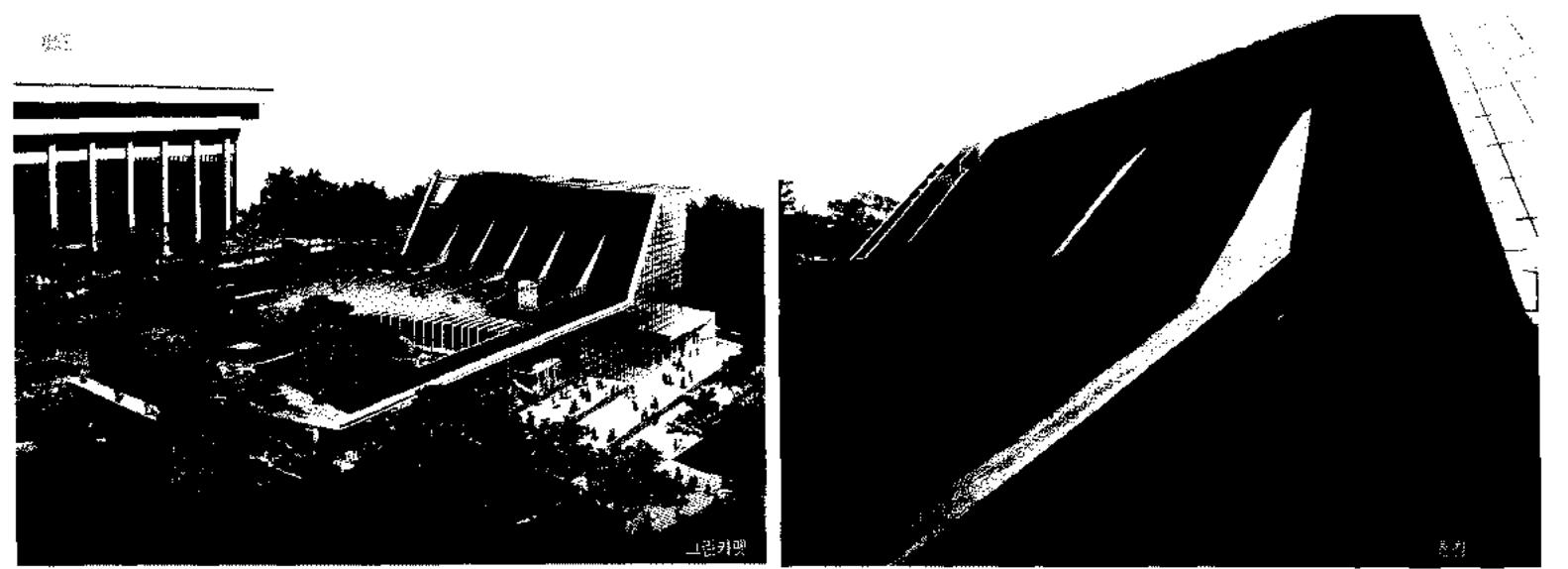
디지털도서관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소통의 도서관이다. 공원속의 도서관으로 도시의 컨텍스트와 새로운 공간과 장소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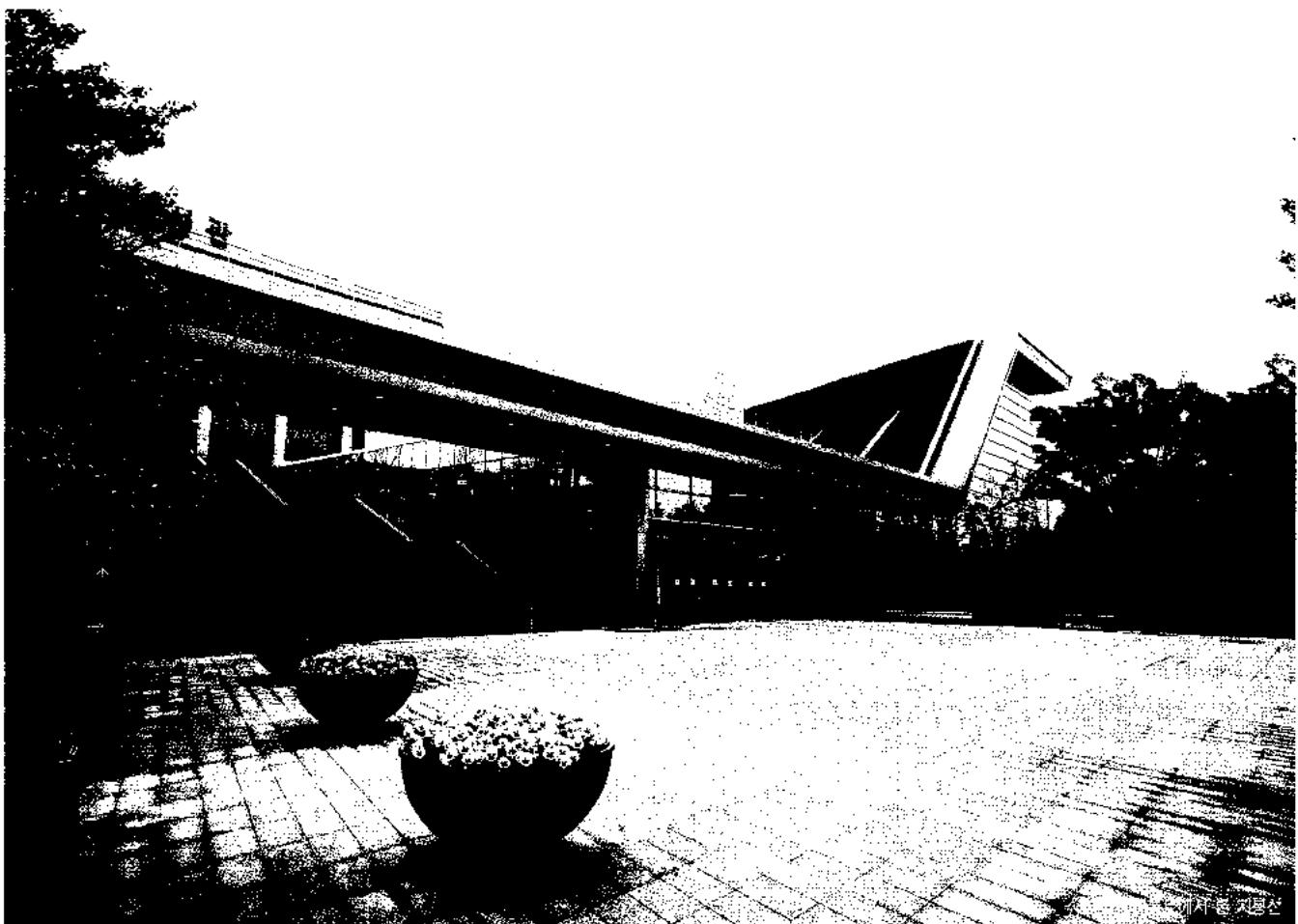
풍경이 되다(Green Carpet) 국립 종암도서관 전면광장을 형성하는 대지의 판(Green Carpet)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근 서리풀 공원의 녹지에서 시작되며, 연속된 흐름을 통해 지상의 건물 입면으로 펼쳐져 지붕에서 완결된다. 또한 반포로에서 유입되는 보행자의 흐름은 전면광장과 건물내부로 자연스럽게 연계 됨으로써 이용자는 유동적이며 연속적인 행위를 체험하며, 대지와 주변환경이 어우러져 건물과 조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편 이러한 풍경화된 건축은 도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간다.

비움(Urban Void) 국립 중앙도서관의 전면광장을 비움으로서 도시 나
의 다양한 문화와 다채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광장을 형성함
과 동시에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장소적 역할을 할 수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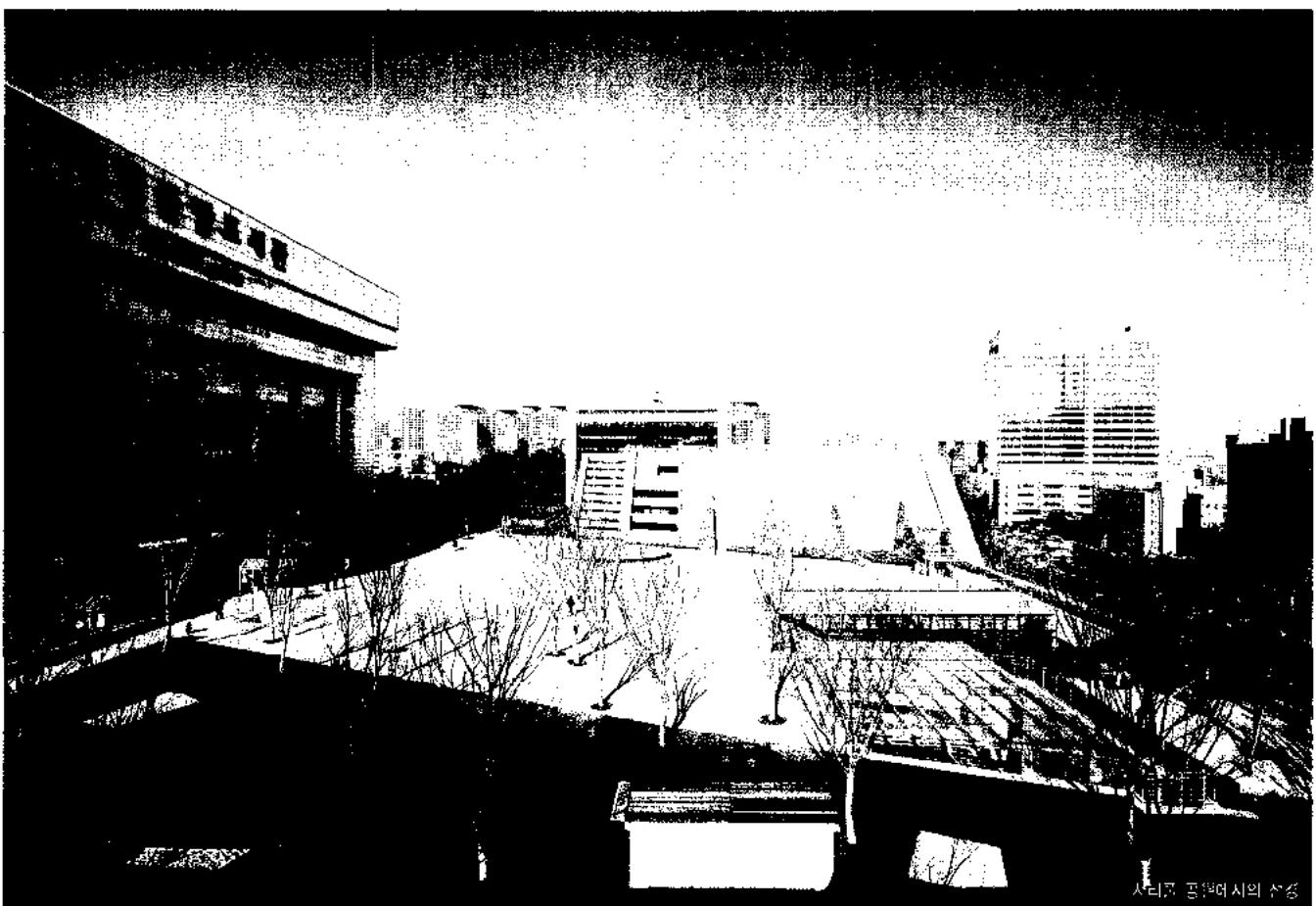
소통(Interaction)_지식정보시대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휴먼 인터랙션(Human Interaction)을 증대시키는 요소들로써 내외부 접근이 가능한 종합영상음향설, 디지털 카페, 브라우징 데크, 포켓정원 및 그린고럼, 다문화 및 정보체험이 가능한 로비공간, 다중화된 연속된 단면을 가진 열람실을 두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자연이 상호소통하는 흐르는 공간, 살아 숨 쉬는 장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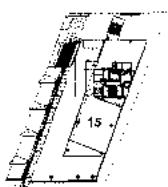


제작: 김정선



사리고 공원에서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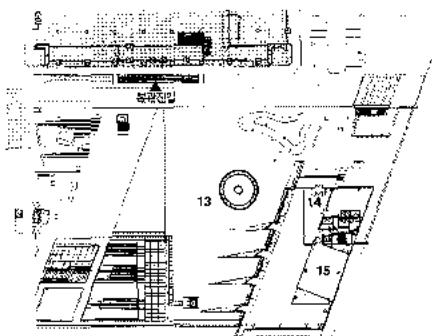
- | | | |
|------------|------------------|---------------|
| 01. 회비 | 07. 컴퓨터실 | 13. 그린 포럼(광장) |
| 02. 전시실 | 08. 브라우징실 | 14. 館 |
| 03. 다목적실 | 09. 이용자 서비스(열람실) | 15. 사무실 |
| 04. 주최장 | 10. 시험자 지로고 | 16. 화물창고 |
| 05. 서고 사무실 | 11. 그룹 스터디룸 | 17. 휴게 라운지 |
| 06. 서고 | 12. 이용 보증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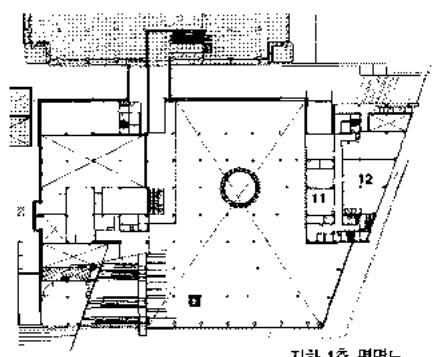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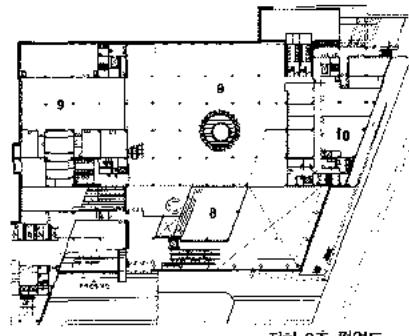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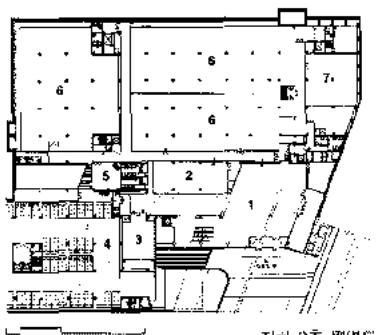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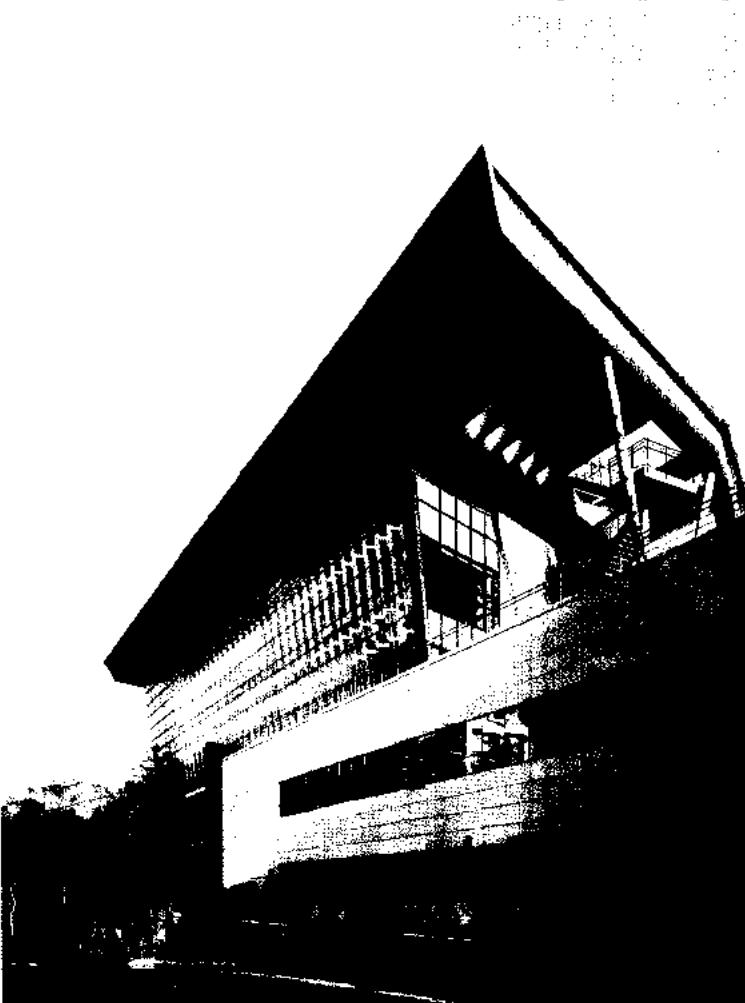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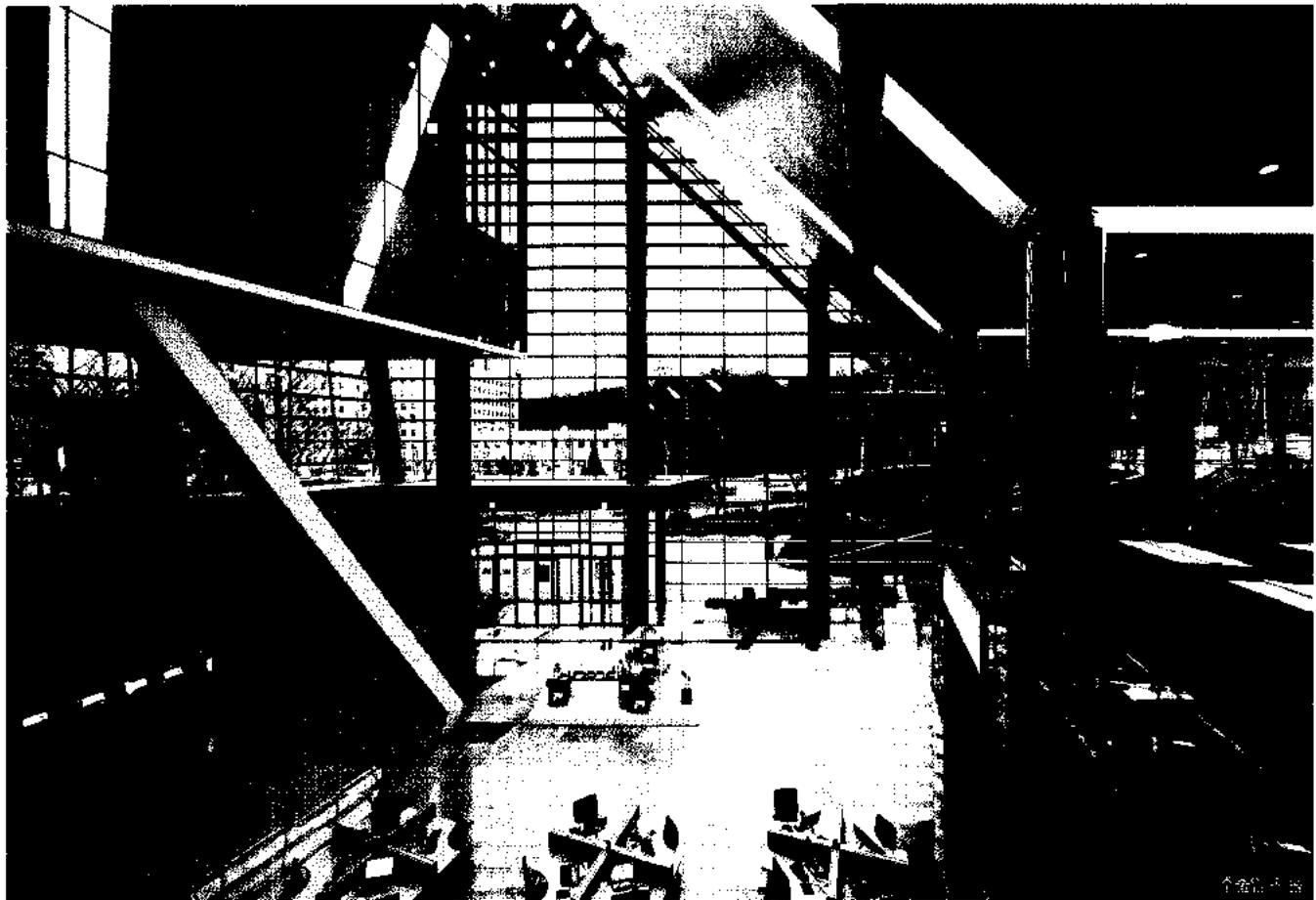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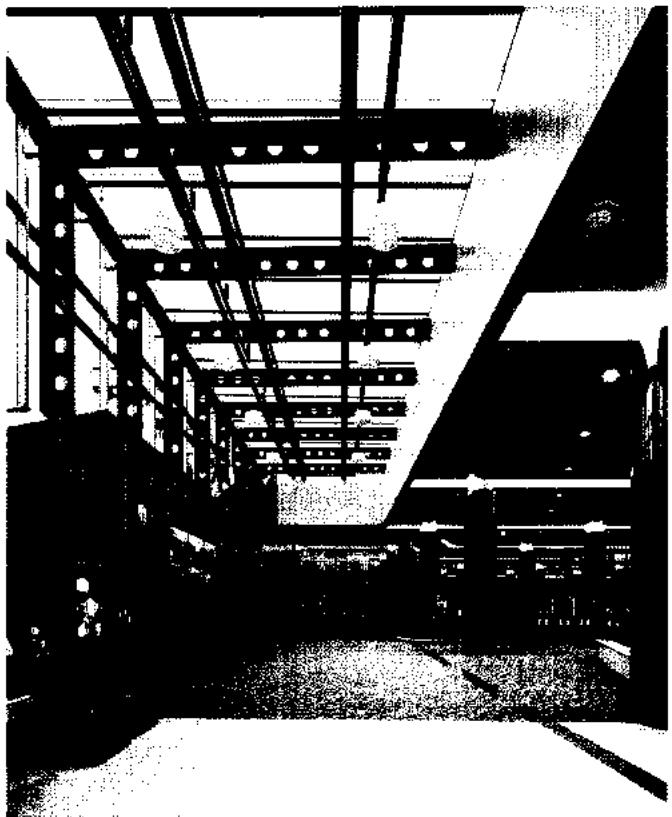
도서관 입구



우측면 도로에서의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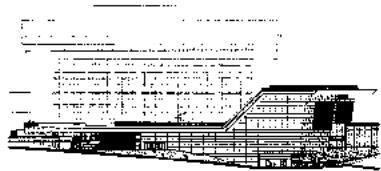
개방형 복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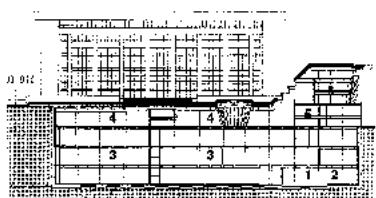
연결통로



출입정을 이미지벽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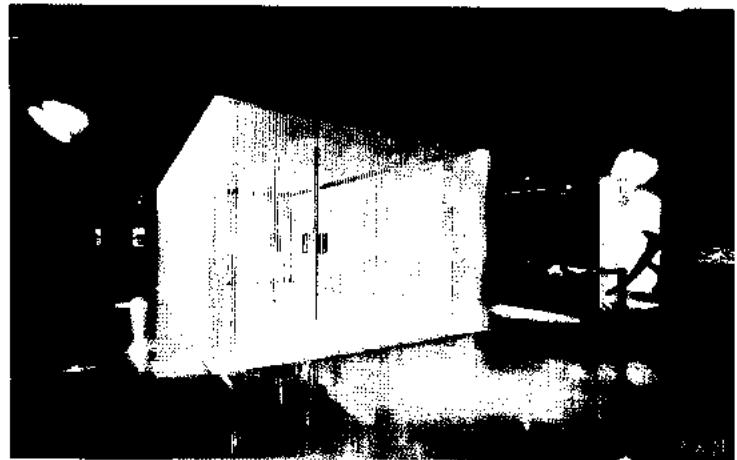
횡단면도



03 9 16m

종단면도

- 01_ 기계실
02_ 전기실
03_ 세고
04_ 이용자 서비스(영화실)
- 05_ 그룹 스터디실
06_ 사무실
07_ 협의실
08_ 브리핑장



로스쿨

갤러리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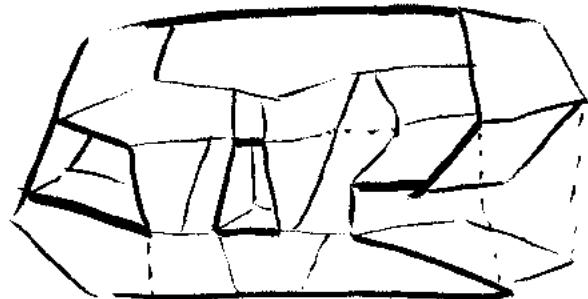
Crystal Sculpture

신창호 / 정회원, 운동 건축사사무소(주)

by Shin, Chang-hoon, KIRA

장윤규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Jang, Yoon-gyoo



CRYSTAL SCULPTUR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대목동 167-8의 1필지	규모:	지상 3층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5종이전지구, 비행안전구역	구조:	창골구조
주용용도:	기실건축물	외부마감:	망정페탈+124루광복출유리
대지면적:	3493.00m ²	구조설계:	+THK30외장석재(White Color)
건축면적:	152.00m ²	타구조:	
면적률:	2.7//.96m ²	사진:	남궁선
건폐율:	32.98%	설계담당:	김성민, 김세진, 김민태
총면적률:	7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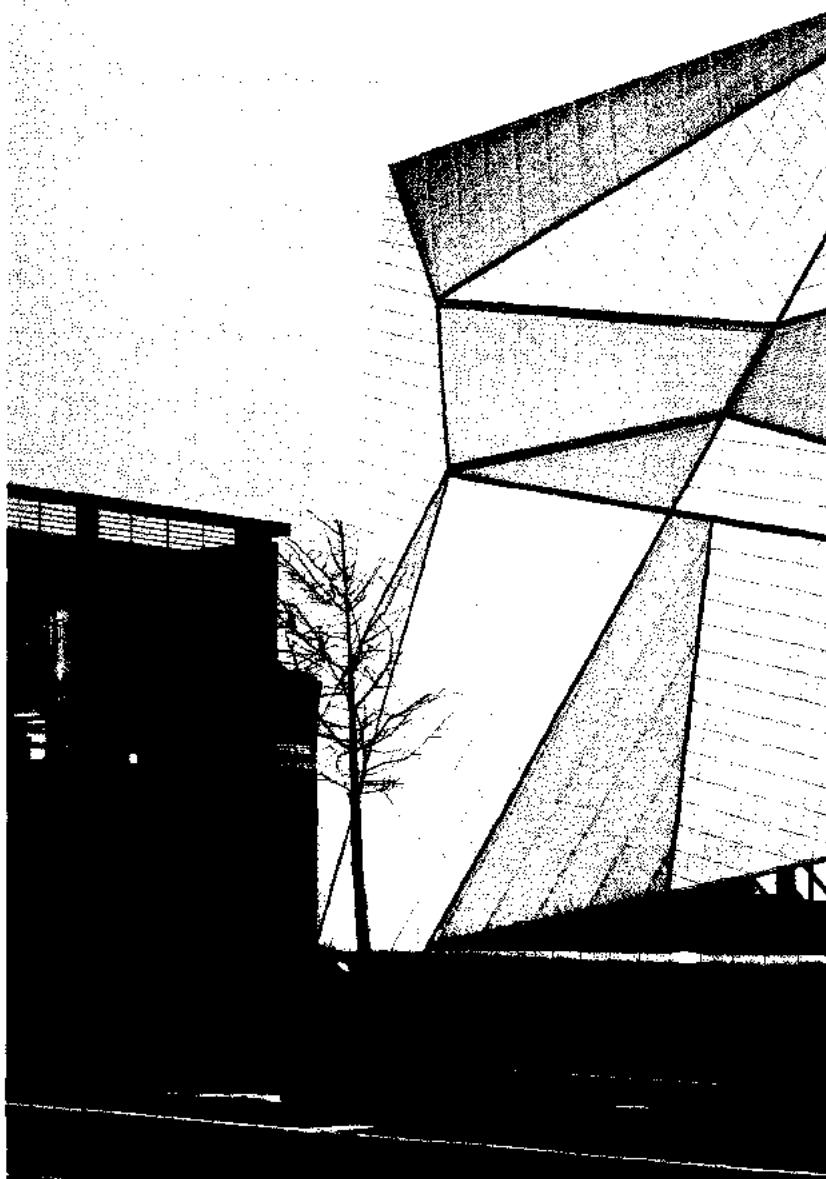
Gallery housing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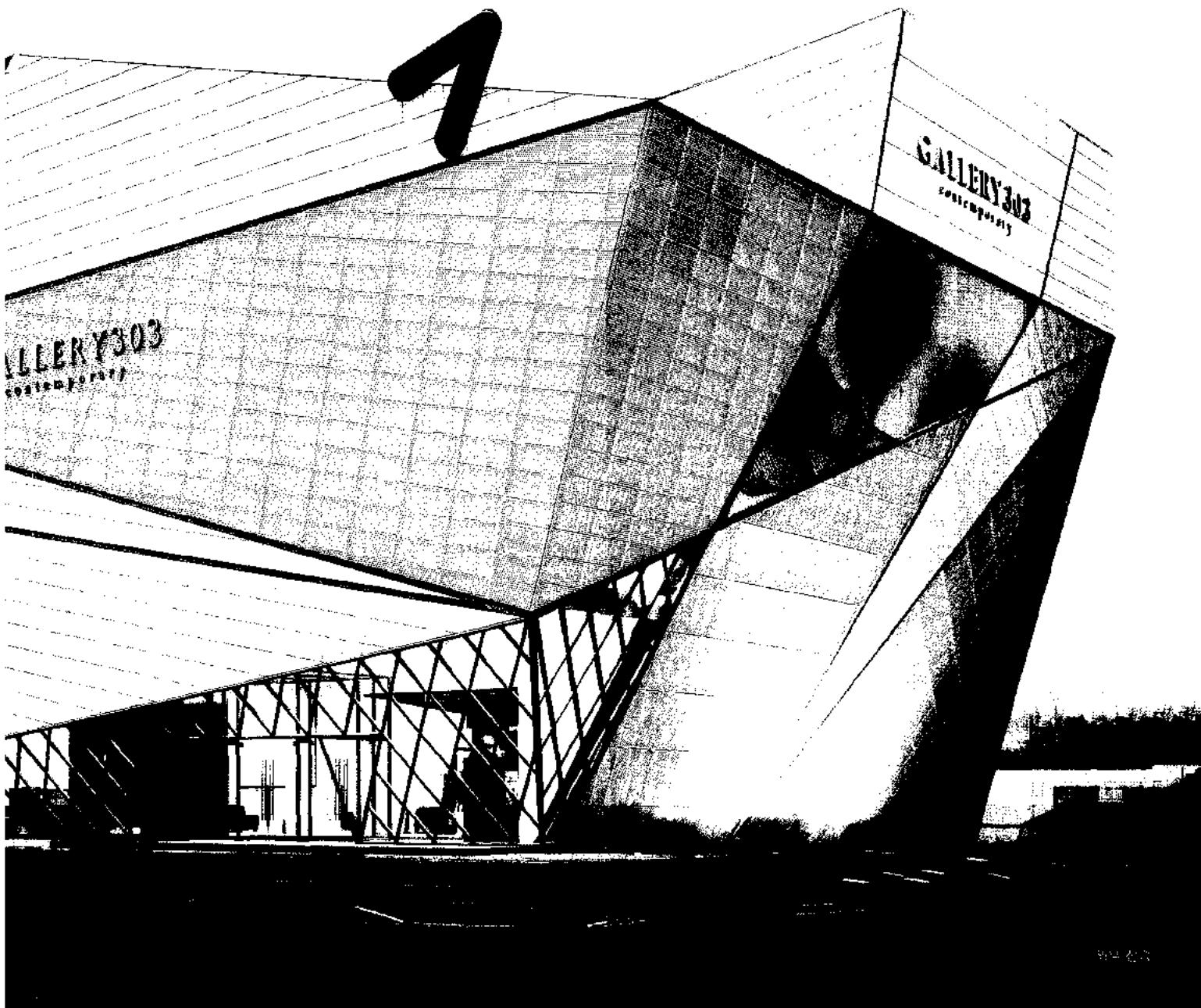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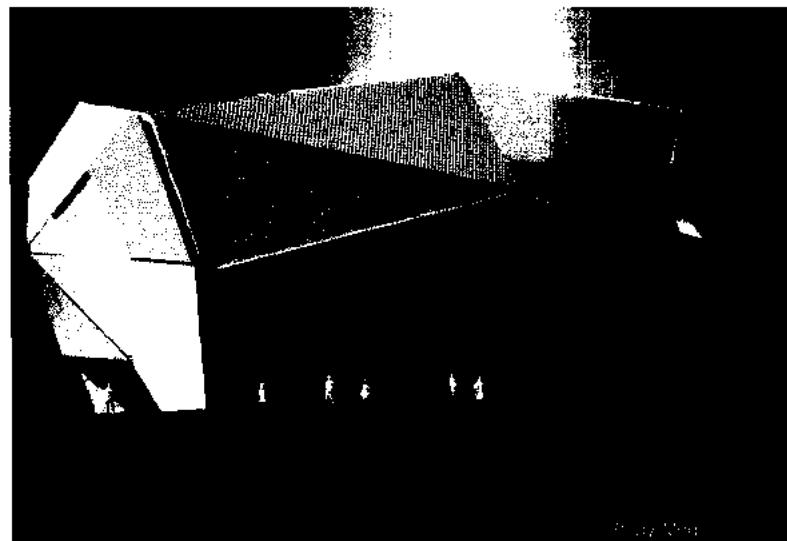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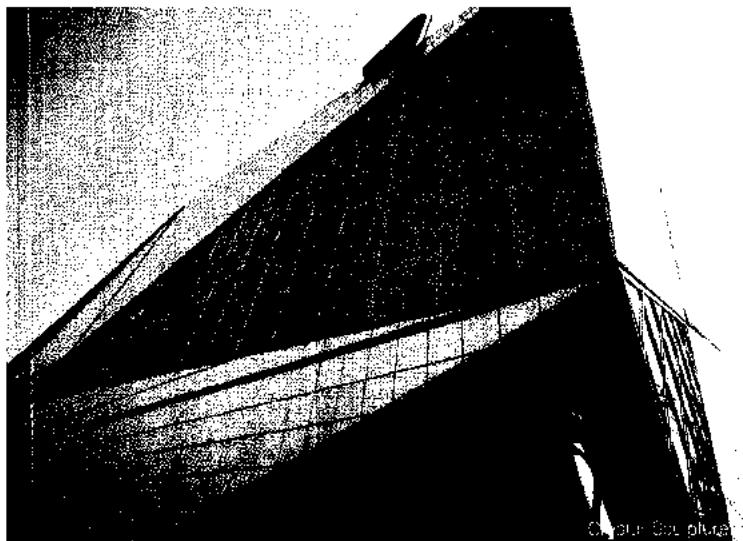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의 비즈니스, 문화, 예술이 반영된 신감성 미래주거단지인 '갤러리 303', 따라서 이러한 소비계층의 소비 기호에 맞게 고급스러운 Gallery같은 모델하우스의 외관을 디자인 했다.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백색외장의 통일된 사용과 마치 다이아몬드를 컷팅하듯이 매스와 공간을 다듬은 스타일, 내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편침 입면과, 베이스패널과 스테인레스 같은 재료들은 마치 Gallery를 관람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영국의 복합공간, 프랑스의 가족중심공간, 뉴욕의 전문가 부부공간 세가지 스타일을 바탕으로 개발된 주부CEO들을 위한 맞춤 주거공간으로써, Housing Museum에는 브리티쉬 하우스, 프렌차 매종, 뉴욕로프트 3가지 컨셉으로 구성된 세계최초의 입체공간을 담고 있는 Gallery Housing Museu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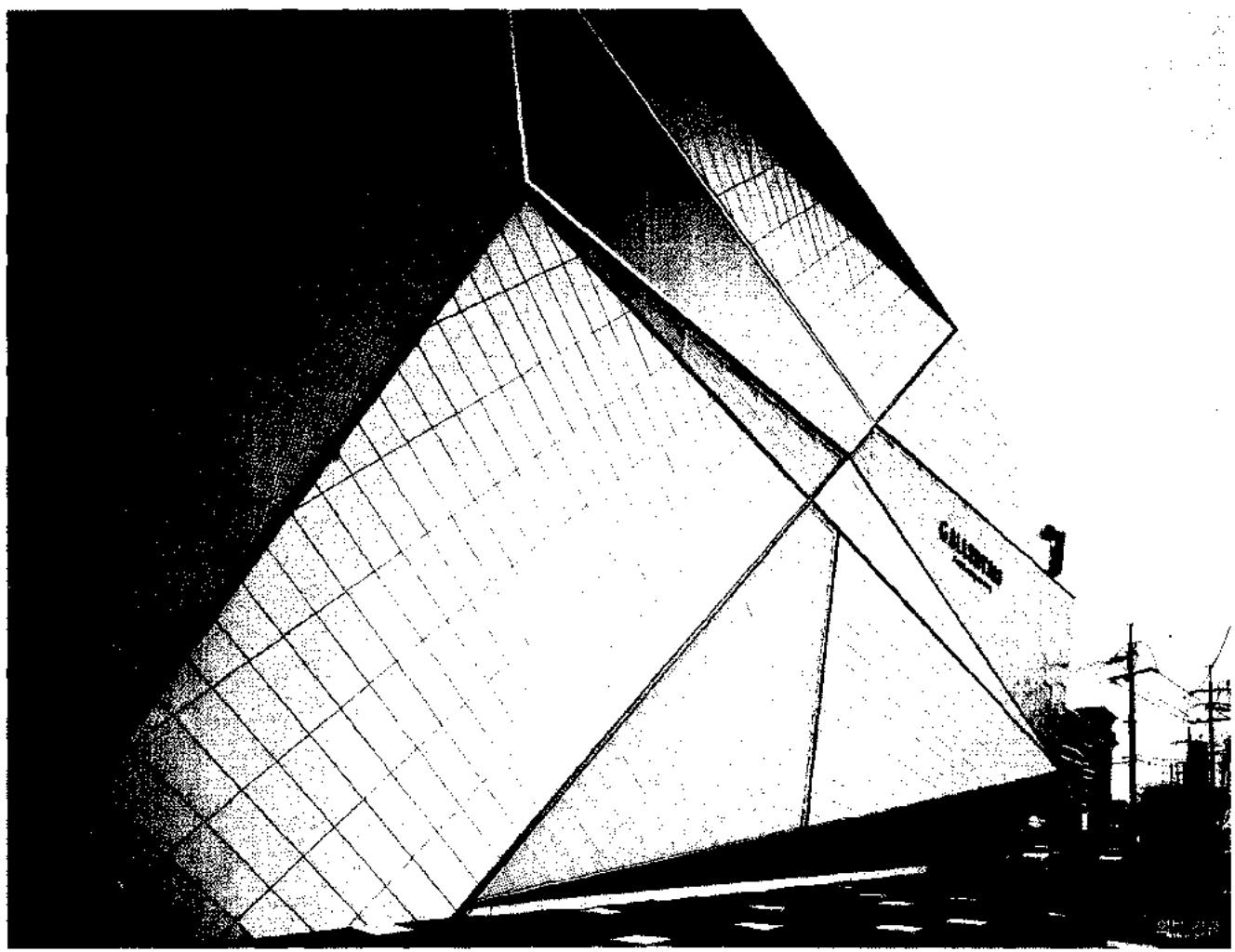
Gallery Interior Concept 각각의 유니트가 가진 특성에 따라 긴 불룸과 높은 층고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입체적인 내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 동선을 마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유니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되어 있다. 갤러리 공간 전체에 빛 환경의 연출은 벽과 천정에서 빛의 조리개를 통해 풍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끔 디자인 하였으며, 매인 로비공간의 주광을 트랙으로 형성하여 미술관의 조명환경을 구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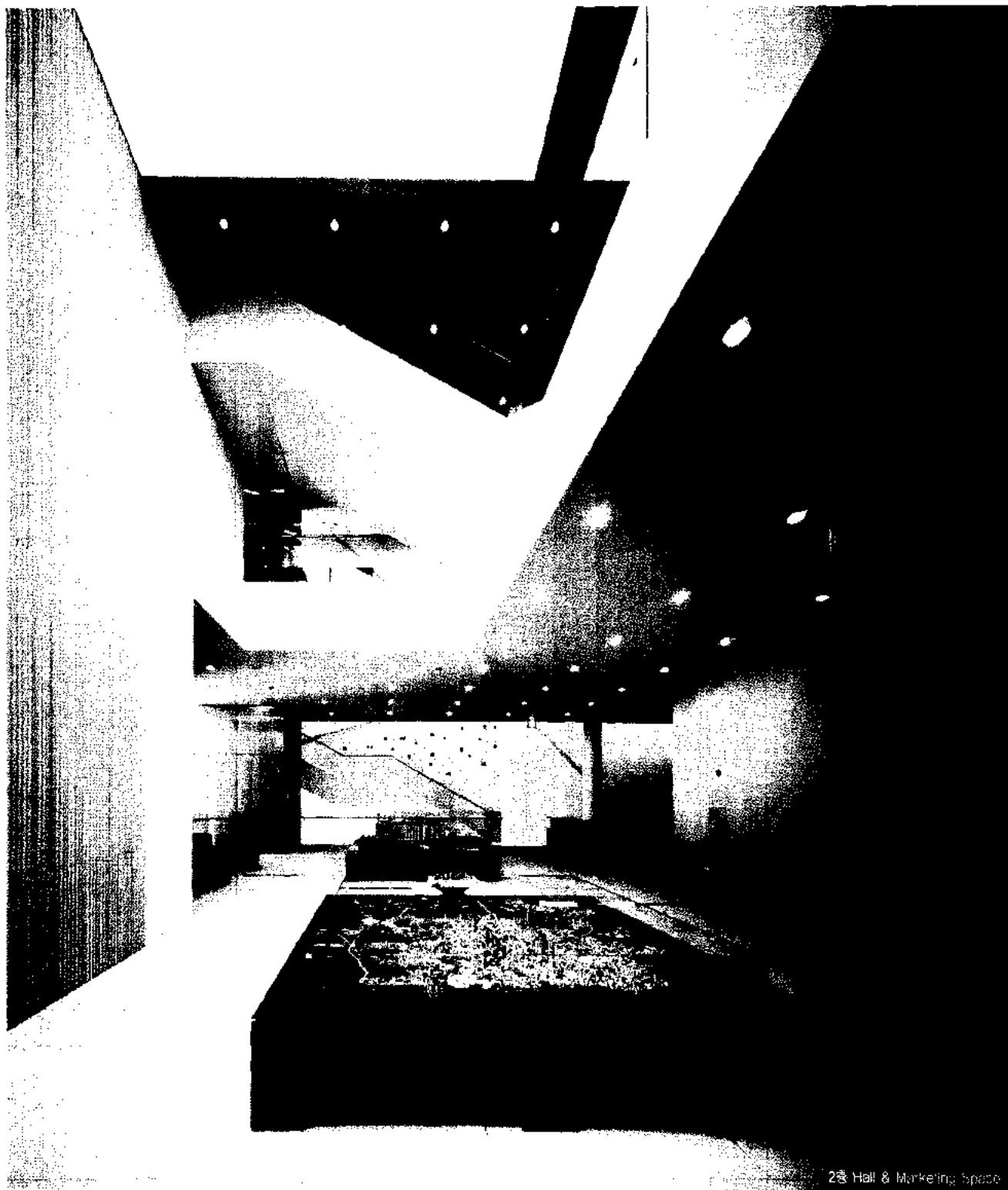
Crystal Sculpture Concept 도시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조각을 통해 보는 각도에 따라 항상 변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 할 것이다. 순백색의 Crystal은 도시와 반응하는 생명체이길 제안한다. Crystal은 Cutting이라는 작업을 통해 원석내부로부터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Crystal Sculpture의 개념은 Mass를 몇 가지 건축적 기준 속에서 Cutting을 함으로서, 차별화된 외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내부디자인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Color Code Concept White & Red: 순백색의 순수한 이미지에 금호의 Color Code인 Red를 Point Color로 구성하여 신개념의 도시적인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금호의 이미지를 연상케 계획 되었다. 또한 내부는 자연소재의 우드마감과 도시적 이미지의 화색 베이스패널 바닥을 통해 내부적 공간은 미니멀한 갤러리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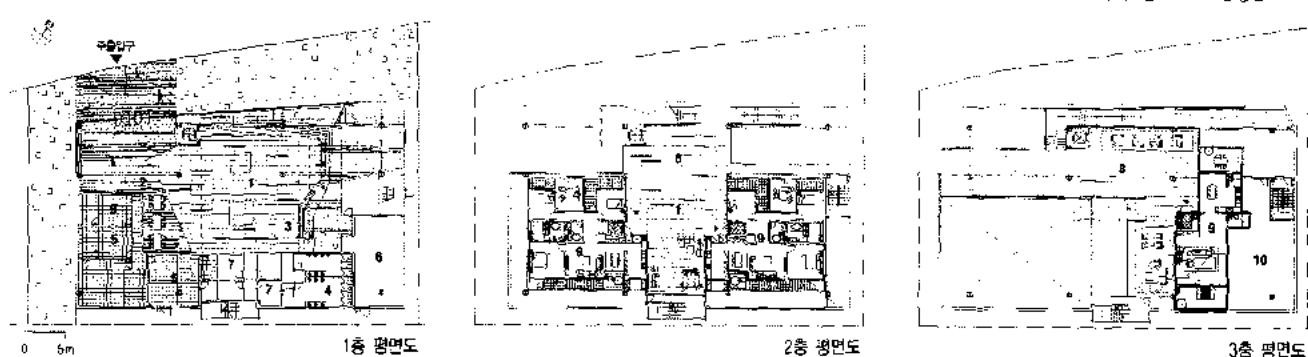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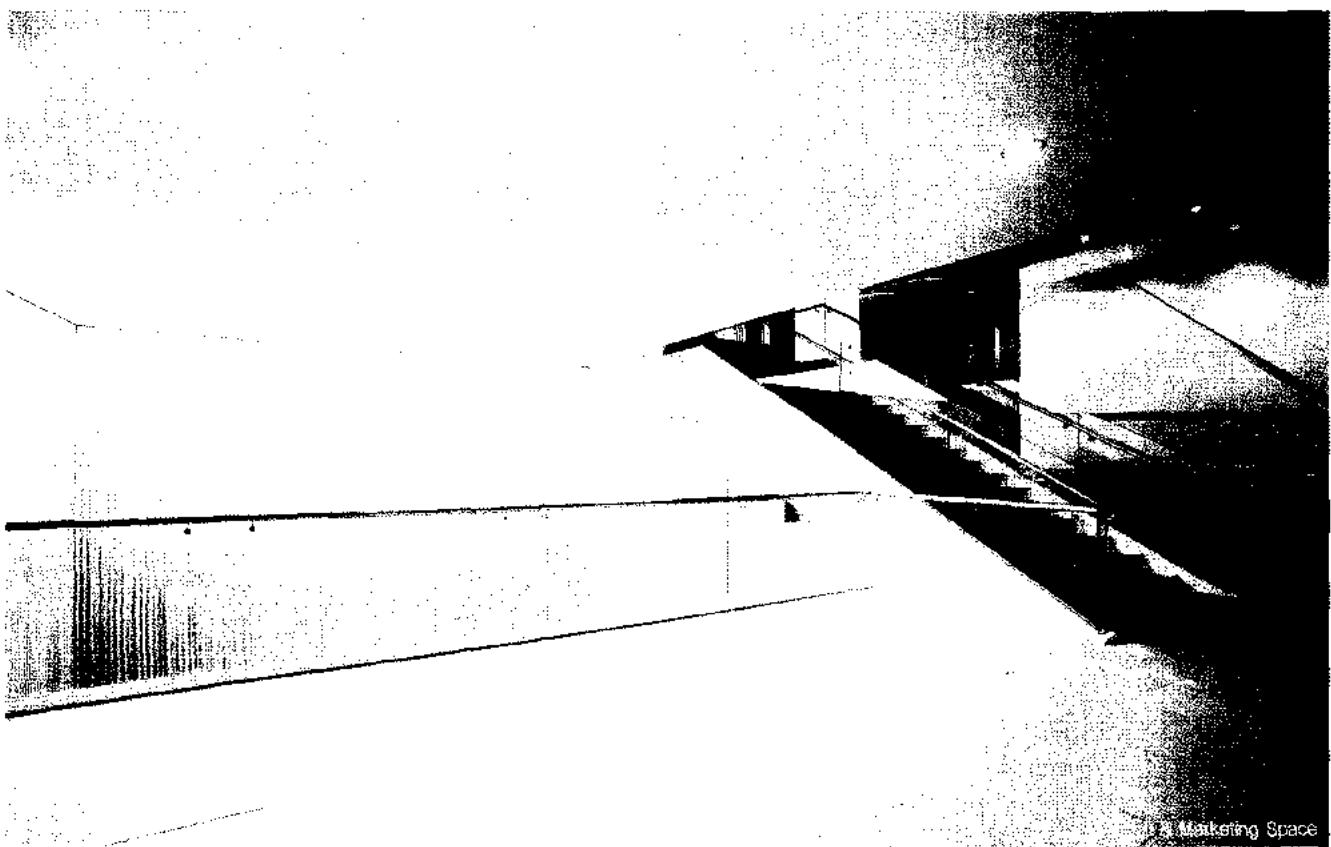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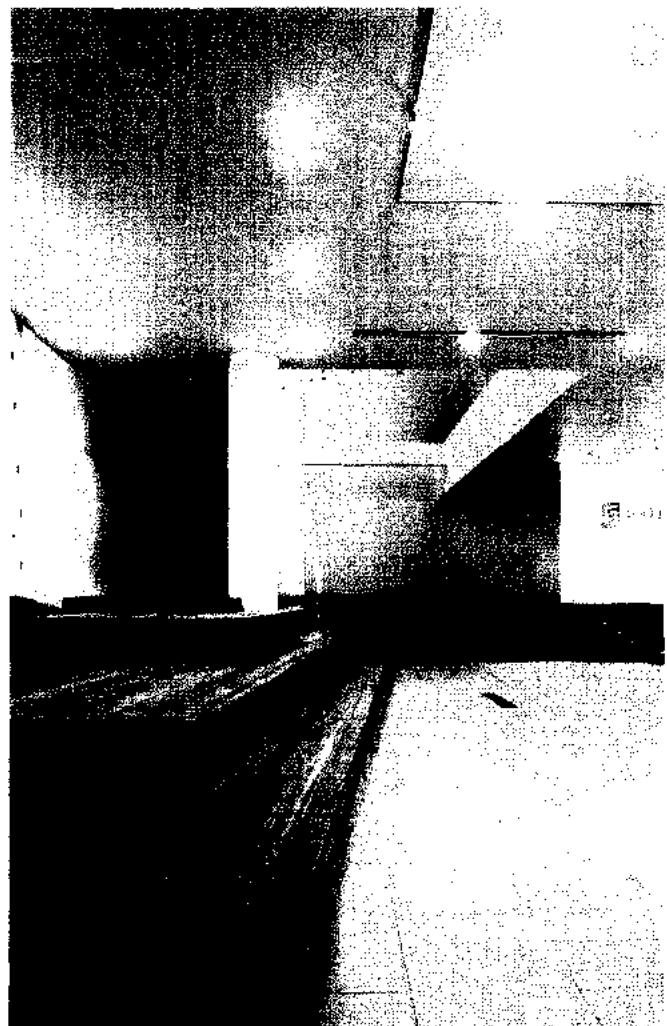
2층 Hall & Market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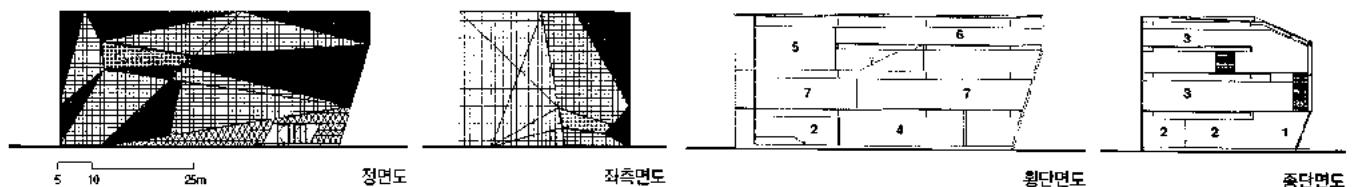
- | | |
|-----------|-----------|
| 01_홀 | 06_기계실 |
| 02_안내소 | 07_VIP룸 |
| 03_바(Bar) | 08_영업공간 |
| 04_호강실 | 09_단위 전시실 |
| 05_사무실 | 10_정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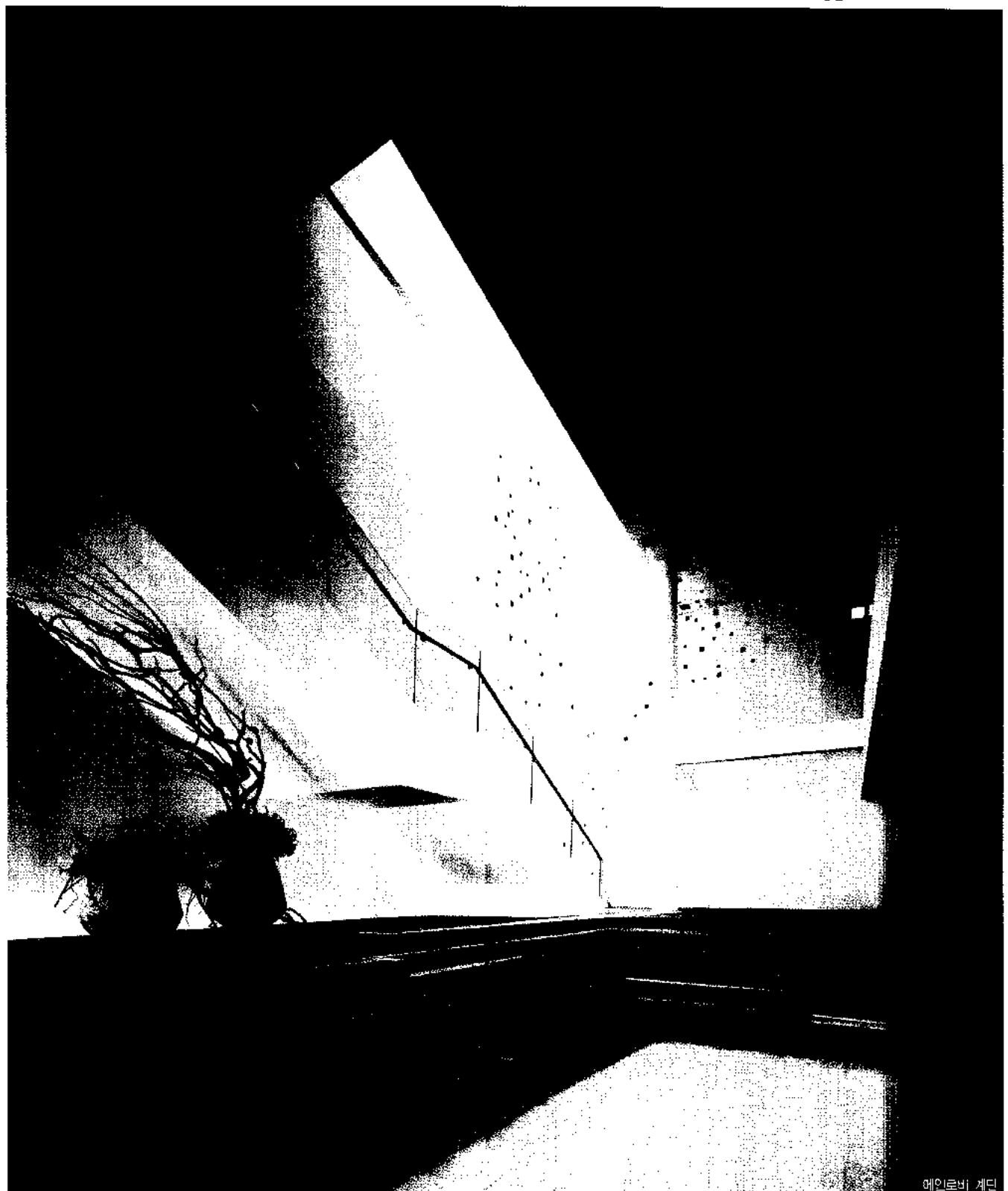


Market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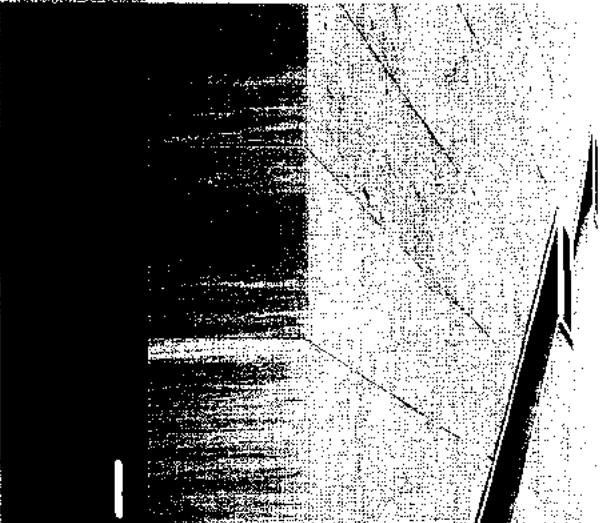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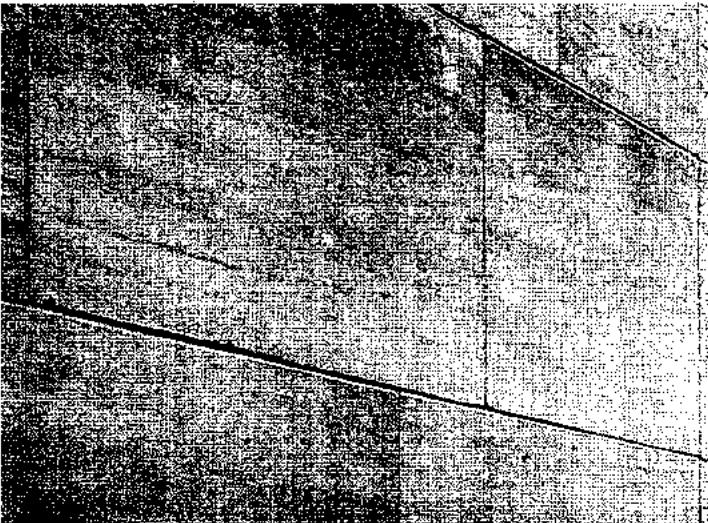
01_ 안내소
 02_ 사무실
 03_ 모델 하우스
 04_ 출입문
 05_ BRITISH
 06_ NEWWORK
 07_ MASION



에인로비 계단

독일
건축

최근 독일 현대건축에 관한 동향 소개



Introduction

주한독일연방대사관과 독일건축사협회(BAK) 건축교류네트워크(Netzwerk Für Architekturexport, 이하 NAX)는 한국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독일 건축사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전시장으로 선정된 서울의 플라톤 쿤스트ahrain은 그 자체가 독일건축사의 작품이다. 이번 토에서는 독일의 다양한 건축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독일 건축을 소개하는 것은 주한독일연방대사관과 독일건축사협회 건축교류네트워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3년간 독일에서 개최된 한국을 소개하는 전시, 전람회 그리고 국제회의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등기 되었다. 독일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건축과 건축사들의 작품 전시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단점가지로 독일 건축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 지역의 특징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성에 기초를 둔' 건축은 요즘 새로운 경향과 기술을 지역과 국가 사이로 교환하면서 발전되었고, 이러한 전시를 통하여 한국과 독일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3월간의 전시 기간 동안 건축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건축사, 건설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인 등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NAX와 주한독일연방대사관은 2010년에 또 다른 건축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세 부분(Part A, B, 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를린의 소규모 개인주택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해외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축 작품에까지 다양한 작품을 규모별로 소개하고 있다.

〈전시구성〉

Part A : NAX의 후원사로 독일의 건축사사무소 중에서 선정된 회사들이다. 독일의 건축을 외국에 전파하는 지명도 있는 사무소들로써 독일 국내에서 탁월한 건축 실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도 이미 인정을 얻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건축의 전문성과 궁정적인 이미지를 전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Part B : 'Architektur in und aus Berlin(베를린의 건축, 베를린으로부터의 건축)' 베를린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63개의 최근 프로젝트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건물, 조경 등의 9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매년 베를린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독일 수도의 건축을 세계에 공헌하고 있다.

Part C : DW-TV(Deutsche Welle)의 시리즈인 'Die Baumeister'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독일 건축사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중국의 도시계획, 남아프리카의 축구경기장, 두바이의 고층건물 등을 설계하였으며 '일류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대처하며 멀리 여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건축은 오래 시간동안 세계화를 이루어 왔고 탁월한 기술과 내구성이 있는 건축이라는 특수성을 부여하는 명성을 얻고 있다. 다음 세대의 독일 건축사들은 이미 세계화의 물결 위에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DW-TV의 시리즈인 'Die Baumeister'는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해외에서 시작하였으며 세계를 건축현장으로 활동하는 5명의 젊은 독일 건축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독일 전시에서는 독일과 해외에서 수행된 중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100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들의 작품들을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몇 개의 선정된 작품들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Part A에서는 3개의 건축사사무소와 다수의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한 곳을 소개하고, Part B에서는 9개의 다양한 범주에서 작품 하나씩을 선정하였으며 베를린에서 최근에 수행된 전형적인 독일 작품들을 소개한다.

작 품 : Neues Museum, Nürnberg
설계자 : STAAB Architekten
사 진 © Margherita Spiluttini

NAX는 2002년에 독일건축사협회(BAK)에 의해 세계 건축사들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http://www.architekturexpert.de>)

NAX의 한국주재원은 차밸 랄프(Ralf Zabel)이며 서울에서 조희독일연방대서관과 함께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

글 : 차밸 랄프(Ralf Zabel), 독일건축사협회 NAX 한국주재원
사진 및 자료 제공 : NAX + 각 간호 사무소 총재

NAX Partners

Bollinger und Grohmann Ingenieure



사진 © NAX

건축사 소개

클라우스 볼링거(Klaus Bollinger), 담슈타트기술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함. 도르트문트대학교(Dortmund Universität)에서 강의하였으며, 1994년부터 비엔나응용미술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Arts at Vienna)의 건축학부에서 구조공학과 교수로 재직함. 2000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타델술레(Städelschule)의 객원교수 역임.

만프레드 그로만(Manfred Grohmann), 담슈타트기술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에서 강의하였으며 1996년부터 카셀대학교(Kassel Universität)에서 구조설계 교수로 강의. 2000년부터 슈타델술레(Städelschule)의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007년부터 파리의 ESA 건축학교의 객원교수로 근무함.

건축사무소 소개

건축사와 모든 설계 팀의 협력은 설계와 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통합적인 설계과정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수준 높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공



사의 기초가 된다. 건축사의 디자인은 구조적인 설계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기능성과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 인지니어링 회사로서 건축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성공적인 공사를 보증해 준다. 공사를 위한 협력을 찾기 위해 항상 지속 가능한지, 융통성이 있는지를 염두하고, 신중하게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홈페이지 : <http://www.bollinger-grohmann.de>)

주요프로젝트

- 실만양자 과학전시관(Prince Salman Science Oasis)
 - 사우디아라비아, 2012, 10,000sqm, Gerber Architekten
- 해저여객터미널(Sea Passenger Terminal)
 - 모로코, 2011, 36,000sqm, Odile Decq/Benoit CORN ETTE architectes urbanistes
- 영화단지(Cinema Complex)
 - 대한민국 부산, 2011, 183,100m², Coop Himmelb(l)au
- 국제회의장(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 중국, 2010, 30,000sqm, Coop Himmelb(l)au
- 랭스의 루브르 박물관(Louvre Lens)
 - 프랑스, 2005~2010, 14,000sqm, SANAA Kazuyo Sejima & Ryue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사진 © NAX

건축사 소개

요겐 엔겔(Jürgen Engel)_경영이사. 브라운슈나이크대학교(Universität Braunschweig), 스위스 취리히의 ETH, 이탈리아 기술대학교(RW TH Aachen), 미국의 MIT, 캠브리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Schneider-Wesseling 및 O. M. Ungers 건축사사무소에서 협업. 1990년부터 KSP Architekten에서 경영 파트너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독립 경영이사로 근무함.

하인츠 모친베그(Heinz Morathweg)_뮌헨 & 스톤트가르트대학교(München und Stuttgart Universität), 아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졸업. 1992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KSP Architekten에서 협업하였으며 2000년부터 뮌헨의 KSP에서 사무소를 경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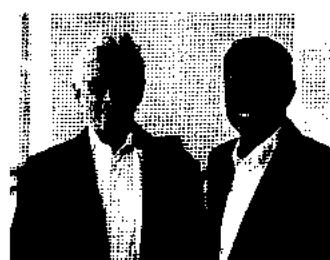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소개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국제적인 건축사사무소 중의 하느-아-디. 독일과 유럽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브라운슈나이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뮌헨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시장을 위해 중국 북경어드 지사가 있다. 아랍과 러시아에도 진출하여 국제적인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으며 도시계획에서부터 산업 디자인까지 건축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80명 헌신된 직원들의 폭넓은 설계 경험과 전문성으로 높은 수준의 실력을 수령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ksp-architekten.de>)

주요 프로젝트

- FrankfurtHochVier(사무소, 호텔 및 쇼핑센터)
-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8, BGF 220,923sqm
- 국립미술관(National Art Museum)
- 중국 난징, 2008, BGF 27,000sqm
- Zehlendorfer Welle(시립수영장)
- 독일 베를린, 2008, BGF 45,000sqm
- 북경국립도서관
- 중국 북경, 2007, BGF 80,000sqm
- Haus am Zentralen Platz, Westhafen
-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7, BGF 8,800sqm



NAX Partners

Léon Wohlhage Wernik Architek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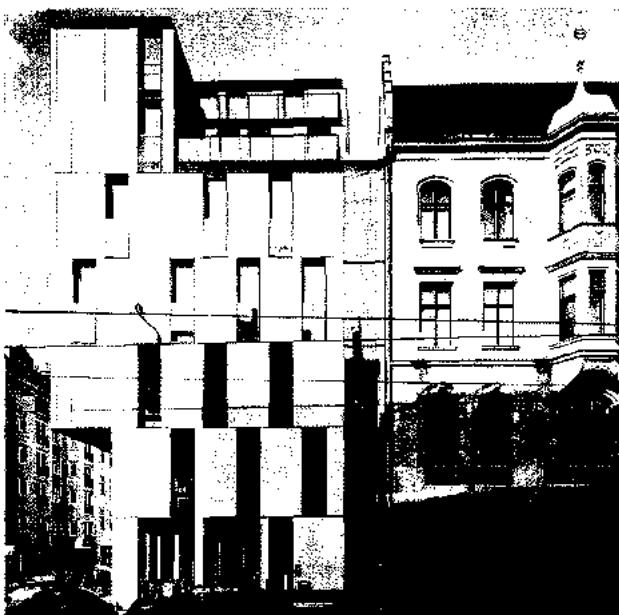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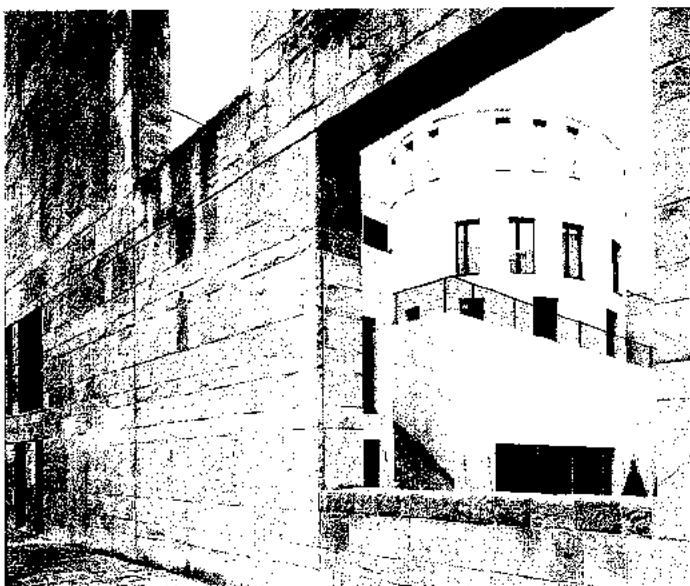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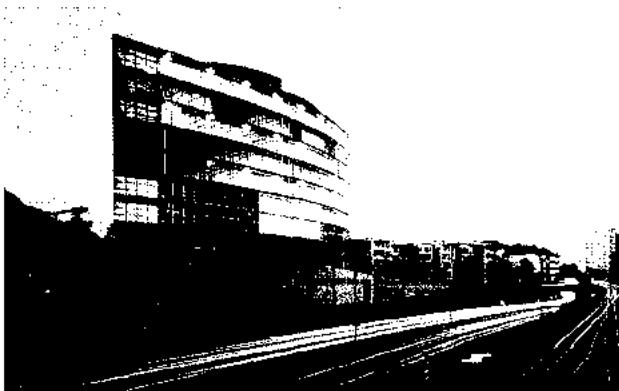


사진 © NAX



주요 프로젝트

- Silk
 - 독일 함부르크, 2007년, 30,000qm
- Wohnbebauung Soldenstraße(주택)
 - 독일 뮌헨, 2007, 60,000qm
- IKEA Flagshipstore Germany
 - 독일 베를린, 2005, 35,000qm
- Revitalisierung des Historischen Borsig Areas(분화재 복원)
 - 독일 베를린, 2003
- Haus des Sozialverbandes Deutschland
 - 독일 베를린, 2003

건축사 소개

콘라트 울하게(Konrad Wohlhage)_1987년부터 1990년까지 뮌헨과 델프트(Delft)에서 건축학 전공, 1997년부터 베를린기술대학교(Technishce Universität Berlin)에서 연구조교로 근무.

힐데 레온(Hilde Léon)_1979부터 1981년까지 베를린기술대학교에서 건축전공, 2000년부터 함부르크의 HfBK의 교수 역임, 2002년부터 하노버대학교(Universität Hanover) 건축학부 교수 재직함. 베니스 비엔날레(the Biennale in Venice)의 녹일 전시관 위원으로 선정됨.

지그프赖트 베르니크(Siegfried Wernik)_1972년부터 1978년까지 아achen기술대학교(RW TH Aachen)에서 건축을 전공함. 런던의 Wiltord & Associates 건축사사무소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에서 Brands, Kolbe와 함께 시무소를 공동 경영함. 1994년부터 현재는 Hilde와 협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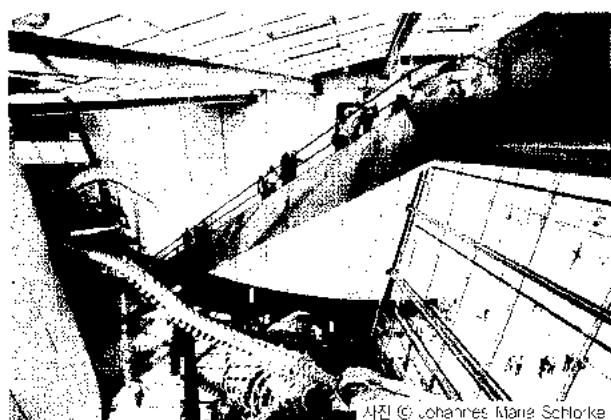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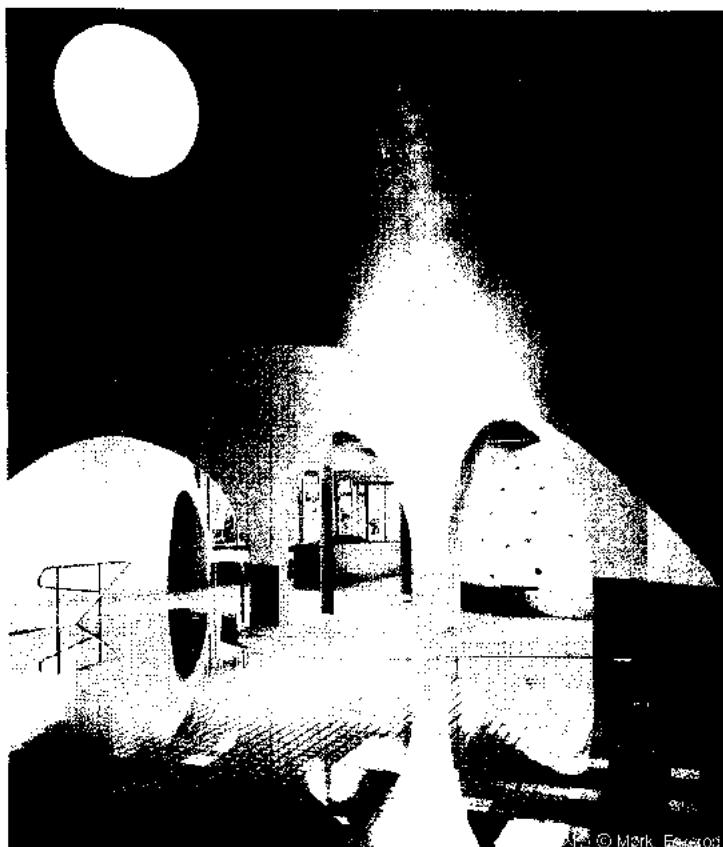
건축사사무소 소개

건축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의 형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다고 생각한다.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마지막 완공 단계에서도 설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명의 건축사에게 베를린은 시무소를 시작한 처음 장소로서 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곳이다. 사무소를 설립한 1987년부터 참여한 공모전을 통해 많은 독일과 해외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홈페이지 : <http://www.leonwohlhagewernik.de>

NAX Partners

Behnisch Architekten



건축사사무소 소개

슈터판 비니쉬(Stefan Behnisch) 건축사의 지도하에 스튜트가르트에서 1989년에 창설함. 파트너는 데이비드 쿡(David Cook)과 마틴 하스(Martin Haas)이며,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질적으로 높은 건축을 지향함. 다수의 국제적인 건축상을 수여함.

우리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축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다는 사회적인 개념을 디자인 철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건축물 뿐 아니라 도시환경의 **奥斯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시 문화, 기후,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등을 민감히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작품들을 설계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benhisch.com>)

주요 프로젝트

- 시청(Town hall, Bad Aibling)
 - 독일, 2012, 3,000m²
- 밸트 도어 대학교 법률센터(The John and Frances Angelos Law Center, University of Baltimore)
 - 미국, 2012, 19,000m²
- 만크로도니아 해안 종합계획(Mankredonia New Waterfront Masterplan)
 - 이탈리아, 2012, 19ha
- 버클리대학교 기숙사단지(The Anna Head Student Housing Complex, University of Berkeley)
 - 미국, 2012, 12,000m²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의실
 - 스위스, 2012, 5,800m²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
 - 스위스, 2011, 35,000m²

Baugruppenhaus

다용도복합건물 (Multi-generational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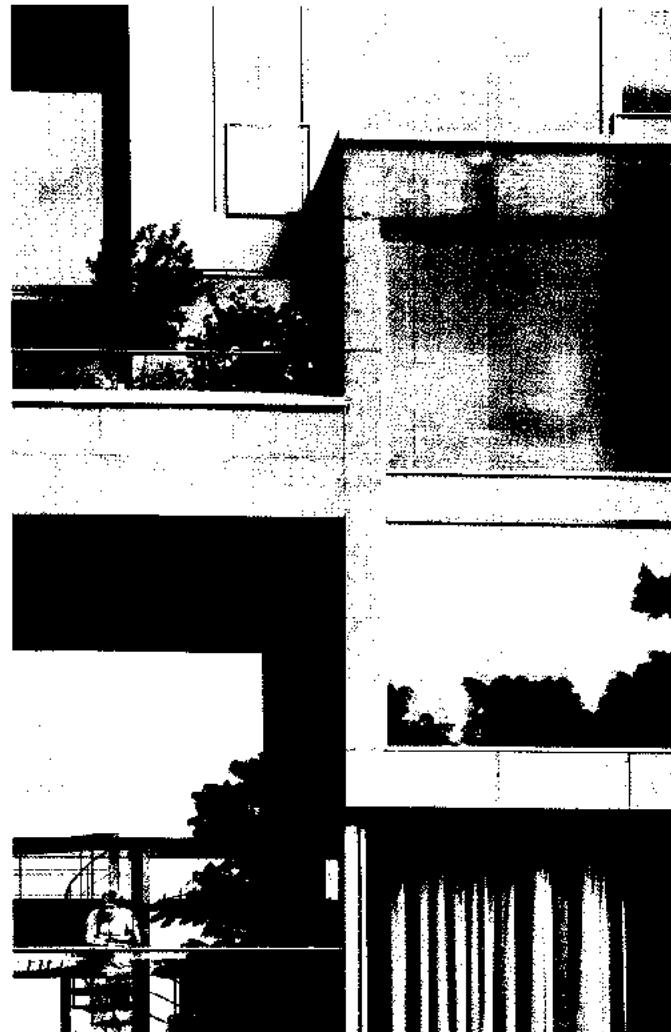


사진 © Jan Bitter

건축사 소개

알무트 엔스트(Almut Ernst)_1991년 알만트 그륀투흐(Armand Grünlich) 건축시와 함께 사무소를 개설함. 스튜드가르트 대학교에서 건축 및 도시개발 전공 후 런던에 있는 건축협회에서 DAAD 장학금 수여. 런던 Alsop & Lyall에서 실무 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베를린에 있는 Hochschule der Künste에서 건축 및 시각디자인을 강의함.

아만트 그륀투흐(Armand Grünlich)_1985년에 베니스대학(University of Venice, IUAV)에서 DAAD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1989년에 아흔기술대학교에서 득별상을 수상하며 졸업함.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런던의 Norman Foster에서 실무하였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베를린의 Hochschule der Künste에서 건축학을 강의함.

다수의 건축 작품이 유명 잡지에 게재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함. 두 디묘건축사는 중요한 공모선 심사자로, 또한 객원 비평가와 강의자로 초청받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제10차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위원으로 선정됨.

작품 소개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주의화와 수령의 연장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요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도시에서의 직업을 원하게 되었다.

베를린의 미테(Mitte)구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다용도 복합건물이다. 7명의 거주자에게 도시 속에서 매우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방된 공간과 열린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각기 다른 용도로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함이 도시의 공간을 풍요롭게 한다. 몇 개의 층을 하나로 묶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1층에 가까운 층들은 노인 주택, 상점, 스튜디오와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손중과 도시의 밀집도 및 다양성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화시킨 나목적 주택의 비람스한 형태이다.

사무소	Grünlich Ernst Architekten BDA http://www.gruentucherst.de
건축사	Almut Ernst, Armand Grünlich
건축주	Auguststraße 51 GmbH
위치	Auguststraße 51 10119 Berlin
B R I	6,650cbm
B G F	2,730qm

Sparkasse Berchtesgadener Land

베흐데스가드너의 슈파카스 은행 본사 및 바트 라이헨할 지사
(Sparkasse Berchtesgadener Land Central office and branch in Bad Reichen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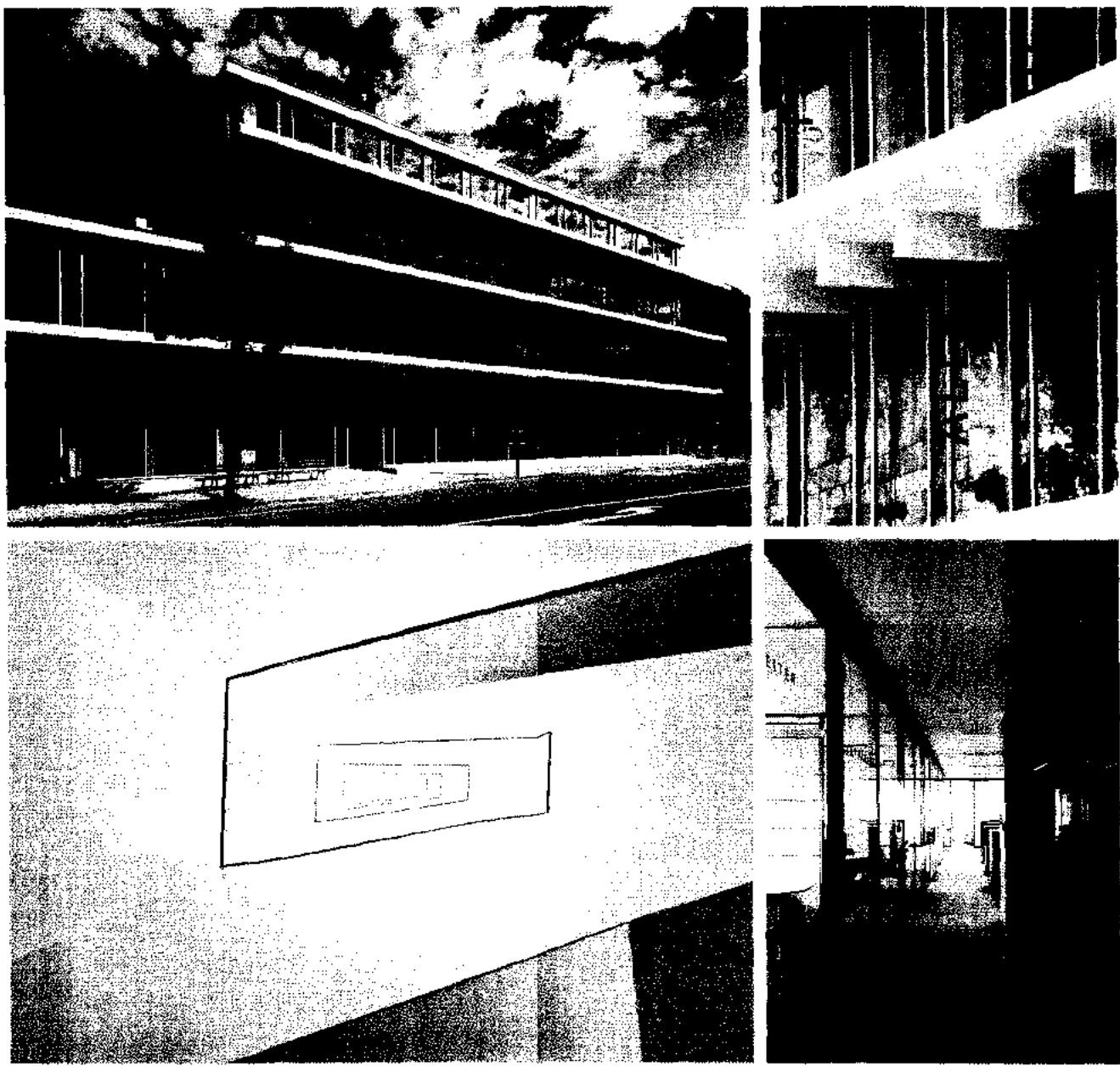


사진 © Rolf Syrum

건축사사무소 소개

건축사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서 디자인해야 하고 건축주를 포함하여 설계에參與되는 노동, 분야의 업무 및 담당자를 통괄해야 힘을 중요하게 생각함.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설계해야 하며 건축주의 필요와 그 장소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성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 하고자 함.

작품 소개

베흐데스가드너 슈파카스 은행 본사 및 바트 라이헨할 지사는 내용과 구조면에서 송합적으로 재설계되었다. 전형적인 법안 회사 이미시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분명한 지방식을 기진 독특한 시설로 창조되었다. 바트 라이헨할 주변은 소금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Hall - 소금광산, 소금) 건축물을 연한 분층색에서 진한 진홍색까지의 자연색의 스펙트럼으로 디자인하였다. 건축물 전체의 색상은 그림자, 건축지자, 조명의 밝기 수준에 의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무소 Bolwin Wulf Architekten Partnerschaft

<http://www.bolwinwulf.de>

건축사 Hanns-Peter Wulf

건축주 Sparkasse Berchtesgadener Land

위치 Bahnhofstraße 17 83435 Bad Reichenhall

B R I 29,000cbm

B G F 7,230qm

Betreuungszentrum und Mensa Grundschule am Weinmeisterhorn

주간 육아시설 및 식당 (Day-care Center and Refe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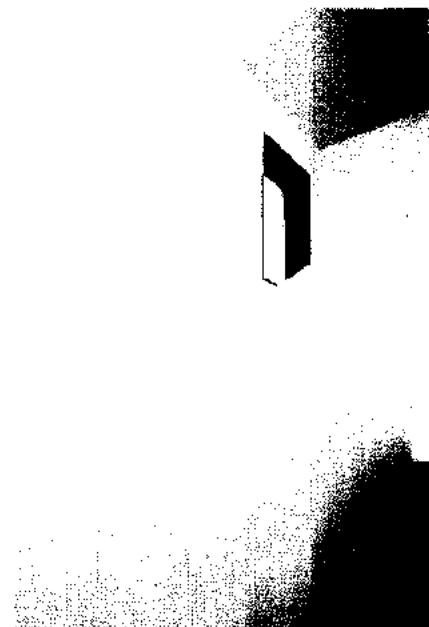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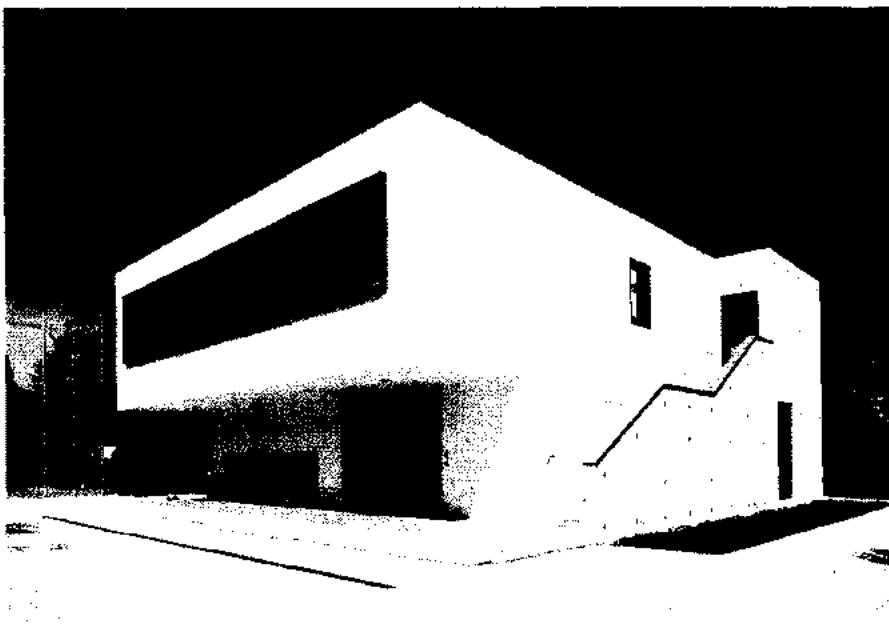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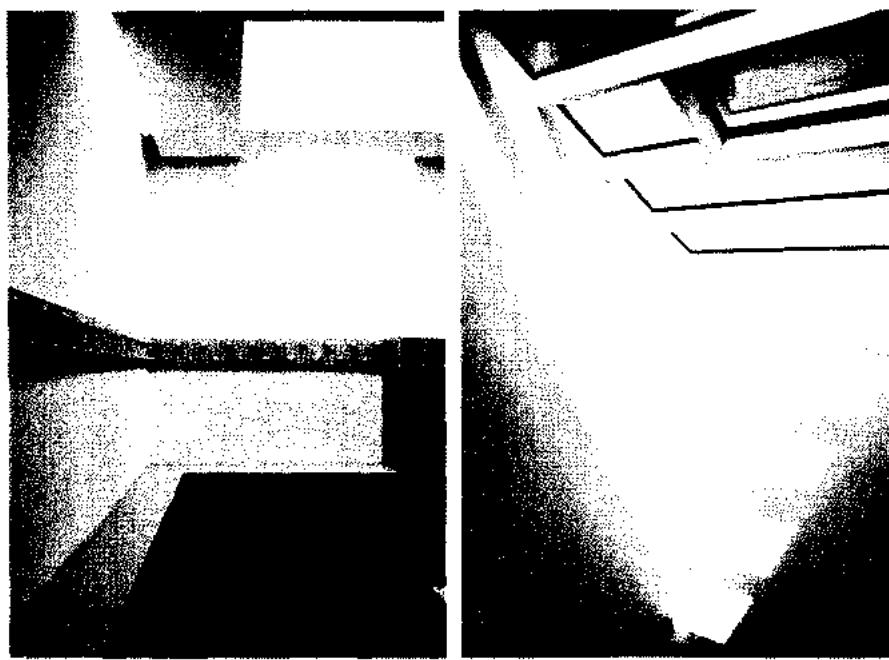


사진 © J. Rohner



사무소 Aumann Architekten http://www.aumann-architekten.com 건축사 Sven Aumann 건축주 Bezirksamt Spandau von Berlin 위치 Daberkowstraße 27 13593 Berlin B R I 2,300cbm B G F 630qm

건축사사무소 소개

모든 건축설계와 공사는 디자인, 건물, 공간의 고유한 성격과 조건, 필요한 기능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고 건축주와의 세심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고 자원과 환경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설계를 지향함.

작품 소개

베를린 바인마스터호른에 있는 초등학교(Grundschule am Weinmeisterhorn)는 VBB 교육 프로그램의 성규 학교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20명의 학생들을 위한 육아센터 및 식당을 학교 수치공간에 건축하였다. 건축주가 학교건물과 별개로 육아센터 및 식당을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은 학교 부지의 입구 쪽에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다. 기존의 학교 건물과 2층의 새 건물을 캠퍼스처럼 건물의 앞마당

을 형성하여 이곳을 통하여 학교 건물로 향하는 충당 접근로를 조성하였다.

새 건물은 두 층이 다른 기능으로 사용된다. 1층에는 서남 방향에 식당이 위치하고 서비스 공간은 북쪽 방향에 있다. 위층에는 육아센터가 위치하는데 두 층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내에는 2개의 큰 채광창이 주 계단 및 복도에 있어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육아센터 내에 작은 회의실들이 복도를 따라 위치해 있다. 학교 마당과 육아센터는 분리된 외부 계단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색과 건축자재로는 벽과 천장에는 밝고 빛나는 원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였고, 불빛이 시름들은 밝은 조용색을 사용하였다. 조명, 창문의 윤이 나는 목재, 문과 바닥에 사용된 편목은 건물의 특징을 말해 주는 다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Wineyard Steiermark

슈테르마르크 포도원 (Wineyard Steier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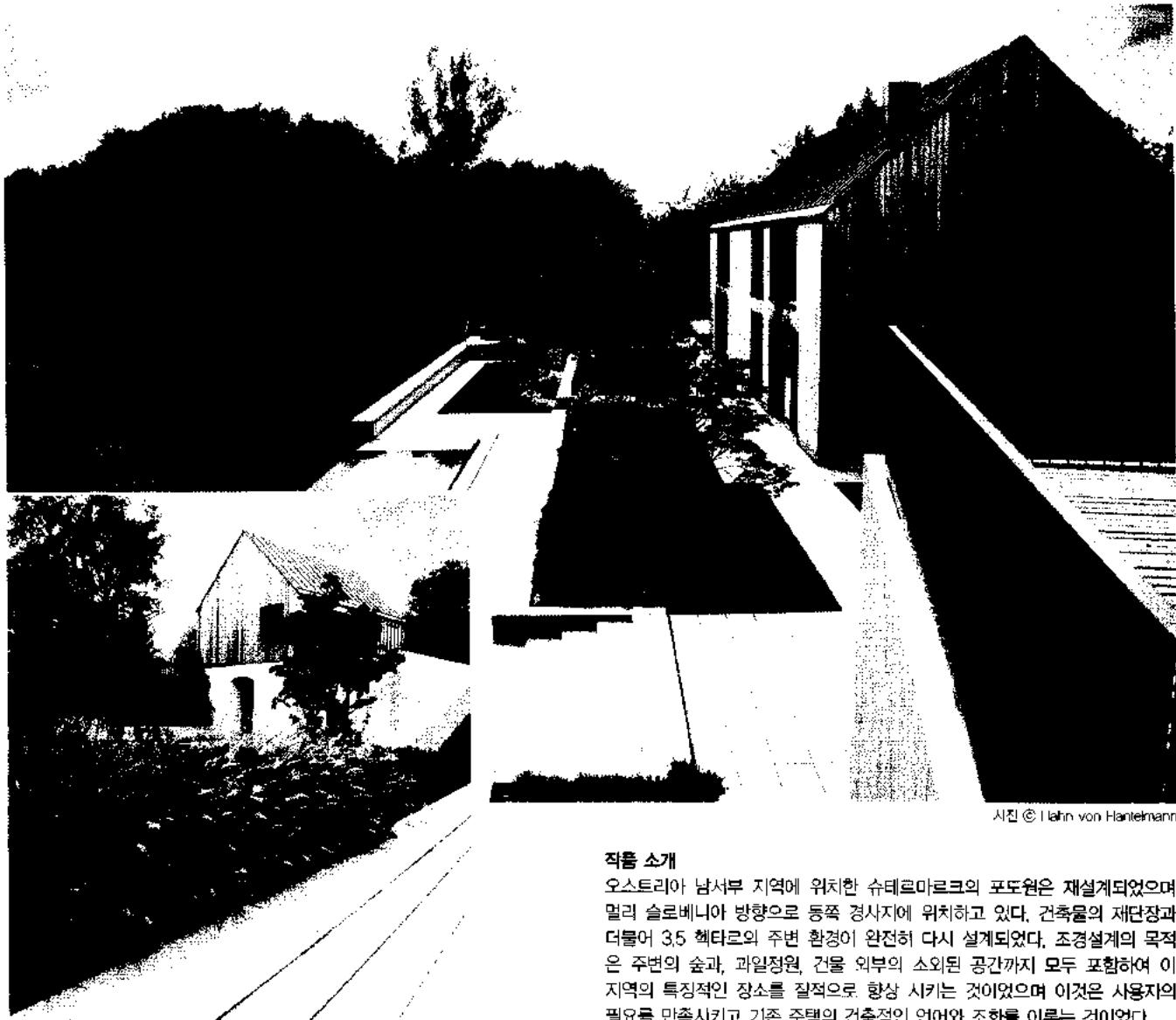


사진 © Hahn von Hantelmann

작품 소개

오스트리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슈테르마르크의 포도원은 재설계되었으며 멀리 슬로베니아 방향으로 동쪽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물의 재단장과 더불어 3.5 헥타르의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다시 설계되었다. 조경설계의 목적은 주변의 숲과, 과일정원, 건물 외부의 소외된 공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지역의 특징적인 장소를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기존 주택의 건축적인 언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대지는 주변의 숲과, 경작된 흔적이 있는 경사지, 주택 근처의 세심하게 조경된 정원테라스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내부 정원에 사용된 수목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동일한 종류로 사용하였다. 건물 외부에 사용된 건축자재는 목재와 철,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끝없는 모서리(Infinit Edge)'라고 이름 지어진 수영장은 주변 환경과 연관되어 디자인 되었는데 이것은 외부의 오푸로(Ofuro) 호수 분지를 표현한 것이다. 수영장은 모두 태양광판에 의해 데워지고 물은 그 지역의 지하수로 공급되며 빗물을 통해 관개가 이루어진다. 테라스로부터 수영장까지 내려오는 길에서 계곡으로 펼쳐진 전경을 볼 수 있으며 설계된 정원의 각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감상하는 동안 정원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게 된다.

건축사사무소 소개

2006년에 잉가 하인(Inga Hahn)과 니콜라우스 폰 한텔만(Nicolaus Von Hantelmann) 건축사가 설립한 신설 조경 건축사사무소이다. 우리의 주요 관심은 장소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심한 설계 과정으로 최초의 스케치부터 최종 완성 작품에까지 이를 반영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 및 사용자의 필요는 설계 개념의 핵심이다.

건축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며, 도시 공간과 풍경은 디자인과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발전된다. 모든 장소는 각각의 역사가 있고, 특정한 공간에 대한 상황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미래의 이용가치와 각각의 형태가 중심이며, 이것이 개념적인 접근방법에서 설계 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이미 존재하지만 숨겨진 자질을 발견함으로서 그 형태를 형성해간다.

복합적인 조경 설계 뿐 아니라 개인정원을 설계할 때에도 식물은 필수적인 설계 요소이다. 따라서 식물은 건축학적인 요소이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특성으로 발전된다.

사무소	Hahn Von Hantelmann http://www.hahnvonhantelmann.net
건축사	Inga Hahn, Nicolaus von Hantelmann
건축주	Prival
위치	Pernitsch 9 8451 Heimschuh (Österreich)
B R I	2,250cbm
B G F	530qm

Studierenden Service Center der TU Braunschweig

브라운슈바이크 기술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Technical University of Brunswick)



건축사사무소 소개

데니스 디(Denise Dih) 건축사와 디자이너인 올레 클링게만(Ole Klingemann)이 설립한 건축사사무소. 데니스 디는 Sauebruch Hutton Architects 사무소의 프로젝트 건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브라운슈바이크 기술대학교에서 조교로 강의함. 올레 클링게만은 BBDO InterOne 등의 회사에서 공동 프로젝트의 디자인 책임자로서 경험을 축적하였음. 건축설계와 더불어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디자인, 시각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의 종합적인 디자인 업무를 제공함.

작품 소개

오늘날의 대학은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상담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입학처, 학생상담실, 외국학생서비스센터, 취업정보실 등의 중요한 행정 사무실들을 한 곳에 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건축학과 조교에게 개방된 공모전을 통해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 사이에 위치한 행정사무동을 개조하는 설계가 요청되었고 배틀린의 DODK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설계 작품이 당선되었다.

기존의 건물은 에밀 헤르지히(Emil Herzog)가 1935년부터 1947년까지 북부독일의 표현주의 스타일로 설계한 것으로, 처음에는 브라운슈바이크 기술대학교의 문화연구부가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사범 단과대학인 벤하르-우스트 대학(Bernhard-Rusel-College)이 건물을 이전하였으며 독일사회주의의 양식의 국가 건축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상징적인 요소인, 햇불 든 사람, 새김문자 그리고 연철로 만들어진 섬자기상은 오늘날까지도 이 시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기존 구조물의 무게감을 가볍게 하고 기존의 건축구조에 공간의 역동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과제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닫이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새로 설계된 건축적인 공간이 어두운 현관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었다. 6미터 높이의 수직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창문은 내부의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조되었다.

사무소	DODK denise dih ole Klingemann http://www.dodk.net	B R I 2,250cbm
건축사	Denise Dih	B G F 530qm
건축주	Staatliches Baumanagement Braunschweig für die TU Braunschweig	
위치	Pockelsstraße 11 38106 Braunschweig	



Bibliothek im Bahnhof Luckenwalde

루肯바르데 기차역 도서관 (Library in Luckenwalde Railway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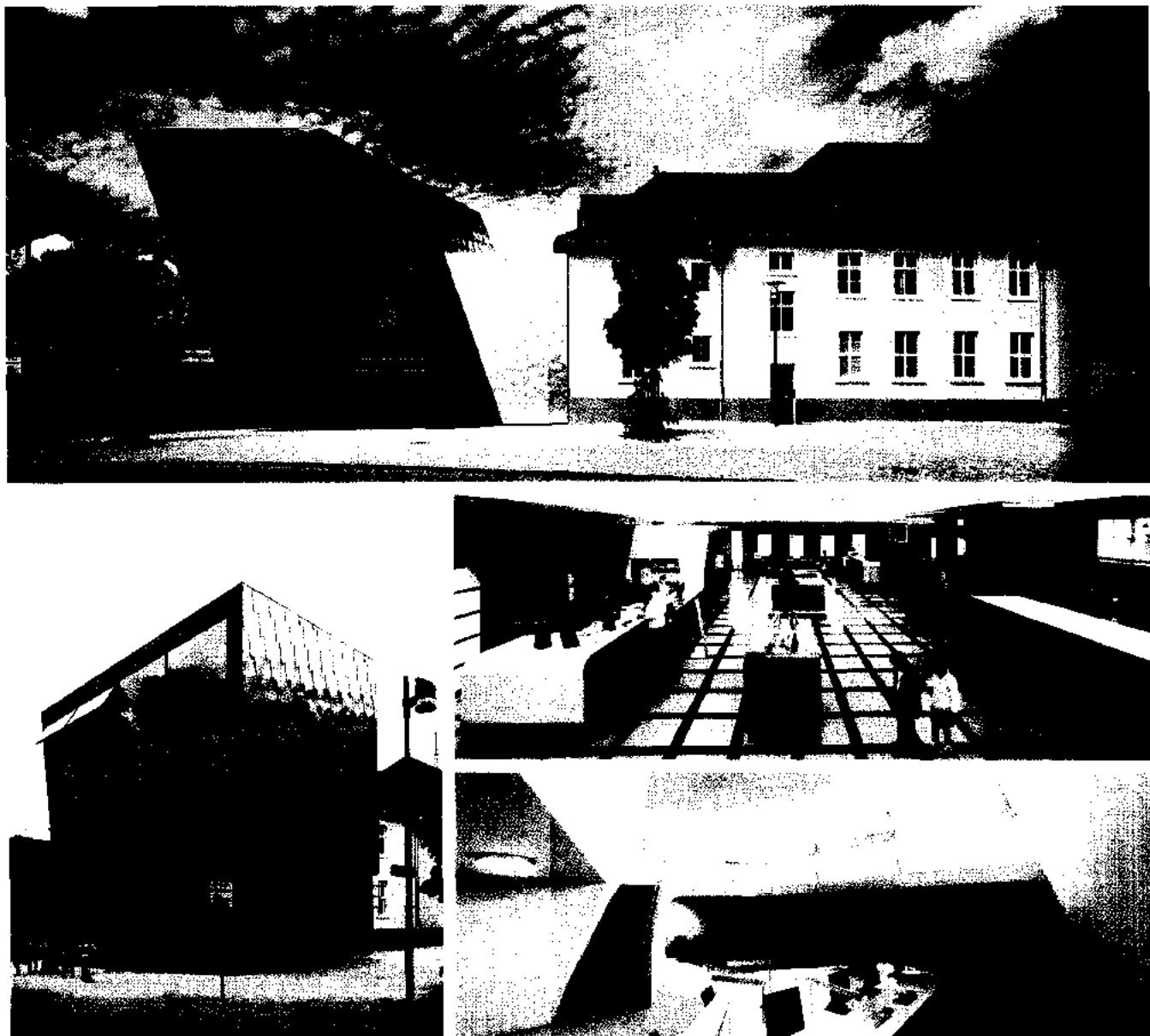


사진 © ff Architekten Feldhusen und Fleckenstein

건축사무소 소개

마티나 븐나(Martina Wronna), 카타리나 펠트후젠(Katharina Feldhusen), 랄프 프레켄슈타인(Ralf Fleckenstein) 건축사로 구성된 설계팀은 루肯바르데 기차역 도서관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2005년에 베를린에서 구성됨. 마티나 븐나는 Raumbewegung 건축사사무소 설계팀의 공동 설립자이며, 카타리나 펠트후젠과 랄프 프레켄슈타인 건축사는 1996년부터 함께 일하고 있으며 FF-Architekten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

작품 소개

루肯바르데의 철도 승객들을 위한 기차역 건물이 사용되지 않다가 공공도서관으로 개조되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건물 단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공공시설인 도서관은 철도역 주변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안정화 시키는 한편 이 지역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철도역을 개조하는 이 프로젝트가 도시계획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증하는 것이 과제였다.

기차역 건물을 직사각형의 별관을 새로 건축하는 방식은 건물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짝이는 황금색의 비늘모양의 표면으로 디자인된 정면은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도시계획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별관의 인테리어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배려하여 젊은 이용자들의 필요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기존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 색상을 가진 건축물에도 통일하게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사무소 ff Architekten Feldhusen und Fleckenstein

<http://www.ff-architekten.de>

건축사 Martina Wronna (raumbewegung)

Katharina Feldhusen, Ralf Fleckenstein (ff-Architekten)

건축주 Stadtstadt Luckenwalde

위치 Bahnhofsplatz 5 14943 Luckenwalde

B R I 9,180cbm

B G F 330qm

Fraunhofer-Institut für Digitale Medientechnologie

프라운호퍼 디지털 미디어 기술원 (Fraunhofer Institute of Digital Media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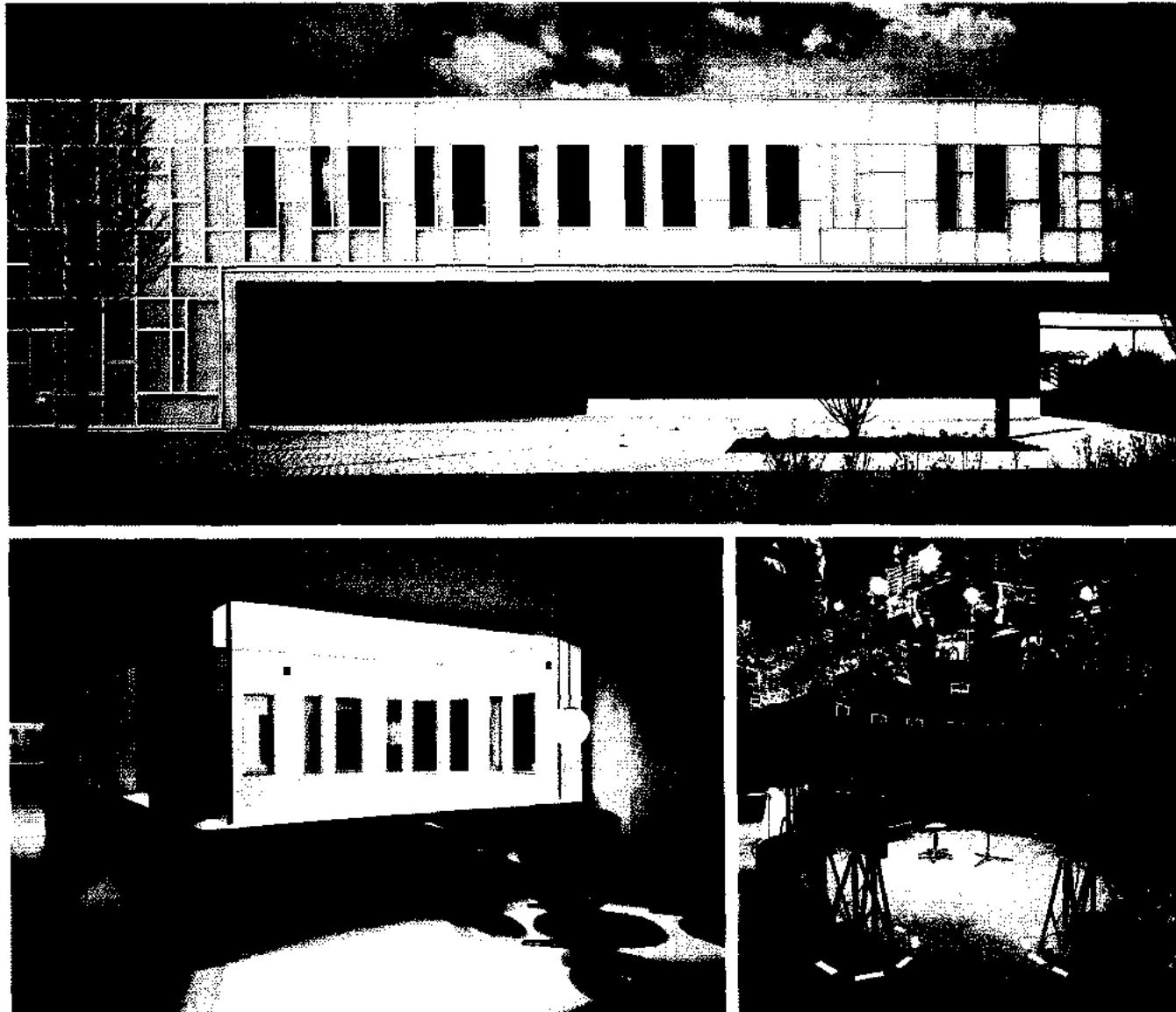


사진 © Werner Huthmacher

건축사사무소 소개

폴카 슈타브(Volker Staab) 건축사는 1991년에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부터 베를린과 쥬트가르트에서 방문 교수로서 강의함. 알프레드 뉴엔후이젠(Alfred Nieuwenhuizen) 건축사는 1996년부터 폴카 슈타브와 함께 작업하였고 2005년에 연구실 창설 구성원이었으며 2007년부다는 공동 경영자로 근무함. 경영진은 폴카 슈타브, 알프레드 뉴엔후이젠, 페어 피데르센(Per Pedersen), 한스 지글러(Haans Ziegler) 건축사임.

독일 국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의 독일대사관, 시드니 및 바르사비의 독일국제학교, 이집트의 베를린 공과대학 분교 연구/강의동 설계 등을 수행하여 해외 프로젝트에도 많은 경험을 축적함.

작품소개

새로운 연구소를 위한 대안을 찾고 건물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건물 디자인 외부를 표현하는 것이 설계의 목표였다. 오늘날의 미디어 건축 방식과 비슷하게 복잡한 내부 구조를 추상적인 외적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기능적인 필요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는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건축 자재를 사용하였다. 불투명한 정면은 견고한 구조물이 표면을 통해 태양 광선이 쏘여지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됨으로써 깊이와 가벼움을 동시에 나타내준다. 수평으로 배치된 2층의 독립 건물은 기능적인 사무실들을 일렬로 배열하고, 나머지 방들은 중앙 복도 양측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접근이 가능한 4개의 안뜰이 있는데, 안뜰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사무소 Staab Architekten GvAmbH

<http://www.staab-architekten.com>

건축사 Alfred Nieuwenhuizen, ETH Volker Staab

건축주 Fraunhofer-Gesellschaft, München

위 치 Ehrenbergstraße 31 98693 Ilmenau

B R I 22,530qm

B G F 5,945cbm

Wohn- und Geschäftshaus

'파페랄레 21호' 신축 주택 (New Residences 'Pappelallee 21a')



사진 © Werner Huthmacher

건축사사무소 소개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긴축사의 아이디어가 공사원성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의적인 설계 방식 및 공사기술을 지향함.

작품 소개

도시설계 현대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이지만 19세기 말에 건축된 다른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긴축물들의 폭과 높이의 분명한 차이는 역사적인 발전의 결과이며 이 길의 특징이기도 하다. 새로 건축된 건물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높이의 리듬을 맞추었다. 신축 주택은 정면이 열려진 창문과 석고로 된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다른 크기의 정사각형 창문은 이 건물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이다. 3mx3m의 루지아(한쪽 벽이 없는 회랑)는 베를린의 그륀더자이트(Gründerzeit) 시대의 주택 전통을 이어 받고 있으며 색칠되어 있고 약간 돌출한 창틀은 이 시기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이다. 건축물 정면 창문의 이러한 자유로운 구성에 의해 내부 인테리어가 복잡하게 설계 되었다.

건물이 동서향으로 건축되어 주택의 자연 조명을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12m 폭과 40m 길이의 대지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공사를 위한 구역은 전면의 1/3 부분이었다. 1층은 상기로 사용되고, 안정한 계단을 통해 인출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 두편에는 잔디밭이 있고 6개의 주차장이 있다. 300m²의 정원은 모든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개방된 장소이다.

건축 '파페랄레(Pappelallee)'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가옥의 품격과 새 건축물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각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3.15m의 높이이고 안정한 곳은 2.65m이다. 높이는 층마다 다르고 층의 높이가 다른 아파트의 상호 연결은 복잡한 공간적인 구조를 조성하는 반면에 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 공간이 넓어지고 최소한의 바닥 높이로 인해 부엌, 욕실과 침실 등의 공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래된 주택의 전형적인 특징인 긴 복도는 완전히 생략되었다.

각 아파트는 개성이 있으며 각 층에 있어 높이가 다른 공간은 건물 전체가 다른 층의 구조를 갖도록 했다. 모든 아파트는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각기 분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융통성으로 필요에 따라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모든 아파트는 16m²의 남향의 밭코니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옥선의 형태는 태양의 위치를 반영하여 아래층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무소	Busmann+Haberer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http://www.busmann-haberer.de
건축사	Stefan Tebroke
건축주	Bürgerstadt AG
위치	Pappelallee 21a 10437 Berlin
B R I	3,585qm
B G F	1,140cbm

Deutsche Botschaft Warschau

바르샤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German Embassy Wars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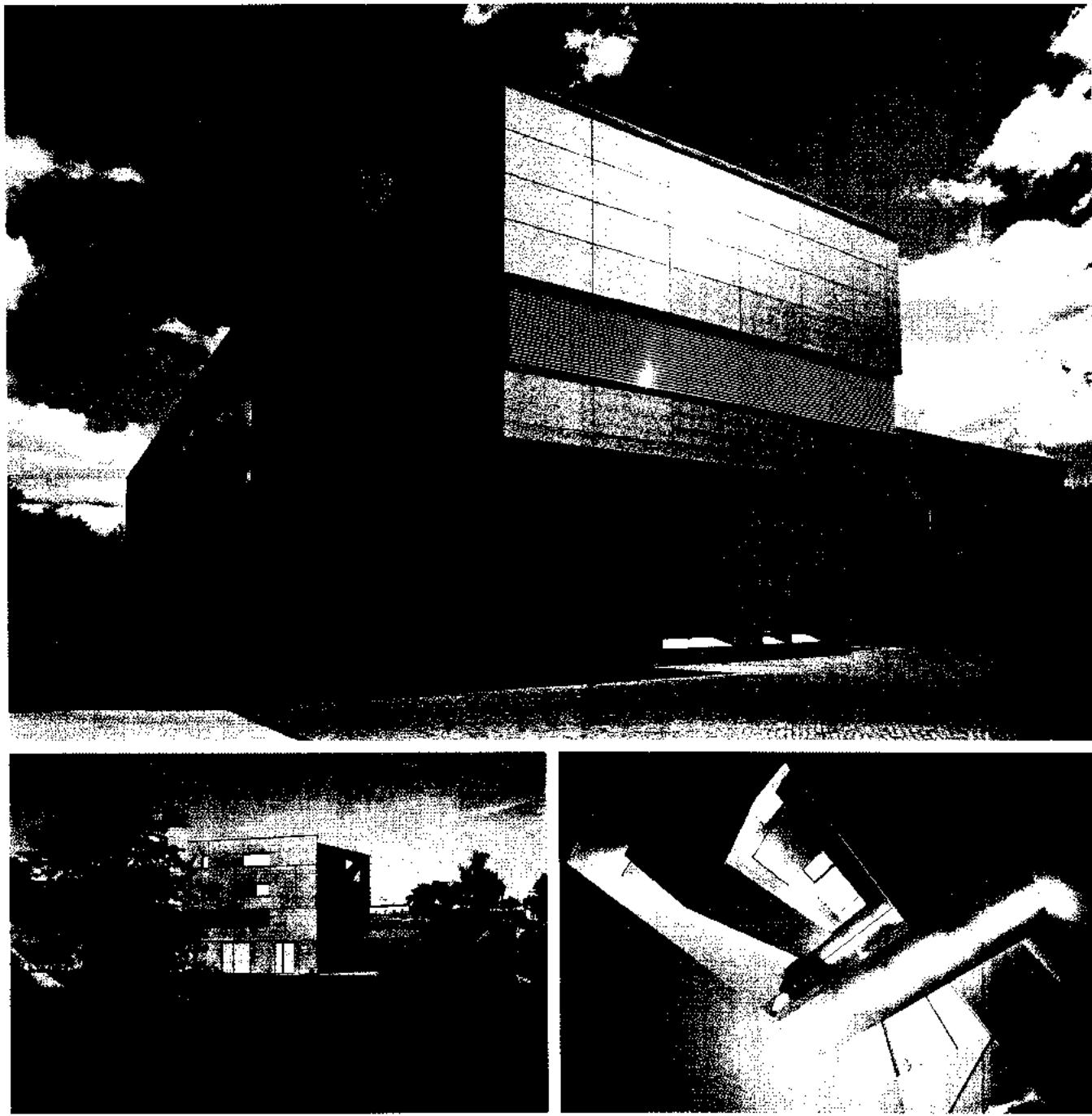


사진 © Holger Kleine Architects

작품 소개

바르샤바의 세 독일 대사관은 수상관저, 영사관 그리고 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축물의 세 가지 기능은 세 가지의 상이한 자료로 표현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해서 이동함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조각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건축물은 건축학적인 대화로 충성과 시유, 우정과 이동성, 절제와 시적 요소가 3차원 적인 공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과 정원은 건축학적인 신체로를 조성하고 목상정원에서는 바르샤바의 도시 풍경과 인공적인 대시관 정원을 볼 수 있다. 정원의 연못은 베를린의 예술가인 레이너 스플리트(Rainer Spilke)의 작품이다.

사무소 Holger Kleine Gesellschaft Von Architekten mbH
<http://www.holgerkleinearchitekten.de>

건축사 Holger Kleine

건축주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위치 Ulica Jazdów 12 00467 Warschau (폴란드)

B R I 38,760qm

B G F 10,200cbm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석윤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1945년 1월 제주 생

충의대학교 건축과 졸업(1967년)



선친과 삼증숙부인 김한섭선생의 권유로 건축 전공하다

금성건축을 칭립하신 고 김한섭 선생이 저에게 삼종 숙부 되십니다.

육촌동생이 건축하는 것을 보신 부친이 순수미술은 힘들지만 건축하면 먹고는 살겠다라고 제게 건축과 가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선친께서도 일찍이 그림 공부를 하셨는데, 말년에는 서예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림 공부하는 분위기가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김한섭 선생 뒤따라 충의대로 편입하다

전남대 건축과에 입학했더니 김한섭 선생이 흥악대로 가셨습니다. 지도 뒤따라 다음 학기에 흥악대로 편입(1964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전공 외길이 힘든 것은 맞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숙부가 계시니까 가르침도 받고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 ROTC하고 군대에 바로 갑습니다.(1967년 입대~1969년 6월 제대)

복무한지 일년지나 121무장공비 침투가 있었지요. 이 때문에 3개월 연장 복무했습니다. 제다, 후에 숙부 사무소(금성건축)에서 배웠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인턴실습으로 도제기간이 생략되다

다행인 것은 대학교 다니면서 사무소 경험을 남보다 앞서서 치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학교 4년간 방학 때마다 실습에서 얻은 현장 실무경험으로 군 생활에 적응도 빨랐습니다.

군대생활=건축현장 소장의 역할

당시 군대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이층막사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알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민간인 기능공들 2~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일은 사병들 힘으로 다 해냈지요. 자재관리도 하고 공사계획도 짜고, 시공 감독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군대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일을 중 기억나는 프로젝트는 제주교육대학, 종양직업훈련소(경기도 소사 소재), 힌두직업훈련원(부산 소재) 등입니다.

두 번째 직장은 제주에 있는 건설사에서

1972년, 제주도에 있는 세기건설이라는 건설회사로 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귀향한 셈입니다. 두 해 가까이 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설계수업의 과정으로 시공 경험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가 건축사사무소 보다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러나 건설회사에 계

속 있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건축설계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을 꼭하고 싶었습니다. 칼럼리스트인 선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주 산업정보대와 제주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다

사무소를 시작하던 1974년 제주도에 전문대학 건축과정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건축과 주임교수로 부임한 K선배에게 시간강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설계와 의장론을 가르쳤습니다. 1988년부터는 제주대학 산업디자인과로 옮겨서 실내설계를, 1994년에 건축과가 생기자 설계와 한국건축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35년에 책읽기가 소득으로 남았습니다. 청하는 곳 여기저기에 글 한 줄 씩 쓰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아부어낸 셈이지요.

건설회사에서 한일

건설사에서 현장소장역할을 했는데, 헬리콥터 격납고 공사(현재 철거됨)와 그리고 학교공사 하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힘들까요. 세벽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늦고, 인부관리하고, 공사 마무리 하고, 술자리하고… 군대생활하듯 지냈습니다.

1973년에 드디어 건축사사무소를 차리다

건설사 2년 정도 근무(1972~1974년)하고 1974년 3월에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무턱대고 사무실부터 치열하고 보자고 한 거지요. 건축사면허는 2급 면허를 진작에 가지고 있었는데, 1급 건축사면허 취득하자마자 건설회사에 사표내고 나온 겁니다. 당시 나이 29살이었으니 일찍 차린 셈이지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소형주택

사무소 개업 초기에는 주택 규모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19/4년에 개업한지 현재 35년이 지났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주택작업입니다.

조금 급진적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드디어 규모가 있는 일을 하게 되다

비교적 큰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처음 한 것이 5공시절 전국 각

건축은 땅위에 놓이는 것인데 결국 자연 즉, 풍토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순응하거나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요즘은 점점 더 퇴색되어가는 흐름이 못마땅합니다. 특히나 설계경기를 통해서 선정하는 공공건축들의 감각적인 성향들, 투시도에 현혹되는 심사위원님들… 논리를 잊어버린 건축현상이 재미가 없어요.

도에 도지사 공관들을 대통령 속소와 함께 짓는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것은 제가 밀게 되었습니다.

부산공관은 김중업 선생, 광주 것은 박춘명 선생이 담당하셨으니 제게는 큰일이었던 셈이지요. 순수주거시설로 500여 평(1984년)이고 공사비도 여유가 있었고, 현재 대통령 관련 국가기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규모 있는 작업으로는 탐라도서관(1987~1998년, 5,000m², 91년, 가협회 아천상 수상), 제주노 제주노공무원교육원(1989년, 7,000m²), 건축잡지에 발표했던 신제주 천주교회(1990년), 한국병원(8,000m²), 1990년도에 와서 애월체육관, YWCA회관, 호텔도 몇 개 했고 한라도서관(2005년, 4,000m²), 제주현대미술관(2006년, 1,700m², 건축가:협회상), 제주도월컴센터(2007년, 7,000m²) 등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택작업들이 제게는 건축수업이 된 셈이지요. 제주라는 지역성의 문제에 천착했던 계기도 되어 주었고…

지방에서 사무소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사실 시골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꾸려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만나기 힘들잖아요, 설계를 돈 주는 일로 생각안하고… 주택 설계는 일하는 재미로 하지요. 설계도면도 남보다 더 많이 그리주고 공사 잘 되도록 현장 돌봐주고…

소규모 주택설계를 열심히 해준 것 때문에 큰일을 하게 되다

그런데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된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반기고 되고 공공건축 설계 기회도 결국 그 덕을 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두개 정도 하고 골프클럽하우스, 병원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선교회관과 제수컨트리클럽하우스(2003년 발표)는 사장 집을 설계하면서 쌓인 신뢰로 수임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서 사무소 차릴 자신이 없었다

저는 대학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서울출신 친구들하고 겨를 만큼 실력도 안 되고 연이 있어 도와 줄 사람도 없었고요.

고향에 돌아와서 건축사사격을 맛으니 이제는 사무소 차려도 된다는 자신을 얻어 개업한 것입니다. 이때 지방에 만연해 있던 '건축 시시무소=건축허가방'이라는 인식에 저항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으로 건축가협회상을 받게 되다

서울 계신 분들이 상을 주시고 그런 것이 어찌면 시골에서 어렵게 일 한다는 것을 착하게 보고 그러지 않았느냐. 솔씨가 뛰어났다 기보다 지역 가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제주현대미술관은 설계경기 당선작으로 2009년 건축잡지 와이드 7월호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거기서도 말했지만 제주의 지역성 문제를 핵심 주제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 본도의 문화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풍토가 다르지요. 땅도 사람들 생각도 달라요. 건축은 땅과 관련된 작업 0-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주현대미술관 계획의 주제였지요. 요즘의 우리 건축의 시류로는 고루한 사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별한 지역성에 천착하다

서의 이런 생각은 라이트나 알토의 지역주의적인 성격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땅위에 놓이는 것인데 결국 자연 즉, 풍토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순응하거나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요즘은 점점 더 퇴색되어가는 흐름이 못마땅합니다.

특히나 설계경기를 통해서 선정하는 공공건축들의 감각적인 성향들, 투시도에 현혹되는 심사위원님들… 논리를 잊어버린 건축현상이 재미가 없어요.

저야 제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제주의 국지기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지요. 비비람이 센 지역은 틀림없지만 바람만 가려주면 그렇게 환경이 좋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기온이 9~10도이고 바람만 없으면 봄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알토의 건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저희 사무소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전에는 열 명 정도인 때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5명입니다. 전원이 제주대학 출신들인데 제가 가르치고 데려다가 일시키는 셈이지요. 초기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고 현재는 3년 된 직원이 제일 오래된 직원이라 한번 물갈이 된 셈입니다.

사무소에서의 제일 힘든 점은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시공이나 인테리어를 할 생각은 없었다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건축시공하고 인테리어공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기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내가 만난 김석윤 건축사…

제주에서 살고 있는 건축사 김석윤을 만날 기회는 건축단체의 이사회에서 떠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잠시의 스침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오랜 친구인 것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법이어서 내가 짐작하는 김석윤 건축사는 그저 그럴 수 가 적은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는 일찍 제주에 가서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 그의 바람대로 되었고, 신문에 글 쓰고, 주제론 논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들어오는 일들에 성실히 하다보니 큰일도 하게 되고, 드디어 건축계가 인정하여 건축상도 타게 되었다. 그 정도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글 중에 피력한 말처럼 건축이 재미있고 보람 있는데 돈까지 벌려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신선하게 들린다.

사를 같이 하면 어때냐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따면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여럿이 인테리어 분야에 큰 활동을 했었지요. 제주에도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걸쳐서 관광시설 관련 인테리어 일이 많았습니다. 장사 수완을 타고나지 못해서 그런지 그쪽 일이 당기지가 않더군요.

화려하지 않고 작더라도 실제에만 매진하려는 그런 데도는 속부터 훌륭받으면서 얻어진 듯 합니다. 속부도 건축사사무소 운영은 잘 못하신 편인데, 저도 뒤를 따르는 셈이 되었습니다.

사무소는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넘겨주는 문제는… 남길 것 없어요. 법인사업체도 아니고 개인사무소 체제인데 그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기를 쓰고 합니다. U-Pen에서 MA마치고 현재 뉴욕에서 건축사사무소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품위주의 사무소는 아니고 관공서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건축설계는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데 돈까지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건축이 좋아서 건축을 하노라 하잖아요? 건축 전공하는 학생 중에는 무언지 모르고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지만 실상 건축은 재미있고 보람이 넘는 직업이시요. 그러나 돈 되는 직업은 아니지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공평하니까.

한때 재미보고 돈도 빨년 때도 있었지요. 잠시 우리세대는 그것을 누린 셈이지요. 그것도 영터리 실력으로… 이제 끝난 일이고 지금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선대의 가르침을 따라서 담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선친께서 건축하면 먹고는 살겠다고 계계 추천해주신 것인데 건축전공해서 배불리 먹고살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찌 터득했습니다.

저는 제주 섬 안에서는 비교적 잘사는 집 지식인데도 서울에 와서 대학 다닐 때까지 보리밥 먹고 자리났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잘살아도 뜻사는 이도 보리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단념 가난에 익숙합니다. 수분(守分), 너 본분을 지키라는 선대의 가르침을 따라 거친 밥 먹고 욕심 출이고 삽니다.

좋은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계속 글도 쓰고…

제주대학 박물관 당선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작은 작업들입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해마다 지역에서 설계경기회 열게 정도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제주대학교 박물관(4,800m²)에 당선되어 얼마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건축계가 아주 재미없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형사무소는 점점 힘이 듭니다. 일이 줄어가는 상황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리에 사무소들은 작은 일들 설계해서 연명하다가 가끔 설계 경기해서 천우신조로 기회 잡으면 잠시 여유부리고 하는 거지요.

건축 쟁이 의식이 소멸되어가는 현재의 흐름

점점 쟁이 의식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가의식, 쟁이 의식이 없어져가는 현재의 건축계의 그 흐름이 걱정이지요.

오늘날의 건축계의 현상은 건축단체 임원과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책임져야 된다

건축계의 권리자인 협회 임원과 측근들, 그리고 큰 자본을 가진 대형사무소의 업주들이 최근의 건축계의 현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매머드사무소들이 오늘 날의 이와 같은 현상에 책임지지 않으면 한국건축계는 설명이라 봅니다.

제주에도 육지의 나쁜 영향이 오다

제주도에서도 육지의 건축계의 현상을 죽일을 떠기 위해 수단방법으로 가리지 않는 나쁜 경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주에서 누렸던 행복이 이제 의기입니다. 이전에 그런 현상이 제주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짓을 때 저를 보고 뒷돈 줄줄 모르는 놈, 술 안 사는 놈, 오만한 놈으로 불렸지만 오히려 저는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대평시절이었지요.

앞으로는 맑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듯해요.

건축계에 희망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건축계가 희망이 살아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데 후배건축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계가 되고 건축단체통합 등등 포함해서 희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뉴욕 코리아센터

New York Korea Center

당선작 / 한종률 청와제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미합중국 뉴욕시 맨하탄 3번가 122-126
주요용도	공연장, 전시시설, 도서실, 강의실, 사무실, 각종 문화공간
대지면적	596m ²
건축면적	589m ²
연 면 적	3,108m ²
건 폐 율	99%
용 적 율	375%
규 모	지하 2층, 지상 8층
발 주 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설계담당	설계총괄_손명기, 권순우(삼우뉴욕) NYC_이건섭, Harry H. Park, Laura Gonzalez Fierro, Matthew Pauly Seoul_박철홍, 오정민, 김은주, 이옥정, 이주형, 최학영, 박규전

뉴욕 코리아센터 대지는 뉴욕시 한인타운의 중심인 Korea Way에서 도보로 10여 분 정도 걸리는 Park Avenue와 Lexington Avenue 사이 32번가에 위치한다. 뉴욕시의 도시특성을 규정짓는 Street Grid 격자패턴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담은 건축디자인을 어려게 구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북향에 면한 이 건물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빛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큰 선결 과제로 삼았다.

당선안은 뉴욕의 도시건축기준에 맞춘 단정한 유리박스 외피 속에 역동적인 세 개의 오브제가 들어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오브제들은 청자의 온온한 비색과 토기의 투박하지만 소박한 질감, 한국 전통건축재료인 목재의 재질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꾸미지 않은 소박한 미의식'을 형상화하는 이 아이콘들은 이미 친환경적인 접근의 터전이 한국인의 의식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음을 외국

인들에게 알리는 커뮤니케이션과 홍보의 장이 된다.

북향인 대지에 빛을 도입하는데 있어 대지남측에 있는 기존 12층 높이의 주거건물이 장애로 작용하였으나, Rear Yard Setback 규정 적용과 다양한 일조분석을 통하여 남측에서 빛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였고, 남측입면을 보다 개방적으로 처리하여 그 빛이 내부공간의 오픈닝을 통하여 건물의 북쪽 아트리움 공간까지 도입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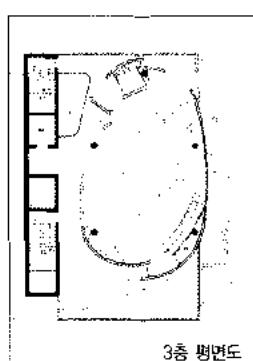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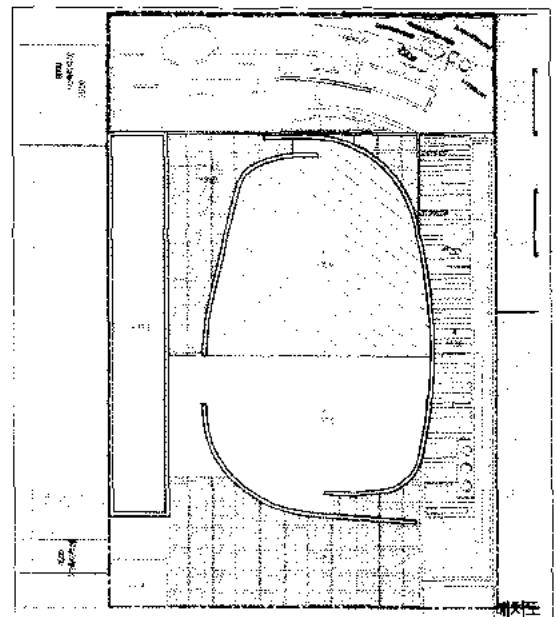
한국역사의 은근함과 현대적 첨단성의 병치를 표현하는 입면요소들은 다층적인 레이어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주변 컨테스트와 연계된 단정한 형태의 커튼월은 한국의 전통문살과 조각보 문양을 형상화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32번가 한극타운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들에게 이곳이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문화사절로 기능하는 곳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커튼월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세 개의 오브제와 그 사이의 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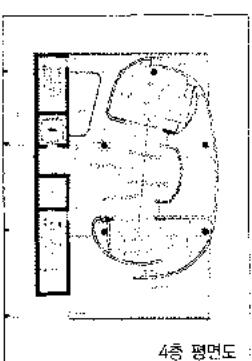


하게 둘린 아트리움은 '비움'이라는 한국건축의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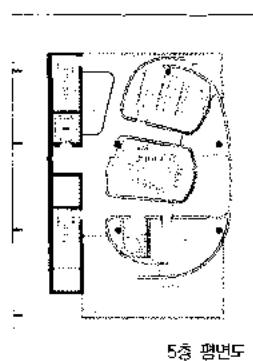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다수인원의 빈번한 접근이 예상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한류체험관 등의 Public Zone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전시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을 원활하게 하였다. 도서관과 어학실습실, 요리강습실 등의 Semi-Public Zone은 3~5층에 배치하고 문화원과 관광공사가 사용할 사무공간, 창작 스튜디오 등의 Private Zone은 최상부에 배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로 프라이버시와 업무의 복잡성을 높였다. 머지않아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얼이 담긴 세 거의 오브제가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뉴욕 코리아센터가 한국의 전통과 예술, 독특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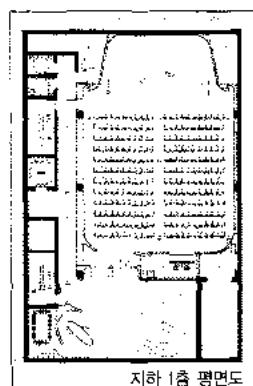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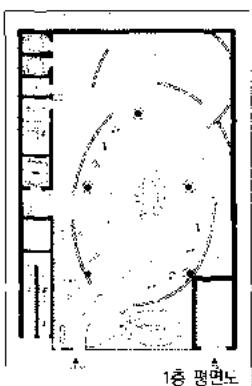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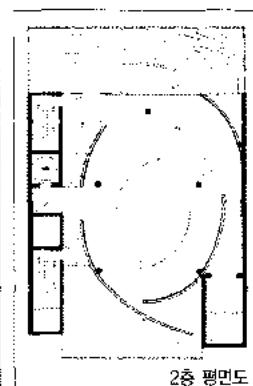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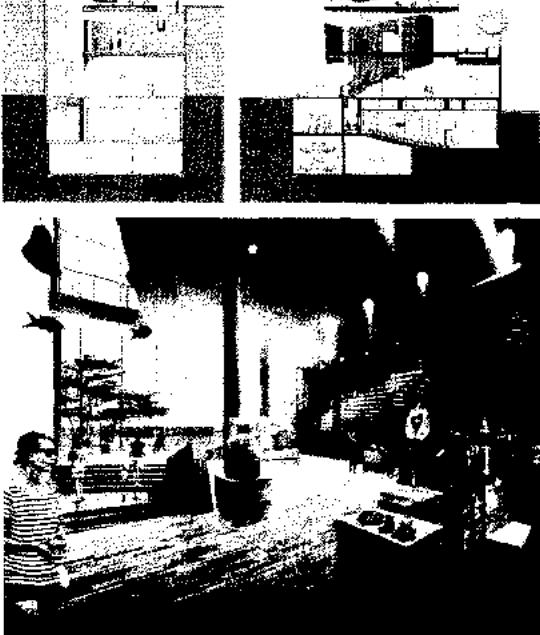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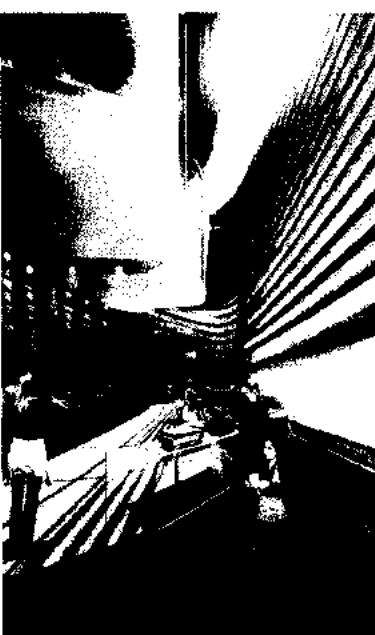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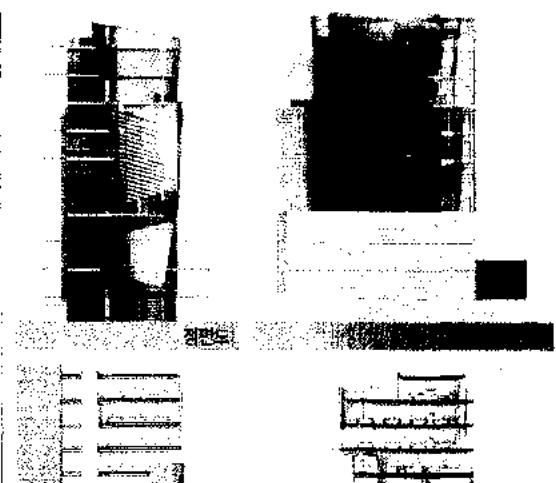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뉴욕 코리아센터

New York Korea Center

우수작 / 정명균 설계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미합중국 뉴욕시 맨하탄 3번가 122-126

주요용도 문화/집회시설

시 설 공연장, 한류체험관, 전시실

대지면적 596.00m²

건축면적 585.42m²

연 면 적 3,099.36m²

건 폐율 98.22%

용 적률 372.67%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해외협력사 Perkins Eastman(USA)

설계담당 조남승(설계총괄), 신재혁, 오흥민, 이재기,

천윤실, 이종진, 이해진, 차경훈, 윤호정,

장세창, 최혜임, 김성표(건축)/유승종,

박수교(조경)/이행숙, 이강섭(CG)

프로젝트 배경

미국 동부지역에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홍보와 문화예술, 관광, 문화콘텐츠산업 등과 관련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뉴욕 관광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대내외 인지도 향상 도모.

진행 시 주안점 및 고려사항_디자인 결정시 미국 현지 건축관련법규 및 대지 주변 가로경 관과의 조화와 한국의 이미지와 현대성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디자인 컨셉

한국전통 건축의 '비움과 채움'의 마당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

비움 (Void) | 마당

유연성 (Flexibility) | 반공간

채움 (Activity) | 기능

한국건축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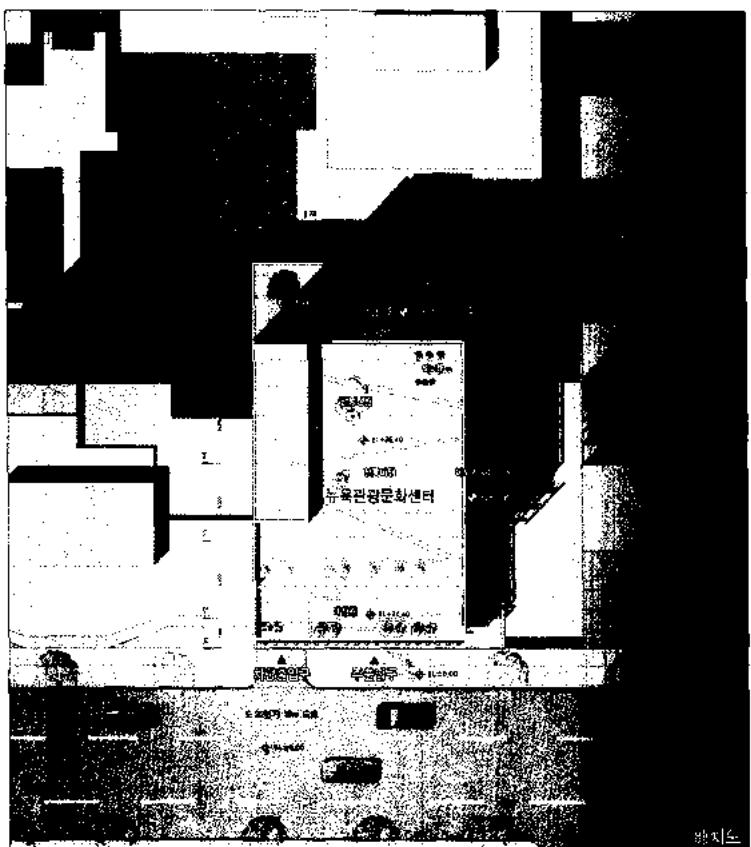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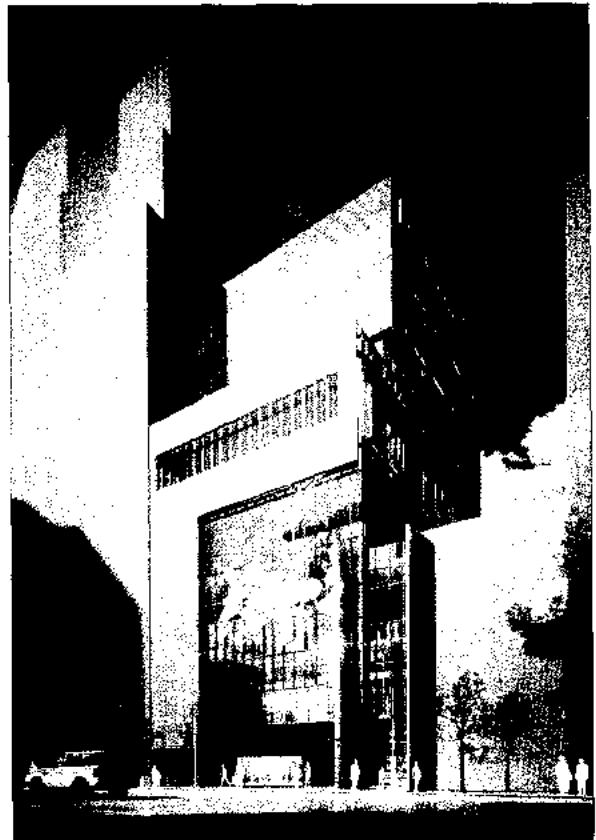
-비움을 통한 공간의 유연성 확보

-마당의 공간개념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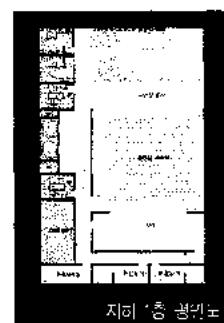
전통적인 정보전달 매체의 현대적 재해석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한 IT강국의 상징성 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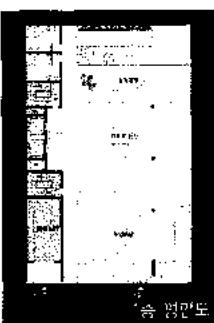




한국민족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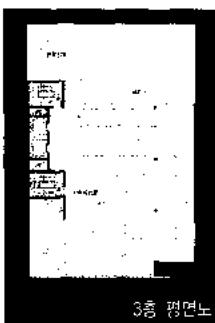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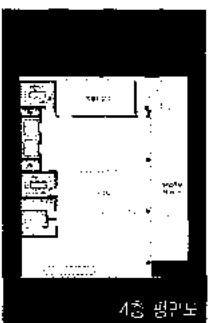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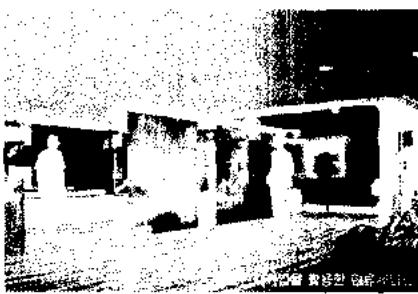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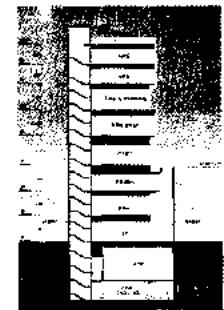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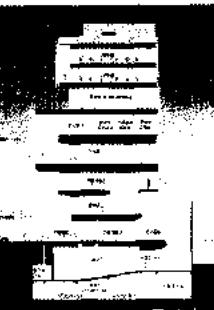
한국성을 담은 전면도



한국성을 담은 전면도



횡단면도



증진면도



자연과 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광면도



한국문화의 구수성을 알리는 면도

뉴욕 코리아센터

New York Korea Center

가 작 / 조주환 경희
(주.시아플랜 건축사무소)

대지위치 미합중국 뉴욕시 맨하튼 3번가 122-126
주요용도 공연장, 전시시설, 도서실, 강의실, 사무실,
각종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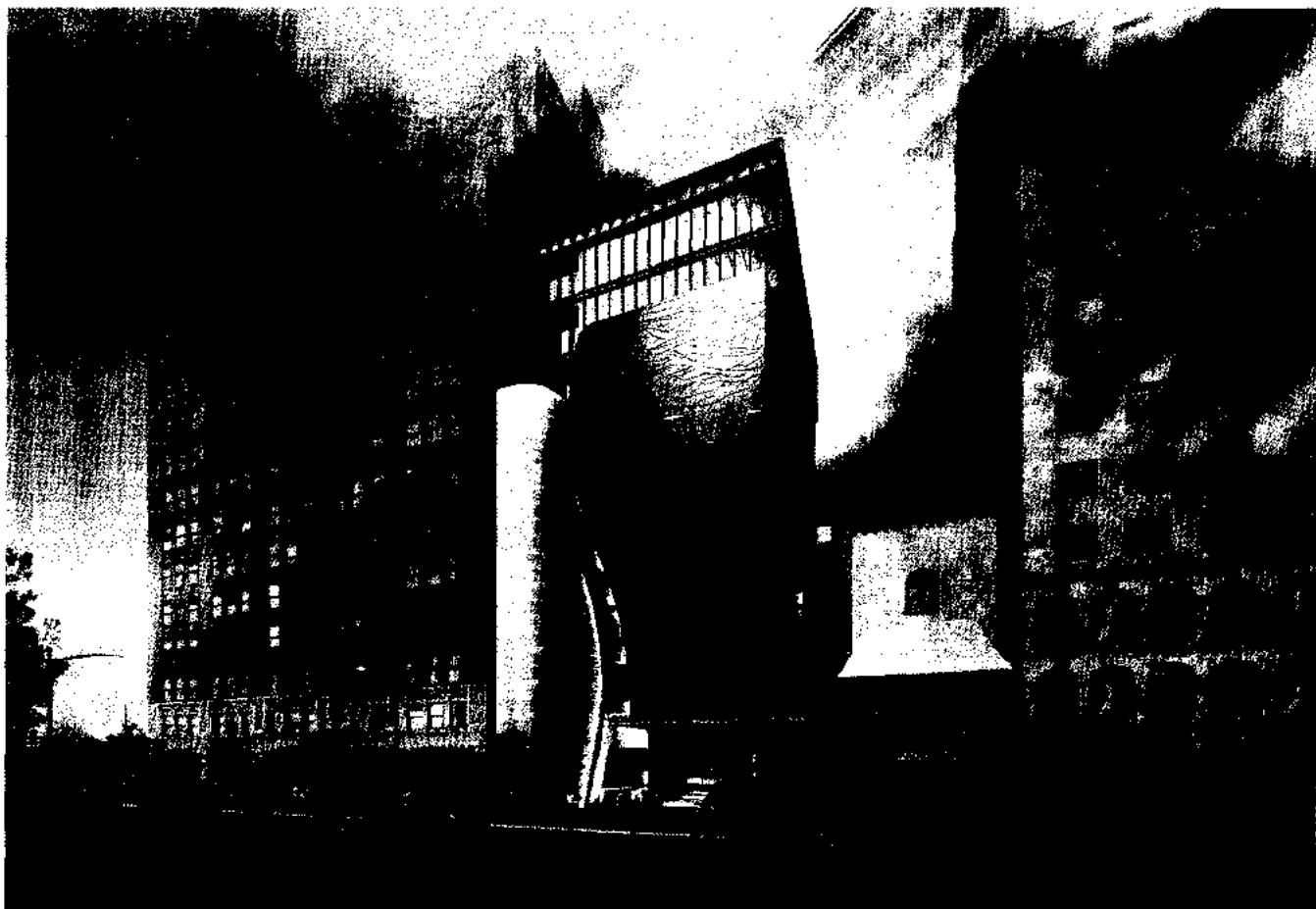
대지면적 596m²
건축면적 446.45m²
연 면 적 3,102.52m²
건 폐율 74.91%
용적률 526.49%
규 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설계담당 최창학, 최봉섭, 황진석, 조경준, 문동현,
이준식, 홍준희(설계1본부)

세계문화의 중심인 맨하튼에 자리잡을 뉴욕 관광문화센터는 우리 문화의 독창적인 전통 유산과 미래 비전 그리고, 맨하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함께 아우르는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맨하튼의 지역적 특성이 어우러지는 신개념 문화커뮤니티로서 관광문화센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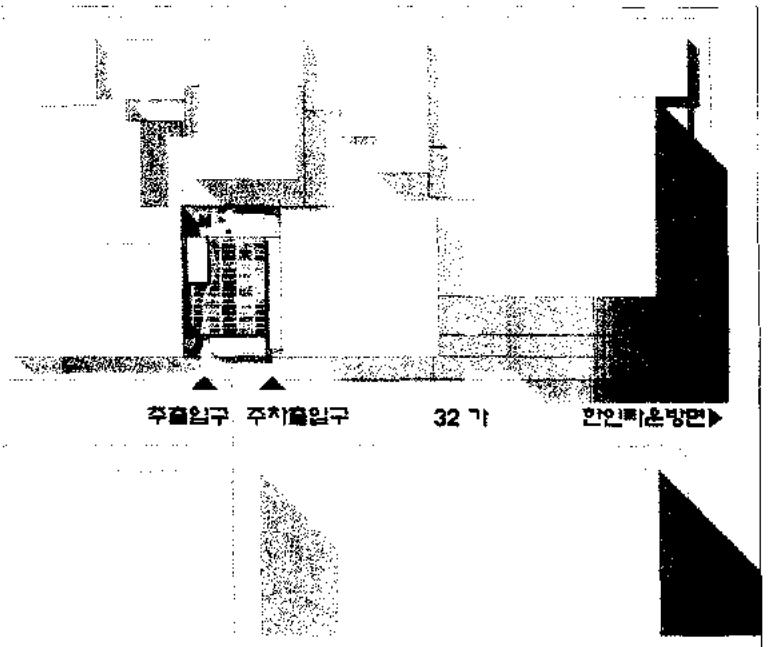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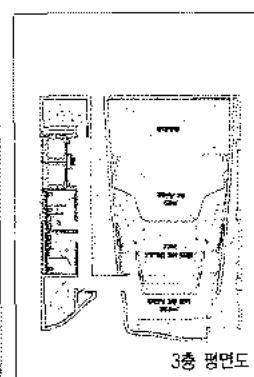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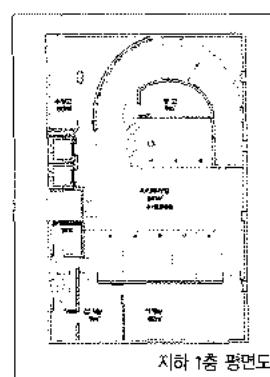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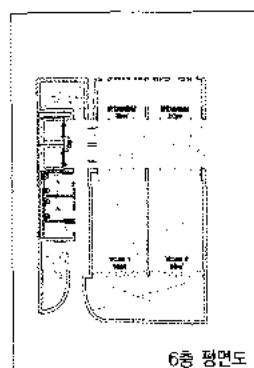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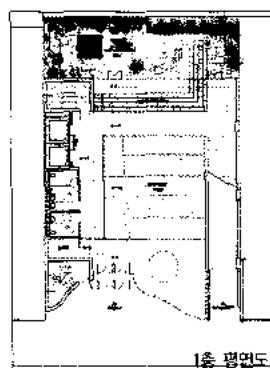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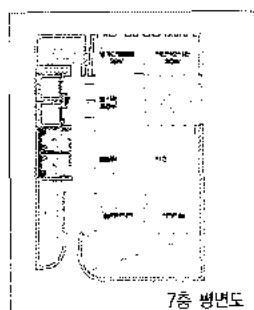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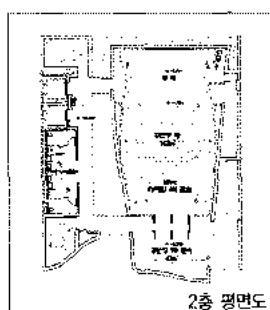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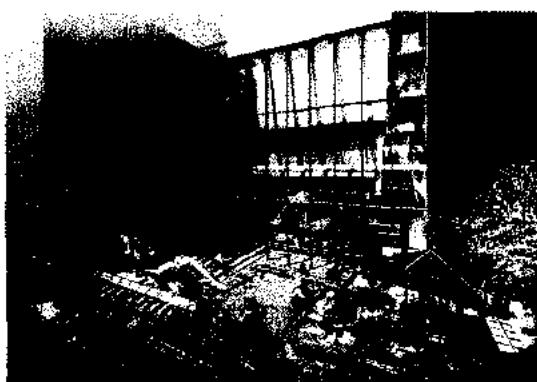
한국성의 표현~섬세한 곡면과 공간
우리의 대표적 문화 예술품인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의 형태에 담긴 세련되고 아름다운 곡면은 문화원의 형태와 공간을 구현하는 모티브로 승화되었다. 뉴욕 문화를 대변하는 브로드웨이가 맨하튼의 격자형 도시구조를 역동적인 곡선으로 가로지르며 지루한 격자배턴 속에 다양한 경험을 창출해 내듯 청자와 백자의 세련된 곡면에서 유추된 형태와 공간은 고층건물로 둘러 쌓인 계획부지를 역동적으로 관통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을 구현한다. 동시에 북향 계획부지 내부로 자연채광유입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된다.

지역성의 이해와 반영~개방된 도심 속의 쉼터 맨하튼에서의 문화교류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길거리, 계단, 공원 등 도심의 외부공간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뉴욕 내 문화센터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서가 된다. 우리내 전통마을 앞 정자나무가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휴식과 교류의 열린 장소를 제공하듯, 뉴욕 문화센터 역시 모두에게 열려있는 도심 속의 쉼터이자 교류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내부로 유입된 자연스런 보도의 흐름, 계단형 한류체험관의 구성, 전면 도로에서부터 보여지는 아름다운 전통후원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독창적 우리 문화와 보다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 아이콘 창출 · 기술, 감성, 자연
좁은 대지 내에 수용된 다양한 기능공간들은 수직적으로 상호관입 되며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연결을 만들어 낸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기획과 교육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능동



적인 참여와 자연스러운 경험을 유도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첨단 기술력 바탕으로 방문객의 오감을 통한 문화의 체험과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면 외벽에 도입된 친환경 디자인 스킨은 주변과 상호교감하는 표피가 된다. 또한, 문화원의 모든 부분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되었다. 이로서 뉴욕 문화센터는 첨단기술과 인간의 감성, 그리고 자연을 연결해 주는 새로운 문화적 이정표로서 맨하튼 내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주출입구·주차장입구

32 가

한인회관방면▶

122-126 East 32nd Street
New York, NY 10016



설계경기 | Competition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

Goyang Youth Sports and Cultural Center

당선작 / 강남종 경복원

(주)다율도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6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청소년체육문화시설
대지면적	1,037m ²
건축면적	621.87m ²
연 면 적	4,328.78m ²
건 폐 율	59.97%
용 적 률	193.45%
규 모	지하 3층, 지상 4층
발 주 처	고양시 교육체육과
설계담당	김종선, 이정국, 이덕재, 이장혁, 방춘일, 김두이, 하영인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한 시설로, 북쪽으로 백마공원과 면한 1,037m²의 평평한 대지에 게이트볼장, 북카페, 다목적 공연장, 체육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을 계획하였다.

- 농선의 집중도가 큰 다목적 공연장을 별도 동선으로 지상 2층에 배치.
- 접근이 용이한 지상 1층에 북카페를 배치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 지상 1층 계획레벨을 조정(+1.2m)하여 외부공간을 넓게 조성하고 지하 2층 주차장까지의 원활한 자주식 램프 구성.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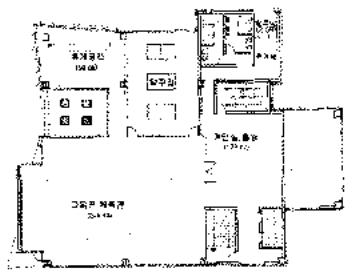
- 협소한 대지에 무주공간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게이트볼장, 다목적 공연장 및 다목적 체육관 시설 등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수용
- 지하 주차장 및 외부 공간 형성을 위한 계획 레벨 설정
- 백마공원이라는 자연 환경의 적극적인 유입

평면 및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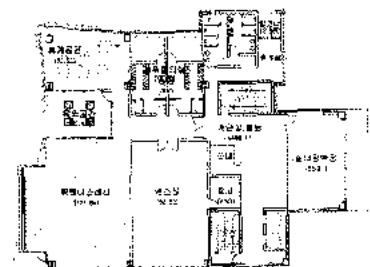
형태 및 입면 계획

- 대공간의 주요 기능 실들을 대지 남쪽으로 배치(Main)
- 공용 시설을 공원과 면한 북쪽으로 배치하여 개방감 형성(Sub)
- 2층 별도계단으로부터 옥상 정원 캐노피로 연결된 프레임(흐름)
- 3, 4층 시설 이용을 위한 휴게 공간(비움)
- 불규칙한 패턴의 창호 계획을 통한 입면 구성(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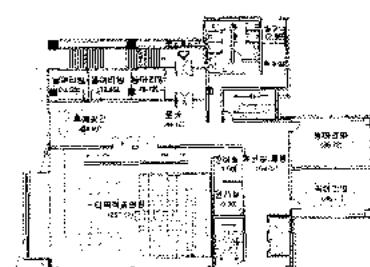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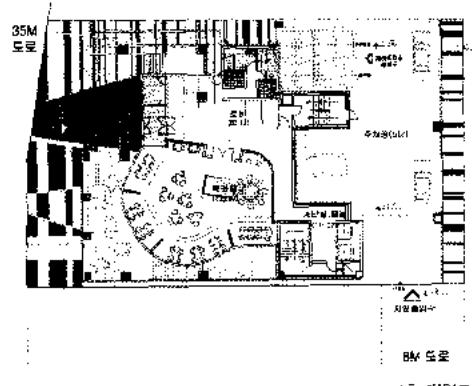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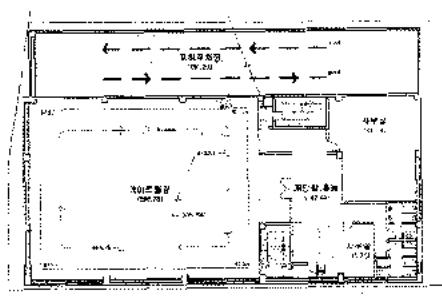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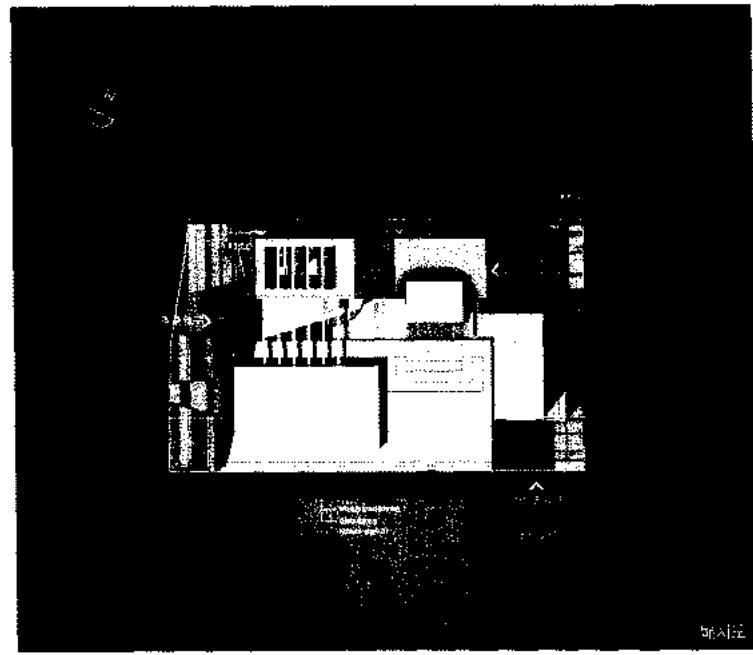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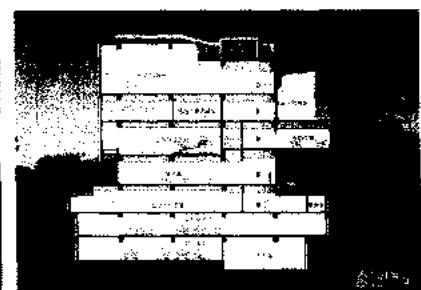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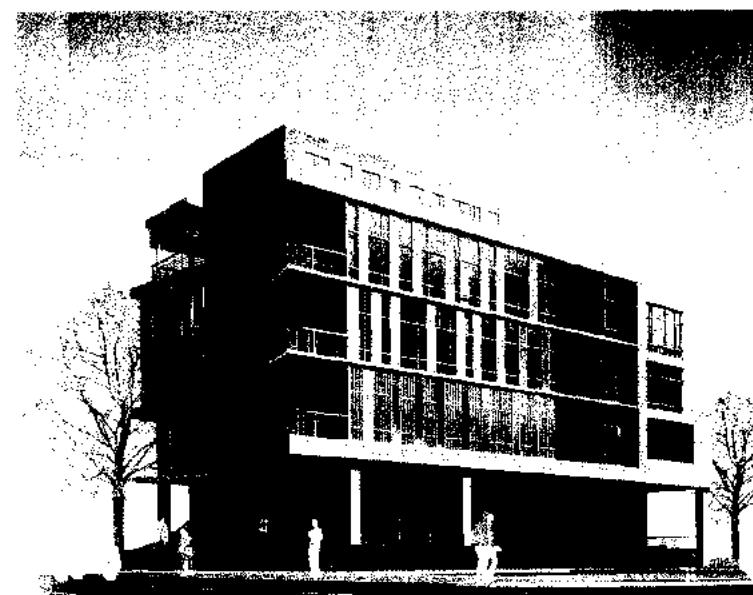
성인도

장년·여성



청소년도

유모·어린이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

Goyang Youth Sports and Cultural Center

우수작 / 김봉희 경희대 · 유윤옥 경희대
(주) 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세호 경희대 (주)나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미등동 726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청소년체육문화시설

대지면적 1,037.00m²

건축면적 612.53m²

연면적 4,259.36m²

건폐율 59.07%

용적률 229.4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설계담당 허강훈, 황지영, 이창범, 정옥선,
이동준, 김민기, 이현아

배치계획 백마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지는 건물이 지어짐으로 공원의 단절이 아니라 공원을 수용하여 공원과 연결되는 청소년체육문화공간을 추구한다. 공원에서의 직접적인 동선을 확보하며 지상의 조경을 공원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차량의 동선을 완전 분리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배치를 하였으며, 공원의 자연조망권을 적극 수용한 코아 계획으로 자연친화적 건물을 추구하였다.

평면계획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층별 명확한 조닝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지하 2층을 주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지상에 설치되는 일부 주차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였다. 청소년체육문화 중심의 건물에서 사용연령이 다른 게이트 볼장은 지하 1층에 설치하였다. 지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선큰을 설치하여 환경과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곳의 회장실은 외부인들이 사용가능하여 24시간 공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더하게 된다.

지상 1층은 다양한 출입동선을 확보 지하층부터 2층까지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1층의 넓은 로비를 이용한 다목적 공연장은 충분한 대기공간을 제공한다.

지상 2층은 문화센터중심으로 북카페, 동아리실이 배치되었으며 이곳의 북카페는 공원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며 테라스를 이용하여 공원과 함께하는 북카페로 조성된다. 음악 연습실은 건물의 안쪽으로 배치하여 주변 아파트단지로의 소음유출을 최소화 한다.

지상 3층부터는 스포츠센터로서 리커룸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중정은 경직된 내부공간에 자연공간과 함께 환기와 채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지상 4층에 설치되는 스쿼시장과 인공암벽장의 층고가 다른 이용시설보다 높아서 Wind Road라는 층이 더 설치되었다. Wind Road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기와 채광을 내부로 적극유입하며 인공암벽장은 높이 12m, 스쿼시는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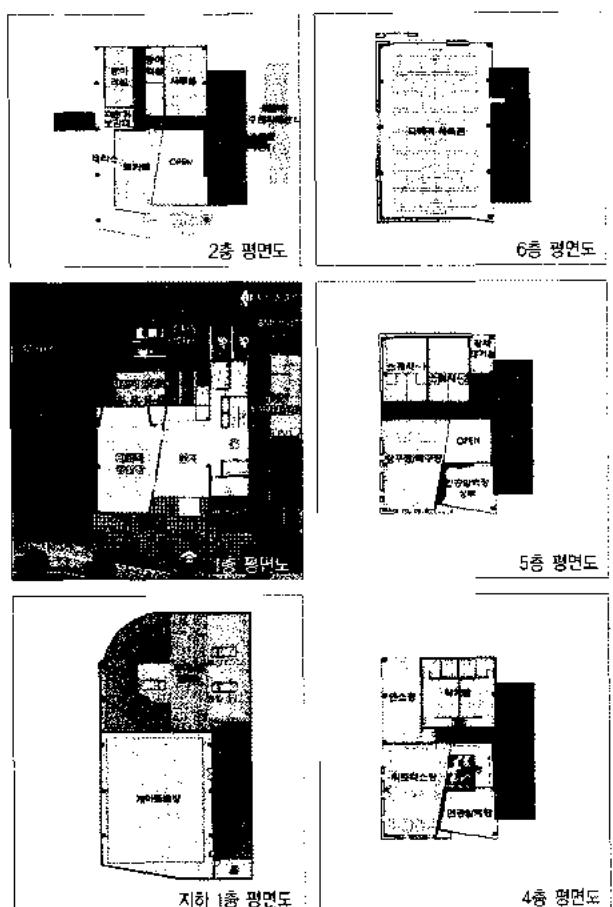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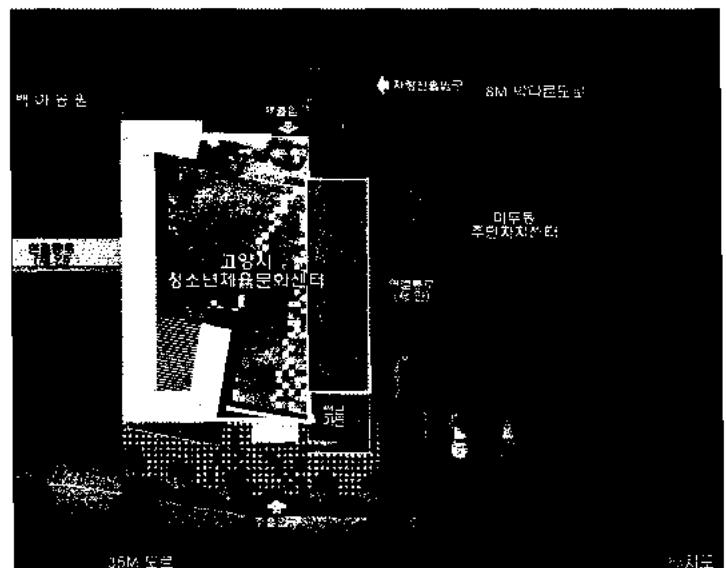


지상 5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농구, 풋살,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가 가능한 규격으로 본 청소년체육문화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부이며 대표 공간이 된다. 협소한 체육시설의 공간방지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다목적체육관의 크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조적,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상층에 설치하였다.

입면계획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즐거움과 재미, 청량감과 순수함, 자유로움과 깨끗한 빛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내부 스포츠시설 중 다목적체육센터, 스쿼시장, 인공암벽, 거이트
볼장 등을 기본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메스를 이용한 과감
한 디자인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외장디자인에서
퍼즐 큐빅이나 테트리스 게임과 같은 재미의 요소와 청소년들의
성장을 살피는 의미를 소통과 활동성의 조화로 구성하였다.

친환경계획_공원과 연결되는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건축을 만들고자하였다. 1층부분은 벽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원의 녹지를 적극 유입하였으며 1층 조경부분도 연결하여 배치하였다. 지하층은 선큰을 활용하여 휴식의 공간 및 지하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3층에서 4층은 풍정을 설치하고, 4층의 성부는 Wind Road라는 특별한 층을 설치하여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없으나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나부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공암벽과 스위시장의 적당한 층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외부공간에 식재를 하고 옥탑층의 옥상녹화로 다시 한번 공원과 연결되는 녹화시스템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

Goyang Youth Sports and Cultural Center

가 작 / 김휘열 정희연 · 김시원 정희연
(주)디자인그룹아이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정승이 정희연
(유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6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037.00m²

건축면적 612.83m²

면적률 4,148.73m²

건폐율 59.10%

용적률 200.85%

규모 지하 3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이디에이_김태호, 백형철, 강상훈, 박판규,
송기활, 이윤희, 한혜숙, 이웅재,
박경진

유한_양용석, 고하동

계획의 방향

대지는 백마공원 입구에 위치하며, 호수공원-마두공원-백마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녹지를 대지로 끌어들여 수직, 수평적으로 확장된 다양한 외부공간(Terrace, Plaza)을 구성하고, 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Eco-Promenade를 더하여 자연을 담고, 체험하고, 느끼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구현한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는 펼쳐진 자연을 수렴하고 도시적, 문화적 흐름을 결합한 Activity Space를 구성한다.

계획의 개념

Green Inflow - Terrace_펼쳐진 자연은 수직적으로 연속된 Herb, Rose, Tulip Terrace로 수렴되어 도시로 확장된다. 자연을 적극 받아들이고 확장하는 Green Space를 구성한다.

Urban Inflow - Plaza_도시의 흐름은 Dream Plaza, Green Plaza, Future Plaza로 이어지고 다양한 Event 및 Activity를 담아낸다.

Culture Inflow - Promenade_자연의 흐름과

도시의 흐름을 담아내는 건축적 공간(Terrace, Plaza)은 Eco-Promenade로 통합된다.

Eco-Promenade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새로운 Community 장으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낸다.

배치계획

-도시적, 자연적 맥락을 고려한 건물배치

-비움과 채움에 의한 공간 구성과 비워진 공간을 통한 자연의 흐름 적극 유입

-도시-자연-문화적인 요소를 담을 수 있는 Activity Space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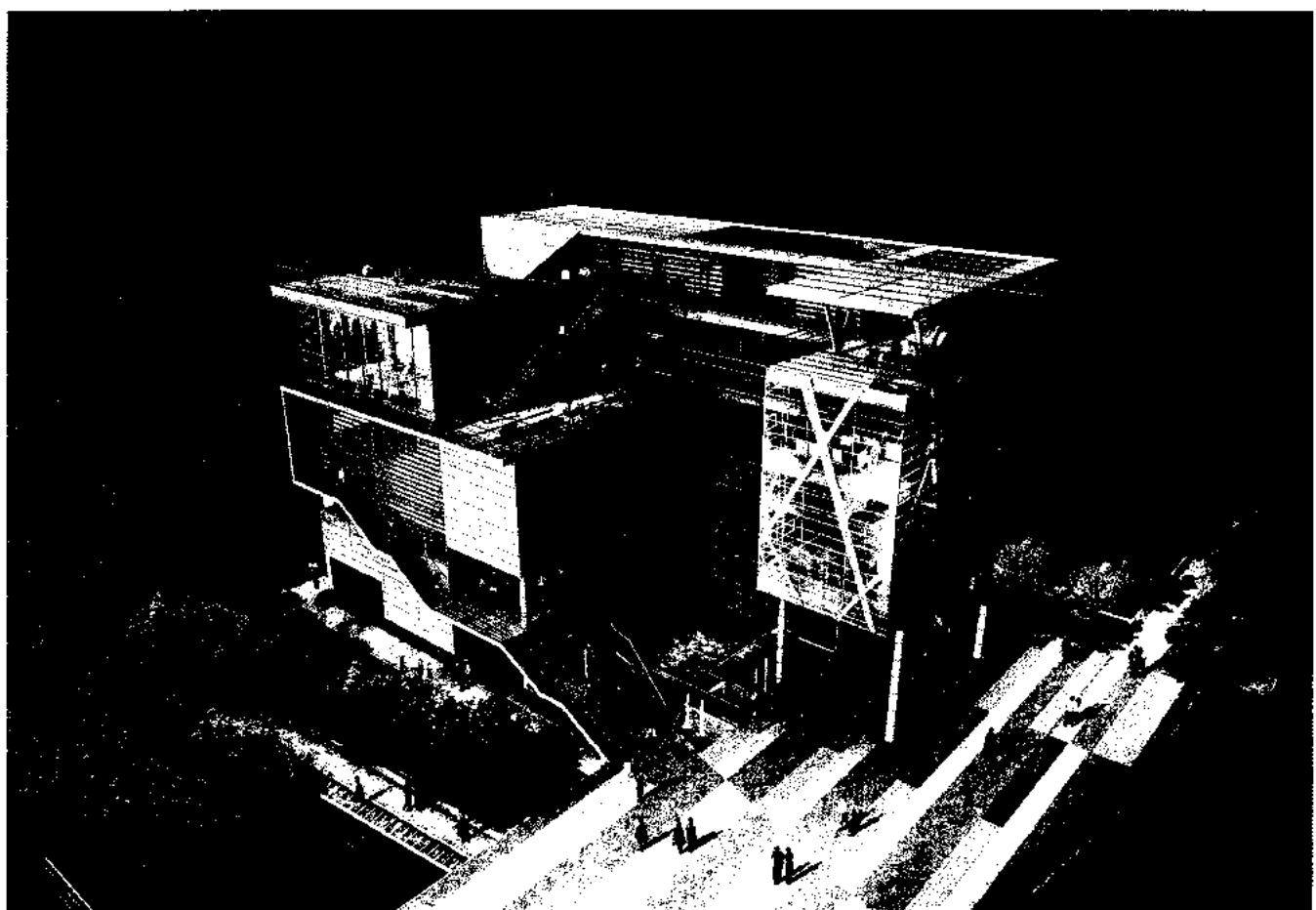
평면계획

-기능별 출입구 분리로 독립성 및 접근성 확보
-Terrace 공간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및 별도의 외부진입동선 확보

-실내공간의 가변성 확보

입면계획

-Dynamic Skin : 가로와 도시맥락에 대응하는 역동적 입면



-Clear Skin : 공원의 자연을 적극 유입하는 투명의 재료

-Natural Skin : 공원과 대응하는 친환경적 재료

단면계획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층별 Zoning(청소년 체육시설 : 지상, 게이트볼 : 지하)

-주변 녹지축을 끌어들이기 위요된 공간형성

도시 Open Space와 대응하는 팔로티 공간 제공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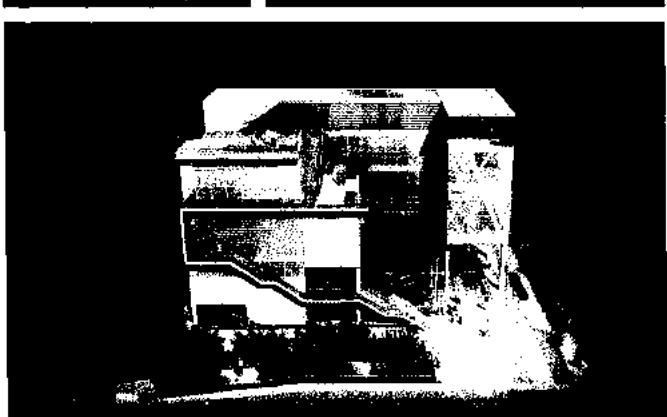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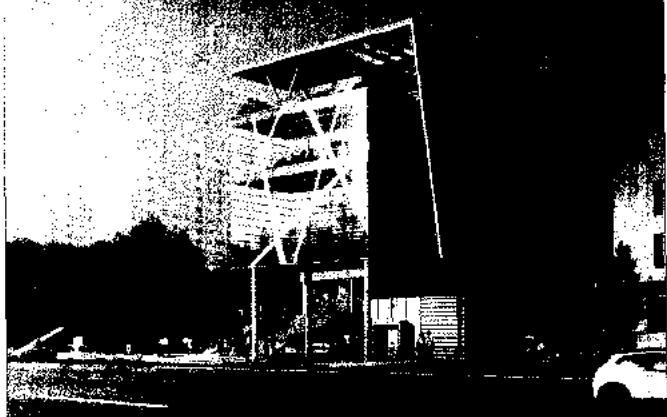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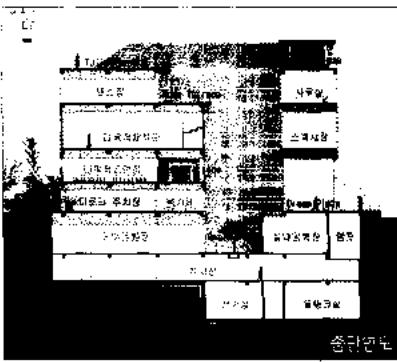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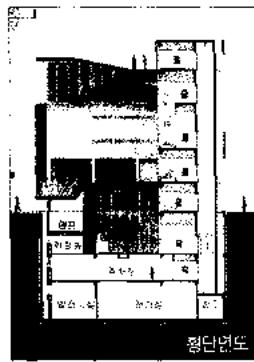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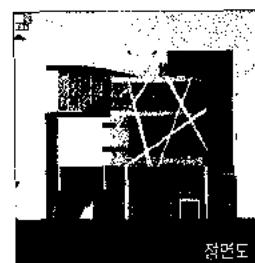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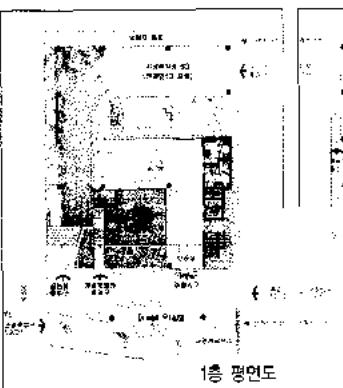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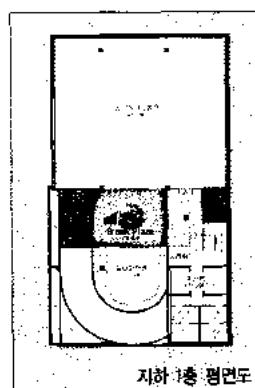
-공연장과 체육관 진입을 위한 복합동선 확보

-게이트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복합동선 확보

외부공간계획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고,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Green-Network 구축

-특색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계획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만남,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 기대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명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연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태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혹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내부 정철과 사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담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여로(麻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쿠도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_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_The Chu-I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퇴계 이황이 헌길으로 머물렀던 도시 옛 단양_The town Danyang, a place for whang-lee was mayer
6. 선비들의 계회(契會)장소 상선수석로(參香木石路)_A meeting place for Chu-Iz scholars, the Samsunsnsuk road
7. Walking space, 운계 구포로(雲溪九谷路)_Walking space, the Ungaeguk road
8. 불화대로의 고개, 즉령_A Ridge of the way of Borwha road, guklyung
9. 즉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_Who is him, the Chu-I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증기현과 사림_The Chu-I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한 전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ea-su

한재수 교수는 청주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로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을 운영하면서 힘들어 했던 경영에서의 경험을 둘째로 지난 10년간 능암부 고려대, 한과 신약대학 대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0여 편의 저작과 함께 전통건축과 기념의 한글서예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최근로 신작한 저서 '한국도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엣트북스)'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전시립대학원, 이사, 논문집 한집위원, 역사여행의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전통서예 전시회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교통여행평가위원회 위원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향교

-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

향교로 가는길

오늘부터 그동안 틈틈이 조사 메모해왔던 것들을 직접 걸으면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시 종합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첫 번째 답사대상을 단양향교로 떠한 것은 퇴계 이황이 단양현감으로 재임하면서 하방리에 있었던 향교를 현재의 위치로 옮긴 사실이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 일에 대한 대강의 근본이나 과정이 어떠했다는 것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잠깐 동안이나마 뜨끈한 구들의 위풍에 눌린 몸을 다시 지져서 그런지 행선지를 미리 정한 탓인지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겨울이 워낙 깊어 가는지 새벽이 깨어, 닦아 여러 번 화 물어 제치고 실음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둘 참이 다되었는데도 장지문 아래 틈새로 엄습해오는 스산한 한기는 여전했다. 옷을 추스르고 바깥 한기가 어떠한지 궁금하여 잠깐 뒷돌에 내려서자 강변을 가득 채우고 넘쳐난 안개가 아직도 마당 그득히 얹게 펴져 흐르고 있었다.

서릿바람에 겹겹이 싸인 신 새벽의 숙무(宿霧)가 내몰리듯 향교에 관한 나의 기억이 퇴계 이황의 이십대 후반 이력을 날날이 훑어 내려가자 희미한 그의 학력의 내용들이 점점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궁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비란 누구인가 하는 물음으로 줄기차게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워낙 내가 글재주가 부족한 탓에 밀려드는 생각을 속 시원한 한마디로 정리가 어려워 길을 나서기 전에 우선 향교부터 정리해 보기로 했다.

향교. 일찍부터 내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향교란 국초부터 나라에서 시행한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유교의 대중화 교육을 하기 위하여 태종은 재위 13년, 1413년 향교의 수학(修學) 성과를 수령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군현에 이르기까지 1개소씩 고루 배치된 향교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학전(學田)을 자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일종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한양의 양반 자제들과 향촌 곳곳에 산재한 재지자족들의 자녀들은 서당에서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글을 익힌 다음 바로 경(京)내 각 부에 설치된 사학(한양의 동, 서, 남, 중부에 세운 학교), 읍내에 있는 향교로 진학하여 과거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사학과 향교는 과거의 첫 시험 소과(小科)를 준비하는 예비학교였던 셈이다. 당시 이들은 생원과와 진사과(進士科)로 나누어진 소과를 보아야 했는데 이 시험은 3년에 한 번,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1차 시험인 초시(初試)는 상식년(上式年:寅·申·巳·亥年) 가을에 시행하는데 한성시(漢城試)에서 이백 명, 지방 향시(鄉試)에서 칠백 명을 뽑은 다음, 이듬해 식년(式年:子·卯·午·酉年) 봄 서울에서 2차 시험인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백 명을 뽑았다. 이렇게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세종은 재위 20년 1438년부터 합격증서로 백패(白牌)를 하사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원 진사라 부르며 선비로 존경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양반들은 왜 기를 쓰고 소과에 급제하려 했던 것일까.

소과에 급제해야만 성균관에 입학하여 장차 문과에 응시, 대과 급제한 뒤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혹 성균관에 들어 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하급 관원으로 입사(入仕)하거나 침봉·훈도·오위장 등 종9품직에 제수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진짜 양반 행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양생원, 김생원, 이생원 또는 정진사·김진사·박진사라 불리는 이들은 비록 호칭이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당시만 해도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로 소도나무를 높다랗게 세우고 그 마을을 지나는 행인들은 설사 말을 타고 간다하더라도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살인죄 이하의 죄는 설사 눈앞에서 서슴없이 저질려도 체포나 감금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다.

과거 급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선천지의 자유인으로서 치외 법권 적인 특권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으름장에 시정배들이 무릎 꿇는 자리를 찾을 정도로 자신의 신분이 격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아무리 양반 피붙이라 해도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선비로서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아망이 일종의 양반 자격시험에 불과한 바로 이 소과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생원·진사¹⁾ 합격자의 수가 많

1) 조선 초기에는 반대로 생원시를 중시하여 한때 진사시를 폐지한 적도 있으나 단종 때 부활되면서부터는 진사시가 중시되자 진사라는 호칭이 통속적인 선비의 호칭으로 보편화되어 구별 없이 생원, 진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부르는 말로 변해갔다.

아지자 중앙의 문벌 양반에게 밀려 지방 양반들의 문과 합격의 기회가 제한되자 소과는 지방 양반들의 신분적 지위를 재확인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스스로 소성(小成)이라 했던 이들은 자지사족(在地土族)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그들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매달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독서를 바탕으로 향촌에서 장원을 이루기 시작하자 이들 가슴속에 서서히 사람의 마음과 도시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세(勢)가 향청을 중심으로 무르익으면 악을 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기득권을 지닌 권문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불안해질수록 대립각은 첨예로워지기 시작했다. 하늘 아래 두개의 봉화불이 켜진 탓이다. 한양에서 이미 지펴 올린 훈구의 횃불은 전국을 향해 타올랐으나, 향촌에서 지펴 진 횃불은 훈구의 불 그늘 아래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며 하나, 둘씩 마을로 마을로 그늘진 곳을 밟으며 퍼져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정세를 아랑곳없이 가뭄에 콩 나듯 뽑는 대과에 급제하려고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명성이를 불이고 들어앉아 조선전기 벼슬길을 찾아 나선 선비들이 상당수 있었다. 3차례 걸친 시험을 보아 갑·을·병 3과로 나누어 등급을 결정하는 대과, 갑과 장원 급제를 해야 종6품의 참상관(參上官)을, 병과 합격되어야 정9품의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들이 바로 사람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비가 바로 퇴계 이황이었다.

그가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한 것은 1523년(중종 18)의 일이었고, 진사가 된 것은 1528년이었으며, 정작 과거에 급제한 한 것은 1534년 식년문과(式年文科) 을과(乙科)였으므로 한양에 살았던 숙부 이우(李壦)에게 12살 때부터 학문을 배우던 그는 사부학당을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무려 11년간 머무르며 공부를 했던 셈이다. 그는 성균관에 입교한지 5년이 지나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진사가 된지 6년 만에 3년마다 치루는 식년대과에 급제하였으니 매번 응시했다면 퇴계 이황은 두 번 낙방하고 세 번째 합격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한 가지 말을 꺼내기 거북살스러웠던 점은 그는 진사도 되기 전에 이미 성균관에 입교했다는 점에 있었다. 소과에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균관을 그는 진사도 되기 전에 그냥 입교한 셈이다. 만약 그가 제대로 절차에 따라 성균관에 입교했다면 그는 1523년 그의 나이 23세 때 이미 생원, 진사가 되었거나 1528년 진사가 된 후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퇴계 이황의 학문적 권위와 인물의 역사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물음은 내 앞을 아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음이 조조해진 나머지 혹시 나의 우문으로 잘못하면 그의 명예에 오점을 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전전긍긍하던 나는 긴 숨으로 마음을 타이른 다음 조사해온 조선 전기 사학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렵잖은 기억을 해 깊고 첫눈에 읽힌 것은 한양에 학당을 만드는

자는 학제를 제외한 한 것은 1411년 예조참의 허조(許稠)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학 이야기는 처음 동서학당만으로 시작된 학당제는 차츰 제도가 정비되면서 부마다 학당을 두게 되었으나 북부에는 학당을 두지 않아 사부학당, 또는 사학(四學)으로 불리게 되었고, 독립학사를 처음으로 건축한 것은 1411년(태종 11) 남부학당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 중부학당이 1432년(세종 4) 관광방(觀光坊 : 지금의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서부학당은 1435년 서부 여경방(餘慶坊 : 지금의 종로구 광화문)에 동부학당은 학사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38년 동부학당을 북평관(北平館)으로 바꾸고 동부 창선방(彰善坊 :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병원의 우유소(牛乳所) 건물)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로 이어지면서 당시 각 학당 교원은 종6품 교수 2명, 종9품 혼도 2명을 있었는데 정6품직인 성균관의 전적(典籍) 이하 관원들이 겸직했고 학생 정원은 백 명이었고, 입학자격은 양반·서민의 자제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진사나 생원과에 응시할 준비교육을 시켰는데, 반 편성은 5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20명씩 배치한 뒤 10일간 거학(居學)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사학의 교육내용은 성균관과 비슷하였으나 다만 평가에 있어서 매일 학생들이 읽은 글을 강(講) 받아 그 성적을 정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의 뉴초리를 흠떠보며 자료를 읽어 가던 내 눈가에 짐짓 다가오는 문장은 학당제의 특별한 점은 15세가 된 학당 생도 가운데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과 성균관 정원의 절반인 하재생(下齋生) 백 명이 학당 출신으로 채우게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한술 더 떠 또 각 학교에서 우수한 유생 20명을 뽑아 남학(南學)에 모아놓고, 예조에서 강론과 제술(製述)로써 시험하여 10명을 뽑아 생진복시(生進復試)의 응시자격을 주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이는 사학에 대한 대단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놀랄 일은 어디 그 뿐만이 아니었다. 고관자제에게는 문음승보(門庭陞補)의 혜택은 한술 더 했다. 1413년 3품관 이상의 자제는 4서와 1경(一經)만 강경(講經) 시험을 보아 조(祖 : 句讀과 訓釋이 틀리지 않고 대의를 아는 수준으로 강경시험 평점의 가장 낮은 단계임) 이상이면 성균관에 진학하게 했던 것을 나중에는 사대 조(四祖 : 父·祖·曾祖·外祖) 안에 3품 이상 관직을 역임한 사람이 있는 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학당에서 매달 치르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자는 생원진사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으며, 매년 6월 사학에서 20명씩을 선발하여 보는 회시(會試)에서 우등한 10명도 생원진사시의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학과 성균관이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점을 당시 사람들이 알았다면 사학은 벼슬에 오른 자나 오르려는 자나, 심지어 여염 백성들까지 모두 덩달아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12살 때 그를 가르쳤던 이후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다. 1469~1517(예종 1~중종 12)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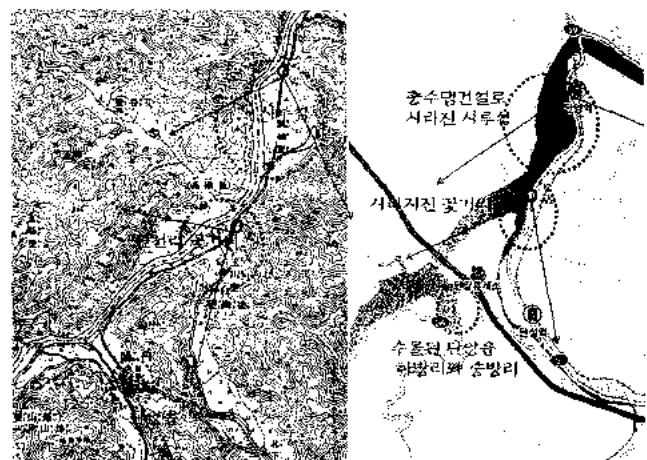
본관은 진보(眞寶)였던 이무는 이황(李滉)의 속부였다. 그는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관지부정자·이조좌랑·시간 등을 지낸 사람으로 그가 1506년 동부승지로 있을 때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에 녹훈되고 청해군(青海君)에 봉해진 바 있었다. 그리고 1508년(중종 3) 진주목사로 있었을 때 선정을 펴 표리(表裏)를 하사받았으며, 이듬해 호조참판 등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모봉양을 이유로 사퇴한 바 있었고 1514년 김은(金銀)이 상소로 중종반정 때 공신에 녹훈된 것을 문제 삼자 삭직되었으나 이듬해 안동부사에 복직되었던 것이다.

그는 토계 이황이 성균관에 입교할 무렵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입궐채비를 했던 드세한 권문세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황의 속부였다는 사실과 함께 시학과 성균관의 관계,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청기념회 이황은 사학에서 공부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진사가 되기 전에 성균관에 입교한 일은 그다지 이상한 사건으로 볼 것은 전혀 아니었다. 무심코 지나친 이런 역사적 맥락을 험하게 엿 본 사실을 방어리처럼 보고도 못 본 체, 듣고도 놀들은 체 오불관언(昔不關焉)하라면 누구라고 힘들 것이다.

아부튼 균관에서 11년간 공부했던 그는 후일 성균관의 유품 벼슬인 정3품의 당상관이 대사성을 지냈으므로 조선전기 학제를 대표할만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나는 단양을 구조를 살펴보는 일 보다 먼저 그가 이축한 향교를 찾아 가려는 것은 조선 전기 교육시설의 흔적이 혹시 천행으로 남아있는지 어디 한번 조사나 해보자는 심사가 앞서서였다.

기온이 떨어지면 강물 속에서 피어올라 강변 가득 채웠다가 놓 넓이 밟아오면 햇살에 쫓겨 다시 산속으로 숨어들어 자취를 감추곤 하는 악개처럼 지난 역사에 대한 궁금함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참, 마당가 풀 셋에 된서리가 많이 냄린 것을 보니 해 낮에는 오랜만에 따뜻해질 것 같았다. 자그만 장지문을 여닫을 때마다 나는 빠걱거리는 소리 그마저 정겨운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골의 정취였다. 아니 사라져버린 자연의 모습과 어우러져 잊혀진 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한 사나흘 더 머무를 요량으로 행장을 주슬러 대문을 나선 나는 문밖 한티에 세워둔 차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강 건너 실음산등이로 희붐한 미명이 물어 오른 새벽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노총들이 들어선 별곡마을 입구를 나서자 남한강 물넓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 강바람이 차고 매섭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였다. 강을 건너 실음산 자락을 가르고 난 길로 부지런히 걷는다면 현천리를 지나 옛 단양을 까지 점심 전에 대여 갈만했다.

상진대교를 막 건너자 길섶 아래 펼쳐진 증도리 물넓이 눈에 들어왔다. 만약 이곳이 아직도 총독부 지도에 그려진 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거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백사장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어느 한순간인 들크



(그림 1) 1910년과 2010년 단양지느 비교



(그림 2) 상진대교 1974년



(그림 3) 꽃거리에서 본 서루



(그림 4) 시루교에서 본 성재관



(그림 5) 1970년대 현천리 꽃거리

게 잡아낼 수 없으면서도 엄연하게 다가오는 상진리 일대 자연풍광의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변화를 체험하며 행복감에 젖어 남한강변을 걷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1980년대 실음산자락을 잘 라내고 만든 포장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은 걷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달리는 자동차를 위해 만든 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행자를 위한 길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농촌이나 산촌이 아니라 도시이다. 그 탓인지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시골길을 걷는다는 것은 한사람이 겨우 지나칠 수 있는 길섶을 보도삼아 자동차 길을 걸어 간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도 걷는 만큼 자연 속에 스스럼없는 족적이 남겨졌고, 걸은 거리만큼 거칠어진 호흡 속에 그동안 무의식과 망각 속에 감추어진 내 자신 살아갈 삶의 원형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대동여지도를 들고 이곳 자연과 역사경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일은 곧 삶의 모습 본보기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 절감되기 시작했다.

민박집을 나서서 상진다리 건너 단양역을 지나 심곡리까지 걸어가는 동안 소매와 굿밥을 스치는 바람이 만만치 않았다. 심곡터널을 원편으로 성재산을 바라보고 실음산 능선 밑뿌리를 따라 굽이 돌아 가는 5번 국도를 따라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마침 불어오는 강풍으로 바짓가랑이가 뜻이라도 되는 듯 펼럭이자 걸음은 마치 배가 강심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길을 가르고 간다.

강변을 타고 멀리로 사라지는 시루섬 뺨 밭가에 우거진 잡목 숲과 강 건너 현곡리 애곡리 구릉은 강물에 비사된 겨울 별으로 밴댕이 뱃바닥처럼 반질거렸다. 원래 단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주변경관이 워낙 좋은 탓도 있었지만 두 섬, 도담 삼봉과 시루섬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도담 삼봉은 세 개의 바위로 조성된 작은 섬으로 강심에 오뚝 서 있어 기풀이 뛰어나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모래밭으로 뛰어난 시루섬은 소나무 숲과 여울목, 쏘갈비위, 샷강의 고기잡이가 김일손과 이황 그리고 그의 제자 황준량의 발길을 묵어둘 정도로 옛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시루섬의 자랑거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옛부터 이 섬에는 뽕나무가 많아 양잠이 성했고 땅콩재배가 잘되어 이것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 옹기종기 강마을을 형성하여 모여 살았다. 더구나 이곳은 수륙교통의 요지였으므로 무시 때로 사람들의 왕래가 번다했다. 그런 까닭에 삶의 때가 가득한 이곳은 단양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랑했던, 늘 가보고 싶어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5리 길 빠듯한 아랫녘 현천리 강 건너 애곡나루와 연결된 선창머리들에는 옛날 배와 소금 배 그리고 시선(柴船)과 생선 실은 고깃배들이 열을 지어 늘어져 있었다. 특히 이곳은 죽령길이 단양천을 따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갈목이었으므로 영남에서 죽령을 넘어온 장들림이나 영남주상들 그리고 관동의 객상들이 배를 타고 한양으로 물나들 가는 일종의 관문으로 분화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강 건너 애곡리에는 수양개 유적을 비롯한 성터와 유불산포지가 강을 따라 늘어져 있었고 현천리 윗녘에 고려 때 유교를 받아들인 순흥 안씨 집 성촌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은 옛부터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수륙교통의 요지가 발달한 곳임이 분명했다. 그런 탓인지 한 백 여 년

전 만해도 시루섬과 단양읍 사이에 자리한 현천리 윗마리 쪽 술청 거리는 배가 들어올 때가 되면 한길바닥에 험지박이나 모판 풀상을 내다놓고 밀전병이나 백설기기에 수수장떡을 파는 떡장수들과 들병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줄기차게 길손을 부르며 장시를 이루곤 했다.

멀리 행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잔술이라도 팔아보려고 소리치고 손짓하는 조방꾼과 색기로 가득한 이곳은 계집생각으로 막창이나 창기를 찾아 기웃거리는 패거리들, 한두 달은 보통이요 재수 없으면 일년 넘게 계집 맛을 못 본 장들림들이 만사를 제치고 화초방을 찾는 버릇 때문에 복새통을 이루던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선이 물나들이 할 때마다 배를 대어 행매를 하거나 한양에 생선을 대는 고깃배, 소금배, 장작을 대는 야거리 장작배가 몰려오면 선창머리에 늘어선 숯막과 주막 술국집은 제법 해반주그레한 얼굴을 내밀고 잔술과 함께 몸을 팔던 창기와 그들을 찾아온 두둑한 주상과 선객들의 하룻밤 신명 떨음을 위해 들썩해지는 밤 문화를 상징하는 유곽 홍등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길 가녘에 우거지 상판을 하고 바람을 안고 걸어오는 사람들은 이따금 보일 뿐 시루섬 어름을 지나 현천교에 이르기까지 인적이 뜸했다.

퇴계 이황이 단양학교를 이축(築移)하게 된 이유

숨차게 길을 죽였던 탓인지 단양석회 앞을 지나 현북교를 건너 옛 단양에 도착하였어도 늦은 아침께밖에 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현천리에서 죽령 천변으로 내려가 내를 건너 곧 장 읍내로 질려 들어가 향교로 가거나 원편으로 성재산 동쪽 자락에 바짝 붙은 도도락 길을 따라 죽령을 바라보고 한 십리 남짓 부지런을 떨어 갈대가 무성한 개활지 사잇길을 피해 오른편 고갯길을 택했을 것이다. 이 가파른 고개 길을 열고나게 올라서면 비로소 발아래 단양읍내와 남한강의 풍광을 보게 된다. 불과 삼십년 전만해도 이 고개를 넘어 영남으로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수월치 않았을 터인데 향교 앞 내리 막 큰길에 들어섰어도 이곳 역시 사람의 왕래가 뜸했다. 가파른 산길을 내쳐 오른 탓인지 등줄기엔 땀이 후줄근했고 쉴 힘 없는 길 몰이 한 까닭에 나는 놋재 쉴 힘에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예서 잠시 숨을 돌리고 길을 내려서 길 모퉁이를 돌아 서면 퇴계 이황이 하방 리에서 옮겼다는 단양향교가 나타난다.



(그림 6) 1910년 단양읍내인 지형도

차가운 강바람이 폐부를 찌르자 혀기침이 난다. 나는 배낭과 카메라를 내려놓고 길섶 바위위에 걸터앉았다. 도전리를 떠난 지 세 시간 남짓 지났을까, 고개를 드니 산비탈에 길길이 자란 노송이 무성했고 위편 두악산자락과 봉수가 있었던 소이산이 성큼 다가와



〈그림 7〉 농재에서 본 달양읍 전경



〈그림 8〉 월 출발리에서 고 1930년대 단양

보이고 아롯한 현기증과 함께 강 건너 금수산과 천계봉 자락 아래 애곡리 벌판이 멀어져 갔다. 사실 내가 현천리에서 곧장 단양읍내로 들어서는 성재산 지간 길을 버리고 농재로 길을 잡은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길을 나서기 전에 단양읍내에 대한 정보를 대략 정리한 탓에 옛 도시구조를 답사하는데 별 어려울 바는 없었으나, 우선 궁금했던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퇴계 이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향교의 진형을 조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줄 창 뇌리에 가득했던 터였고, 효율적인 답사를 하려면 날이 저물기 전에 볼 수 있는 것부터

터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심신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배낭에서 수통을 꺼내 물 한 모금 마시자 뿐아져 나온 잔 숨결로 허공에 서린 하얀 입김 사이로 그동안 길 돌이에 정신없어 뒷전으로 내몰렸던 생각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이야 어쨌든 현재 충북유형문화재 10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단양향교를 둘긴 사람이 당대 유학교육의 총 책임지이자 성균관에서 잔뼈가 굵은 퇴계 이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아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그가 단양현감으로 8개월간 재임하면서 학교를 옮기 사실을 조사하는 일이다.

건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어진 건물을 뜯어 짓기는 이축(移築)은 현집을 뜯어내고 새로운 곳에 터를 닦아 낡은 부분은 수선하여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축하는 것 보다 건축비가 더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짓는 경제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상례였다. 설사 낡은 부분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옥의 기둥과

〈그림 9〉 단양향교 1972년



(그림 10) 단양향교 2010년

창방의 시개맞춤은 위낙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 탓에 아무리 잘 해체 한다 하더라도 손상되기 십상이었고 건물의 벽체와 바닥 온돌, 실 내부 마감은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다시 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틀어진 창호를 다시 맞추려면 일품이 적지 않게 들었고 깨지는 기와 등 부재 손상을 보완하는 일에도 만반치 않은 경비가 들었다. 더구나 하방과 평지에 세워져 있던 향교 건물들을 경사가 심한 산비암인 현 위치로 옮겨 세우려면 입지조건이 달라져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 결국 건물의 이축은 구조체인 기단석과 초석, 기둥

2) 조선시대 이종으로서의 향리는 사족과 같이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향리는 대체로 호장·기관·장교·통인으로 조직되었다. 호장은 고려 이래의 명칭으로 조선시대에도 향리의 회고위를 의미한다. 호상(戶所長)·노우장(傭夫長)·세호장(第科長)·부호장(副戶長) 등 기타 여러 가지로 위계를 가진 명예직의 이름도 주어졌다. 지방행정 조직은 종양의 육조(六曹)조직을 모방하여 이·호·예·병·령·공(俸)으로 나뉘어 그 짐무를 분담하였다. 향리는 이전이니 불리며(鄙夷), 고기로 둘 때 향라는 이·진에 속하나, 이전이 모두 향리는 아니다. 이전 가운데 오아전이면서 그 지방 출신으로 대대로 하급관리를 하는 사람을 향리라 한다. ④방은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위로는 지방관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상민총을 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 격충 긴 중간지 역할을 하였다. 향편으로는 농민 위에 군림하여 학취하는 두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향리의 인운을 조정 관리하지 않고, 오직 향리의 본역을 억제하는 쪽 역할을 두었다. 향리의 기본 업무는 통지기구 말단에 위치하여 직접 생산자인 산민등과 접촉하여 조세·공부(貢賦)의 수납과 역역(力役)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향리가 직무인 혁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세습하는 것을 괘에 또는 의묘하고 있었고 일반사무로서 조세·공부의 장수와 유역(徭役)의 동원, 그리고 송사(送使)의 처리 등을 행하였다. 정장한 조서와 공문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각 창고(倉庫)에 넣었을 조수도 당당하였다. 한편, 중앙 및 지방의 국기기관에 상번인역(上番役)을 하기도 하였다. 기타 감영(監營)·수령(守領)·병영(兵營)의 이직과 역도 직지의 향리를 교대로 임명되어 담당하였다. 또 각 읍은 도성에 경제(經制)를 두고 종양과 각 사와의 연락, 조서·공부의 상납·상변하는 경역(京役吏)·선상누비(選上奴婢)·중앙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자발에서 비낸 노비의 취역·임선·상종한 지방 관리의 슈박 지원 등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 경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관리인 경자군(京家君)도 각 읍의 향리가 별도로 성격하여 맡당하였다. 한편 향리들은 각 읍에 부임하여 오는 결관·지방관 등의 명장과 관악 업무도 수행하였다.

3) 조선 초기 지방 군·군수의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관 환상당(翰尚堂) · 유형청·향수정·향평정 등으로도 불렸다. 고려 때의 사심관(審官) 제도에서도 유래한 것으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유형품관(御形品官) 또는 한랑관(閑郎官)이라 하여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서 은퇴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향터(郷吏)와 관노비의 불법을 규찰함과 동시에 불효와 불복(不復) 등을 감찰하고 관의 위세를 둡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탄핵하여 향종(鄉風)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형소의 우향품관들은 실직은 아니지만 끝에 상으로는 오히려 수령보다 높은 청부가 뱃을 빙어 아니라 수령이 내린 능별행위가 자주 일어나 1406년(태종 6) 중장집권정장의 일왕으로 수령을 상화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그 뒤 스럼의 품위를 뛰어넘는 행리들로 폐단 등이 향종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자 1428년(세종 10) 다시 부활시켜, 교활한 이전과 간고한 백성을 규찰하고 향풍을 비로잡는 일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1435년에는 경제소(京府所)에도 세정부를 성립, 유형소를 주체하지, 유형품관들은 사기 보호를 위해 참관과 탐관,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호 보호적 통행권위를 조례하여 향촌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때, 한때 폐지되었으나 관리들의 능간이 심하여 1480년(성종 20)에 지방통속의 조정과 향리 규찰을 위하여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을 두고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일원은 행위(鄕位)·감관(監官)·향성(鄕正)이라 하여 수령·부(府)에는 4~5명, 군에는 3명, 현에는 2명씩을 두었으나 누군에는 첨자 증가되었다. 이들은 향사(鄕士人) 중에서 나이가 많고 인망이 있는 자를 좌수, 그 다음은 별감으로 선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얹기(任)는 대개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뀌면 다시 뽑기도 하였다. 이들의 직임(職任)은 6강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방·병방·좌별각이 호방·예방·우별각이 행방·공방을 맡아 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파는 교활한 이전과 간고한 백성을 규제하거나 충양집권자체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소임보다 향사례(鄕事例)·향음주(鄕飲酒)를 맡은 경우였으며, 향촌 내의 불효·부재(不作)·불복·불인·불암홍(不實恤)한 지 등 행촌질서를 파괴하는 지들을 통제하여 향촌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절차가 고착화되면서 저울에는 판야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애애(懨懨)라 하여던 청사가 19세기에는 판야 구내에 있게 되었으며, 초기 수령에 대한 규제력을 가졌던 유형소는 수령 보조역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였다.

과 보, 도리, 서까래 그리고 포 부재만 다시 쓸 수 있을 뿐 토공사와 미장공사 그리고 내부마감공사는 새로 해야 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토공사는 공역 자체가 비탈진 산기슭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절토를 하고 파낸 흙을 버려야 했으므로 전토처리로 많은 일품이 소요되었다. 바로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단양 현감을 보좌했던 육방관속 향리(鄉吏)²⁾들과 유향소(留鄉所) 후일 향청으로 변경됨³⁾에 모인 재지사족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향교의 이축은 많은 재원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 수령인 그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이런 일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을 지방 토호사족(土豪土族)들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시안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향교는 신축되지 않고 이축된 것이다. 그들은 왜 단양향교를 이축했던 것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는 이런 질문 자체가 나 자신을 사료부족이라는 수직적 사고로 이를 몰아넣고 있는 합정임을 발견하고 스스라치게 놀랐다. 사실 교과서적인 수직적 사고로 이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이미 낭패를 자초하고 있었다.

역사가 사료중심으로 과거를 읽는 일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나 온 답사가 오히려 그 속성에 되말려 길을 잊고만 셈이다. 말이 고증이지 사료를 읽는 것도 한갓 추리작업에 불가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내가 미리 예견치 못한 탓이기도 했다. 내심으로 아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향교답사는 초반부터 판독 불가리는 불가항력에 열흔을 빼앗기기에 충분했다. 일이 난감해 진 셈이다. 이번 답사는 꼭절도 무던하다는 생각에 둑여 시간모르고 앙가조총하게 서 있던 나는 힘없는 발걸음에 이끌리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만약 상황을 차세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풀어온 펴즐의 문맥이 어그러짐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한 역사창작극으로 지목받기 심상이었다. 이런 화근을 난데 없이 뒤 짚어 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발걸음을 따라 무겁게 끌려 오고 있었다. 내리막 경사에 밀려 경황없이 재촉하던 발걸음이 차츰 안정된 호흡의 걸음으로 바뀌어가자 나는 이 발상 자체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차츰 호흡이 길어지면서 좀 더 차세히 당시 정황을 근거로 현장을 곱씹어 본다면 역사적 문맥을 잡아내는 것쯤은 예사로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아까와는 정반대의 또 다른 시각을 지닌 추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 자신에게 하기 시작했다.

4) 고려 말 안행(安珦) 등의 학자에 의해 수입된 성리학(性理學)은 조선의 건국이념이었으나 불교가 대중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회축되는 양상이 국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집권세력은 유교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하나가 불교 배척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유교의 대중화였다. 간단히 말해서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으로 유교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조선정부는 향교의 본격적인 발달과 체계의 위비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구한말 1894년(고종 31) 이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이름만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어서 1900년에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군수 등이 관장도록 하였다. 1918년 조사된 바로는 당시 향교의 총수는 395, 소관보지는 48만 평이었으며, 그 재산은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 충당하였다.

5) 태조(太祖)는 즉위 원년(1392년)에 각 도의 인찰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흥폐(興廢)로 그 지역 수령의 능력을 가늠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향교 설치를 강조하였다. 이어 태조 7년(1398년) 성균관이 준공될 때 동시에 성균관과 병행할 지방교육기구 향교의 설치를 재차 축구하기 시작했다.

6) 조선시대에는 성균관과 4학(四學), 지방의 향교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에 학전 또는 학교전이라 하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영조 때는 그 내역을 규정하여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부(府) 향교에 각각 7결, 군(郡)·현 향교에 각각 5결, 사액서원에 3결을 지급하였다. 서원 설치 뒤에는 3결의 서원전(書院田)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들 학전은 공전(公田)으로 면세전이었으나, 사액서원이 아닌 일반서원의 경우 지급된 3결에 대한 1.5결만 면세대상이었다. 또한 조정의 감찰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향교전은 그 지방 수령의 감찰을 받았으며, 성균관과 사학은 예외였다.

만약 그들이 단양향교를 이축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신축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역으로 이문제의 해법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연구하면서 만약이란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었으나 건축의 역사인 경우 공간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으므로 일반 역사와 좀 달리 가치규명을 위하여 가상현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갖고 있었다. 사료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고유의 수평적 사고가 절실히 이 마당에 구태여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을 결벽스럽게 고집하며 가릴 필요는 없었다. 거꾸로 읽는 건축역사, 역설적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생각이 품어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우선 향교가 두 개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하방리의 것은 다른 기능의 건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 역시 그들은 이미 향교 이축이라는 역사적 귀결을 선택한 상태이므로 모든 추론은 이를 근거로 시작되어야 했다.

그들은 왜 향교를 새로 짓고 기존향교를 서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했던 것일까. 단양향교 이축에 관한 궁금증 가운데 가장 풀기 힘든 난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무렵 글줄께나 읽는 선비라면 누구나 서원의 필요성을 수긍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경제적인 면으로나 시대 흐름으로 볼 때 서원 건축으로의 용도변경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했다면 그 속에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했다.

이점에 대한 추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했다.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그가 이곳에 현감으로 부임하기 6년 전, 1542년 죽령너머 풍기 군수 주세봉이 순홍 땅에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서원운동 별릴 때 그는 재정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었던 사실을 당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성균관 대사성이 된 퇴계 이황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비단 그만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재너머 풍기지방 토호사족과 교분을 터트리고 지냈던 이 지역 유림들도 알게 모르게 잘 알고 있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건축하는 일보다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뒤 따른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그들로서는 하방리 향교을 서원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향교⁴⁾는 좀 다른 입장에 있었다. 이미 백 여 년 전 태조의 교육정책을 이어 받은 태종(太宗)⁵⁾은 재위 13년(1413년) 각 향교마다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稅)로써 유지관리비용을 마련도록 함으로서 유지관리에 별 어려움과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원은 학전⁶⁾을 지닌 향교와 달리 재정적 배경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퇴계 이황과 단양 유립이 당시 주세붕이 벌린 서원운동에 참여하기보다 향교 이축을 택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였다.

또 다른 측면은 고가 읊사사화를 당한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원으로의 용도변경을 거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사실이다. 읊사사화란 1545년(명종 즉위년)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 권력쟁탈전을 벌리는 바람에 사립(士林)이 화옥(禍獄)입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사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여파가 계속되어, 그가 단양현감으로 부임하기 일 년 전, 1547년 9월만 하더라도 문정대비의 수렴청정과 이기 등의 농권을 비상하는 뜻의 벽서가 발견되자, 봉성군 송인수 등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언적 등 사립 20여 명이 유배당하는 정미사화가 또다시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듬해 부임하면서 흥문관박사 안명세(安明世)가 읊사사화 전후의 사정기(時政記)에 윤임을 친양하였다 하여 사형되었던 것이다. 그는 읊사사화 아래 윤원형 일파의 음모로 화를 입은 사립의 수가 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선비의 피를 먹고 자란 사람이 봉당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화의 피해 당사자였던 그가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상방리에 있던 향청⁷⁾의 향관들의 움직임, 향의⁸⁾과 동계⁹⁾를 보는 그의 시각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운동은 자칫하면 정치적으로도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향교이축이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것이다.

성균관에서 잔뼈가 굵은 퇴계 이황이 이축(築移)한 단양향교



(그림 11) 단양향교 명륜당 일괄사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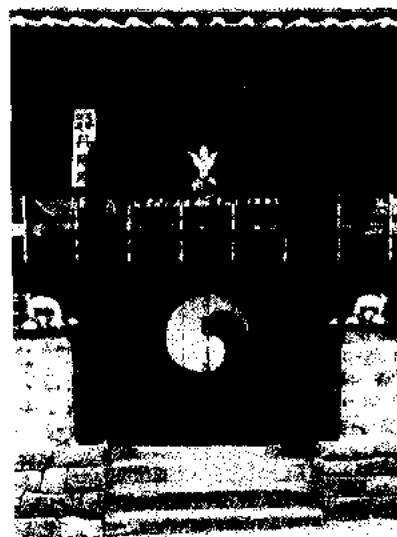
이런 저런 생각에 짓눌려 꼬박 오백 삼십 보 걸음을 걸어오자 향교 입구에 다 달았다. 차라리 갈등을 달랜 걸음이라는 편이 더 정확한 모현일성 싶었다. 오백 삼십 보를 걷는 농안한 번도 옆을 쳐다 볼 여유가 없었으나 내리막길이 오른편으로 접어들고 산비탈에 늘어선 노송이 모습을 드러내자 곧 향교입구에 당도

하였다. 도로변에 바로 맞닿은 네 칸 불rix의 계단석을 밟고 봉당에 올라서자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 지붕을 한 초익공의 2층 문루가 눈앞에 들어 닦쳤다. 이 건물이 바로 단양향교의 주 진입로인 풍화루였다. 숨을 가다듬고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니 어간에 물린 대문 둘찌귀 사이를 들여다보니 명륜당 앞마당에서 튀어 오른 햇빛이 누 아래 18개 기둥을 비치고 있어 바닥은 생각보다 습해 보이지는 않았다. 대문 좌우로 향교 위곽을 높려싼 나자막한 담장 그리고 대문 바로 앞에 주변마리 없이 흥살문이 바짝 코를 맞대고서 있다.

원래 이 흥살문을 제대로 만들어 세우려면 장주를 깎아 향교 문루에서 이삼 백보 정도 떨어진 곳에 세우는 것이 일반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단양향교의 그것은 너무 가깝고 규모도 작아 격식에 걸맞지 않았다.



(그림 12) 풍화루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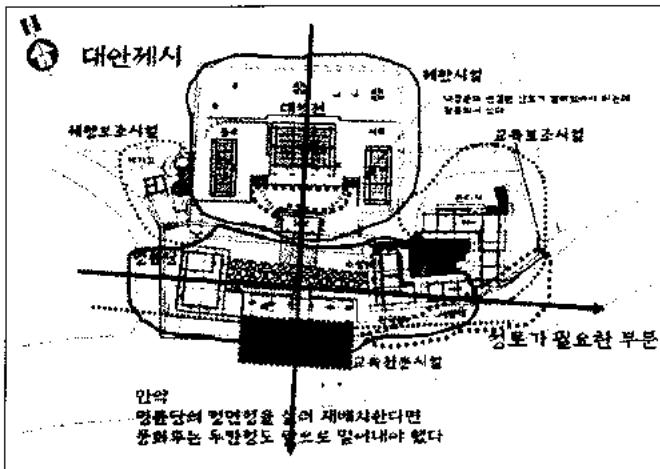
(그림 13) 단양향교 출입문

누문(樓門)이 잡겨 있는 텃에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실 여보 거슬려 오른 도로면에 작은 출입문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서 보니 관리사에서 사용하는 일각대문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서 대문간에 들어서자 한 눈에 40여 평 남짓한 마당을 “자형 관리사와 고주를 세워 만든 퇴칸에 마루를 놓은 수업제 그리고 뒷마루 없는 통칸으로 방을 꾸민 진벽제와 사랑채가 만든 나자형 동제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네모난 각 기둥 위에 납도리를 짜 올린 도리 잡에 둘러싸인 디자인 그늘진 마당을 가로질러 중문을 열어젖히자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대성전과 함께 산비탈에 걸터앉아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통적인 향교배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 분묘 하단에 구성된 학사전용 공간인 이곳은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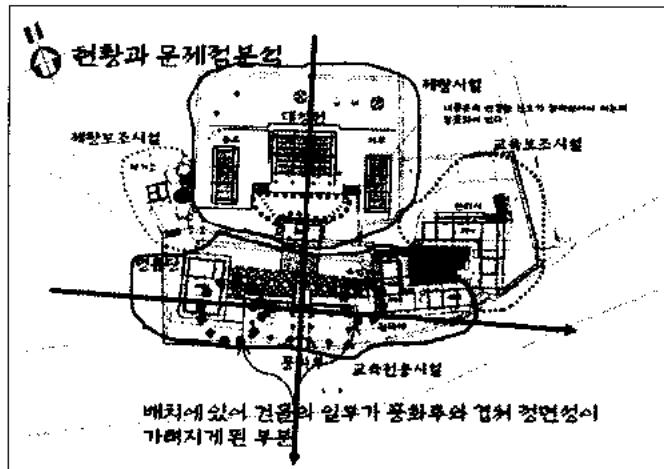
7) 원래 지방부를 대표하는 기구로, 규(郡)·현(縣)의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里更·里前)의 악폐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조기에는 여러 차례 조폐를 거듭하다가, 1429년(성종 20)에 부활되어 향인(鄉任), 혹은 강관監官·향정(鄉正)의 임원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임원은 주(州)·부(府)에 4, 5명, 군(郡)에 3명, 현에 2명의 정원을 두었으나 후대에는 장감(掌管)·고감(庫管) 등의 직책이 생겨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차총 이들은 지방에서 우자와 향촌교화의 담당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점차 농어나 비단가 속출하자 1606년(선조 36) 종상과 지방을 연결하고 지방수령 겸세의 역할을 넘당하던 경제소(京赤所)를 폐지하여 유향소는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수령구제에서 수령·보좌역으로 기능이 변질되었고 좌수(席首)·임명권도 수령에게 넘어갔다. 이래부터 유향소의 명칭을 향정·포·이아(武衙)라 하였으며 좌수는 수령의 수선·보좌관이 되었다. 효종 때부터 향정좌수는 향리로 책임되었고 향청은 비행원(非行員) 향족이 담당했다. 우무마리는 향정(鄉正) 또는 좌수(座首) 1894년 이후 鄉長라 하여 선지로 추천된 자를 임명하였는데, 좌수는 풍속·고정·향리규찰·정령사찰(坎令示察)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러나 향청은 향민을 대표해서 지방관을 감시할 소임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귀하를 낙용하여 민폐를 끼치는 시례가 많았다. 조선 초 설치된 유향소(留閭所)를 임진의란 이후 향청이라 하였다.

8) 자방 사족들이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규칙으로 향약의 4대 금곡은 떠업상권, 예속상교, 환난상률, 과실상규이다.

9) 향약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향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데에 비하여 동계는 동네마다 서로 만들어진 지역 규약이라는 것이다.



(그림 14) 단양학교 배치분석



화루가 등고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까닭에 중심건물인 명륜당은 서편에 동제에 해당하는 수업제와 진덕제와 50여보나 멀리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통적인 향교배치를 지닌 단양향교 배치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억지스러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정상적인 문묘의 배치라면 당연히 명륜당은 대성전과 함께 남북축에 자리했어야 했다. 평지에 전묘후학으로 세워진 성균관이나 경사진 산비앞에 전학후묘의 법식으로 지은 대부분의 지방향교 모두 남북축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였다. 강릉향교의 경우 전학공간의 법식을 지키기 위하여 명륜당을 루정으로 지을 정도였으므로 유림들 사이에 이 법식에 대한 집념과 열의는 실로 대단했다. 그런데 단양향교의 그것은 이러한 관례에서 벗어나 두 건물을 서로 직교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짐작한 대로라면 대성전과 명륜당은 동일 축선 상에 있었어야 했겠지만 워낙 협소한 대지조건이라 단양향교는 당초부터 이 기본적인 법식을 모두 무시했던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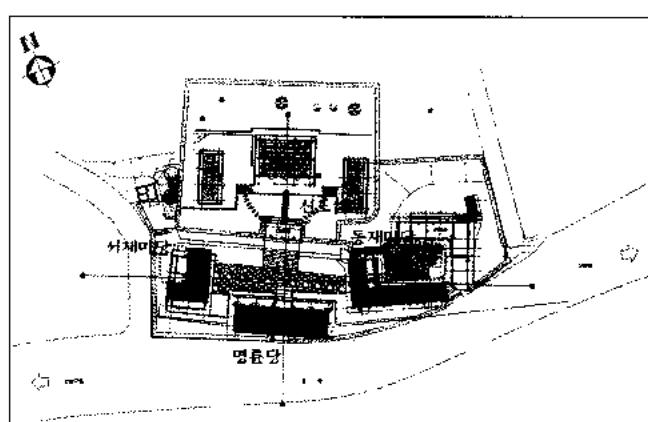
그런데 하필이면 당시 공역을 주관했다고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이 아닌가. 그는 청년기를 성균관에서 거의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으므로 이러한 배치 법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부지가 협소하여 배치의 모순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가 문묘 배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어불성설이었다. 오히려 그는 이 법식을 고집했을 것이 불 보듯 뻔했으므로 대성전과 직교한 명륜당의 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대의 기법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뭔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변형이 일어났음이 분명했다.

이러한 주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마땅 한 가운데서 동제와 명륜당¹⁰⁾을 바라보면 두 건물 모두 측면의 일부가 풍화루 모서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특히 명륜당은 중요한 강학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의 정면성을 확보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명륜당 남쪽 모서리 기둥 옆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도 여기려하지 않는 건축 배치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심각한 모순이었다. 물론 나름의 속 타는 사정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있었겠으나 눈에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풍화루가 지나치게 북쪽으로 옮겨져 물려있기 때문에 명륜당과 동제 두 건물 남쪽 귀 기둥 일부가 모두 가려지게 되어 외부 공간 자체의 품격이 떨어져 보였다. 더구나 현재 명륜당 자리는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부지가 협소한 곳이다. 그런 까닭에 모서리 부분의 중첩에 의한 정면성 훼손은 명종 후기 건립된 명륜당에서 더 심하게 일어났다. 만약 이러한 모순을 감안하여 제대로 배치했다면 명륜당 자리는 서제로 풍화루 자리는 명륜당이 자리 잡았어야 했다. 따라서 이곳은 명륜당이 자리하기보다 서제를 세우는 것이 더 어울리는 공간 조건을 지닌 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국대전을 보면 향교는 각 관아의 관할 하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



(그림 15) 단양학교 배치복원도

¹⁰⁾ 영조 때 두 차례 증수하였으며, 정조 때 명륜당을 증축하였고, 1971년과 1977년에 또 증수하였다. 천적은 판본 5층 42학, 사본 11층 15학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한계증록》, 《청금록》, 《서재유인》, 《향교위전답안》 등을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는 교관이 정원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교육적 기능이 없어지고 봄, 가을에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7동 98명이다.

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모습에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유생들의 숙소 겸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던 동재와 서재의 유생 수용능력은 단양향교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명륜당은 봉화루 위치에 그 위치에 서재를 세우는 것이 마땅했다. 좀 더 고식(古式)의 배치를 따른다면 동재와 서재의 경우 각각 동, 서편에 마당을 만들고 유생들이 각각의 마당을 통해 출입도록 하는 것이 원본적인 향교 배치 법식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법식은 성균관의 동재와 서재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성균관 대사성이었던 퇴계 이황이 이를 문제시했을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었을까.

외삼문 앞 계단에 앉아 풍화루(風化樓)를 내려다보니 오른편에 명종 후기 건립된 명륜당과 제기고가 있고 외편으로 진덕제(進德齋), 수업제(修業齋), 사랑채와 관리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들은 모두 생활공간이었으므로 하등 불편 없이 주택으로 판아 건물로 구조를 개조하여 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물들이다.

이제 외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배향공간인 대성전 권역에 들어가게 된다. 대성전과 그 앞뜰에 놓로서 마주하고 있는 농부와 서부는 기록에 의하면 현재의 것은 선조 36~37년(1603~1604)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다. 신문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 주위를 둘러싼 담장 위에 배여 있는 한겨울의 적막감과 함께 깊은 역사의 고요함 같은 것들이 문묘의 신성한 영역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신문(神門)을 마주하고 서 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을 한 초익공의 맞배집 대성전, 그 집 한가운데 공자를 주향으로 양편에 4성이 배향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성전 좌우측으로 정면3칸 측면1칸으로 구성된 도리집, 맞배지붕을 한 동서 양무 속에 12현이 종향되어 있는데 이집은 마치 동제와 서제처럼 사람이 사는 집처럼 걸맞지 않는 빗마루와 온돌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춘추로 석전제가 지내진다. 대성전과 동서무는 모두 성현의 위폐를 모신 제사 공간임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역량을 전실로 활용하여 제물을 나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까닭에 동서무 건물 바닥은 누마루의 온돌구조가 아니라 전돌이 깔려 있어야 했다. 현데 언제부터인지 동서무 건물은 동서제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변형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격식이 투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성균관을 비롯한 지방의 몇몇 향교에 불과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육공간인 명륜당 권역은 학사관련 생활공간이었으므로 판이나 주거용 건물로 재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성전 권역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므로 향교는 규모의 절반은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냉철히 이 문제를 되짚어본다면 낡은 향교



(그림 16) 대서전



(그림 17) 서무



(그림 18) 풍화루에서 본 단양

를 이축하는 것보다 신축이 비용 면에서 더 합리적이기 했으나 기존 향교의 재활용성이 부족해 경제성은 떨어졌다. 따라서 기존 향교의 건물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재사용하고 새로운 터에 향교를 신축한다는 것은 건축적으로도 무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었다.

이곳에 8개월간 머무른 퇴계 이황은 현감이었으나 그는 3년 전 만해도 또 다른 세계 성균관을 움직였던 대사성이기도 했다. 그는 정2품의 품계를 지난 대사성을 지낸 사람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성균관을 비롯한 오부학당에 이르기까지 당시 조정의 교육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

풍화루에 올라서자 한눈에 단양은 남한강 상류의 현으로 한 도회지를 이룬 높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품에 안긴 단양향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우림의 품속에 존재하는 작은 세계이자 사립이 도나들던 도시이기도 했다. 한차례 격랑에 쓸려나가 듯 생각을 토해놓자 앞길의 근심도 적어진 것 같아 한시를 놓게 되었다.

자자드는 숨결사이로 멀리 하방리와 상방리 주변으로 산과 산이 겹쳐 둘러있는 것이다. 내 눈길이 산마루에 올라서면 그 너머로 또 다른 산이 겹겹이 가로막았다. 별씨 산새의 생김새가 소백산줄기임을 알리듯 힘차고 억세 보였으며 오줄기 남한강이 거세고 깊숙한 산줄기를 파고 드며 서울로 흘러가고 있었다. ■

우리 건축문화재 다시보기

Re-thinking about Korean Building Treasures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총화이기에 어느 문명국이건 역사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현대에 접목 발전시키는 가는 바로 국가적인 자존심이며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여 존재의미(정체성)를 찾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천년의 민족문화를 자긍심으로 살아왔고 오늘의 대한 민국은 가깝게는 대한제국에 그 뿌리가 있음을 천명해 왔다.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불타는 남대문(승례문)을 혹은 통곡하며, 혹은 아린 가슴으로 바라보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건축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케 한 실증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 한 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한 해였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건축문화재 중 많은 생각을 하게한 대상들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문화재는 고려 이후의 것이 겨우 남아있고, 그나마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조선말에서 대한 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桎梏)기에 우리 전통건축은 질식되고 말아, 우리보다 다소 먼저 서양문화를 수용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 땅에도 일본적 번안(翻案)형태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이 난무하였으며, 우리의 건축은 도시의 주택에 그것도 상업적 이유로 오랜 건축적 품위를 팽개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6.25동란은 전국을 피



(그림 1) 불타기 전의 남대문과 화재로 전소된 후의 남대문 모습 (필자촬영)

목 차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2. 원구단과 조선호텔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3. 한옥 문화재_한규설 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마을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폐하게 하였고, 실용적인 이유로 소위 신식 문화주택 등 국적불명의 주거문화가 판치게 되었고, 고도(古都) 서울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의 난립으로 숨막하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숨차게 모방해온 서양건축의 밀물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다소 정리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복판에도 온통 유리와 철로 뒤덮인 물개성의 대형건물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북촌 한옥마을을 보존하게 하였고, 가구 하나 변변히 남지 않은 궁궐들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요즈음 껍데기 나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인의 끈기를 새삼 기대하게 한다.

부디 이 땅의 건축사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의 건축에서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기를 손 모아 기다려 본다.



(그림 2) 100년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 모습 (사진출처_국립문화재연구소 승례문복원자료집, 서울학연구소)

필자 : 홍대현,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ong, Daehyun

홍대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연일도시건축, 범야건축 등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80년대 초에 미국 M.I.T에 1년간 Visiting Scholar로 체류하여 미국의 건축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회장이나, 현재 한국건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교육사상학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건축문화재 1 서울편, 도서출판 기문당」이 있다.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 2월 11일 저녁에 남대문이 불타는 참담한 모습을 현장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본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이어진 많은 국민들의 탄식소리가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쏟아지는 현실을 보면, 이제 조금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생각과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쓴다.

우리의 문화재는 크게 구분해 보면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다. 유형문화재는 대부분 도자기나 서화, 공예품, 조각 등 개인 소장품 혹은 박물관 소장품들로 전국의 박물관을 찾아가야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유형문화재에 속해 있으면서도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중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전국 각지에서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탑, 비석 등 석조물도 산재해 있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예술품으로 인식되는 박물관 전시품과는 다르게 본래 바라보고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고,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조상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인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기 위해 만들어진 집은 오랫동안 쓰다보면 비도 새고, 썩기도 하고 별래먹기도 해서 조금씩 또는 크게 고치고 손질하며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해 우리 앞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서 있는 것이다.

건축문화재는 복조 전통건축물(한옥)이 그 주류를 이루고,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목조문화재는 한국 건축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몇 안 되는 고려 때 사찰건물이 고작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봉정사 극락전이 제일 나이 먹은 것이고,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건축물로 유통된 것으로 나누는 수덕사 대웅전을 들고 싶다. 건물의 당당함이 그렇고, 기구 짜임새의 정교함이 그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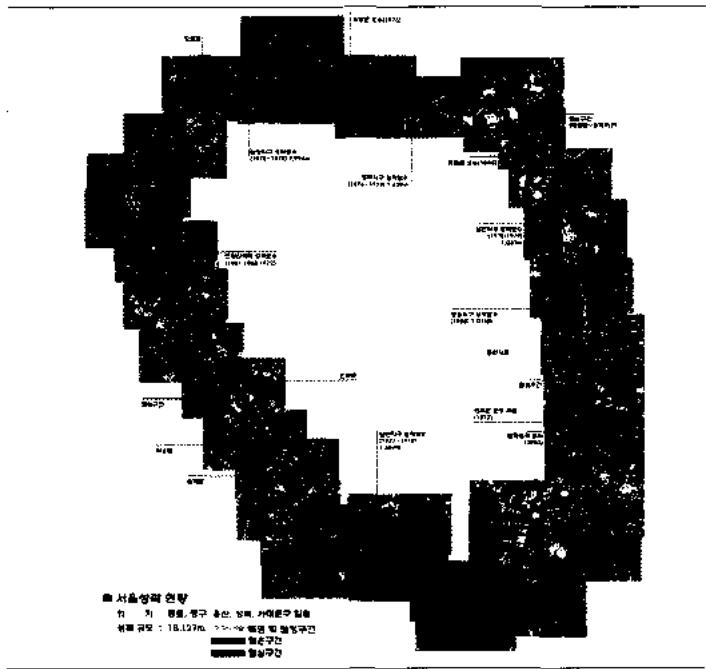
삼국시대부터 이 땅의 대승불교의 맥을 지켜온 역사가 그려하며, 고난의 시기인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큰스님들의 도량이자 본격적인 바구니 스님들의 선 노량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를 기운 공로 또한 거대한 족적이기에 현대 한국 불교의 긍지가 서려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곳이 그리도 중요한 곳인 것을 근간에 속 좁은 승려들에 의해 소박했던 사찰 경내의 구성을 초라하게 생각했었는지, 일주문 안쪽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려 산비탈을 파헤쳐 연못을 만들고(결국엔 다시 메우는 공사로 마무리 되었다), 콘크리트로 법당보다 커 보이는 누각을 세웠으며, 법당 앞에 있었던 옛 건물을 훨어내고 넓은 마당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루미통로를 지나면 높다란 화강석 수직 벽이 숨통을 꽉 막고 서 있어 어찌다 먼 길 찾아온 방문객은 돌벽 앞에서 멈춰서서 크게 한숨 내쉬고서 다시 가파른 계단을 숨차게 올라서야 비로소 법당이 눈에 들어오고, 법당 앞에는 새로 조성한 삼국시대 석탑을 모방한 탑이 섰는데 그 상부의 황금빛 보개가 휘황하니 오히려 눈이 당황하게 되고, 고즈넉하고 아담했던 절의 중심마당은 앞섶을 풀어해진 듯 저 멀리 산 밑 동리까지 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한국 전통사찰의 특징적인 공간구성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만공스님이 다시 이곳을 들르신다면 기뻐하실까? 또한 조선시대의 건축물도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초토화되는 고난을 겪고 다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기에 조선의 전반기, 다시 말해 임란 이전의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의 목조문화재는 임란 이후의 건물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말살한 일제의 만행으로, 19세기 말 까지 거의 운전히 남아있던 서울의 5대 궁궐과 한양의 성곽과 도성문이 일부만 남기고는 대부분 강제로 철해 되었으니 아쉽기 짙어 없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건국 2년 만에 겪은 6.25의 참담함은 그나마 남아있던 많은 전통 목조문화재를 파괴해 버렸고, 궁궐 전각 안에 많았을 기구와 짐기들은 아주 극소수의 것만 남아 남아있는 궁궐 전각들도 대부분이 껍데기뿐이니 오백년 왕궁(황궁)의 흔적은 짐작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장안의 크고 작은 사대부들의 제택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서울의 경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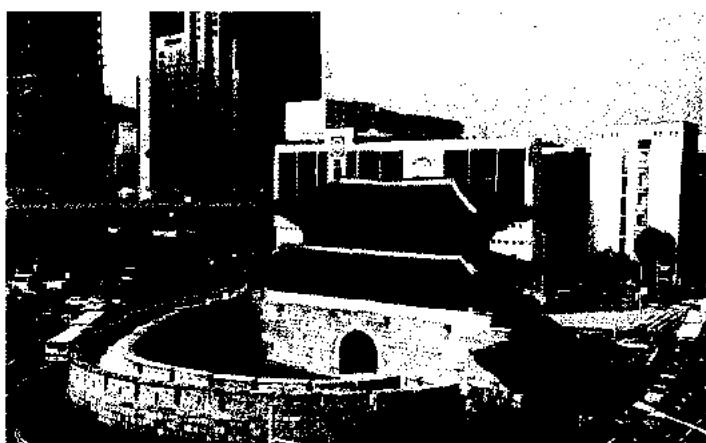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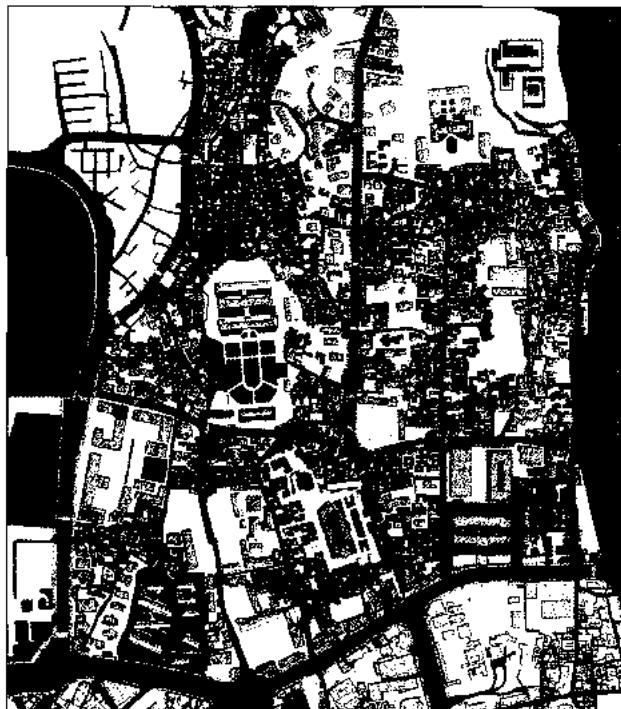


(그림 3) 90년대 초반과 오늘의 수덕사 모습 (김자영)





■ 서울성곽 현황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송현동, 성북구 카이로우 일대
면적 규모 : 18.127ha
설계 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자 : 김경수



(그림 4) 서울성곽 현황과 동대문 전경



(그림 5) 북촌 현황 배치와 모습 (자료출처 :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필자촬영)

릉 골짜기로 옮겨 국민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규설대감액이 거의 유일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결국 경제 원리로 인하여 대부분 철거되거나 변형되어 옮겨지고 소위 신식건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틈바귀에서 북촌 한옥이 주민들의 주도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여 걸모습만이라도 살아남은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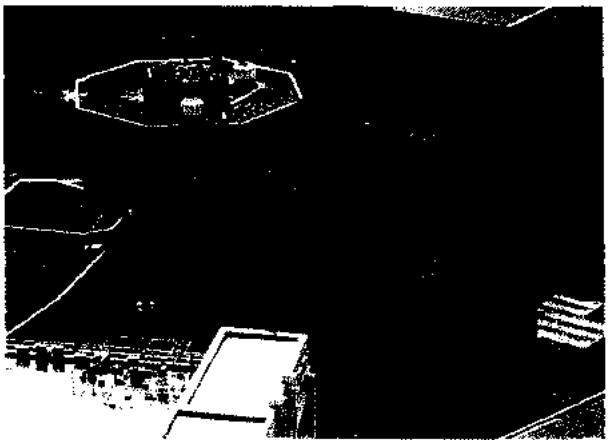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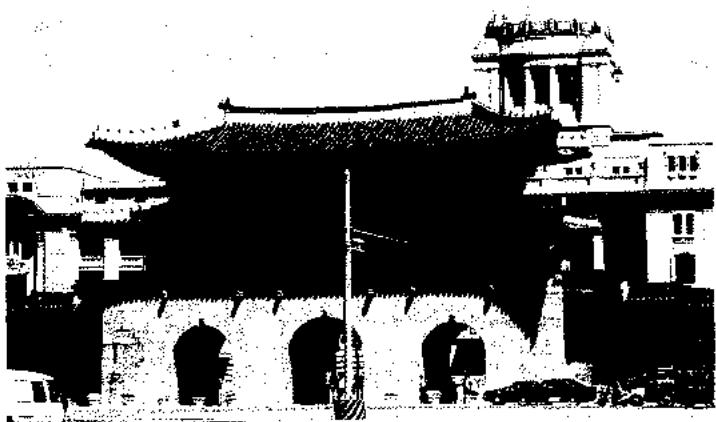
그렇다면 역사적 혼란기인 개화기부터 일제 식민시대의 유물증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근대건축문화재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통 근대건축문화재라 부르는 대상은 실은 건조물문화재 중 편의상 부르는 분류다. 다시 말하자면 이를 또한 궁궐이나 불 탄 승례문처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로 다루어지는 건축물 중에서 건립연대가 19세기 말부터 역사적 문화적 자주성을 잃어버린 시기의 건축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건축물, 즉 개화기에서 일제시기에 지어지고 그 기법이 우리의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이 아닌 것을 지칭한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지어진 신식 관공서 혹은 상업건물이거나, 일본인들 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들어와 그 영향권을 넓혀가던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종교건물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우리의 현대

건축 도입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기에 건축문화를 이야기 하자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부분의 기본적인 건축구조는 서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일본인들을 거치며 일본 열도 안에 세워진 건축물들과 유사하지만 왜소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서양건축문화의 본 고장인 유럽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대건축문화재를 국가차원의 보물이라 한다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너무나 빈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주요 건축물,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이나 로마의 베드로대성당 등은 모두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기술자가 총 동원된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공들여 깎듯이 돌과 벽돌과 나무 등 건물 재료를 다듬고 거기에 최고의 미술가와 조각가의 솜씨가 보태어져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비할 바 못되지만 굳이 이 땅의 근대 건축물 중 제일을 꼽으라면 어쩔 수 없이 이미 헐어버린 구 총독부 건물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 건물은 조선 제일의 궁궐을 훼손하며 서 있었으니 언감생심 살려 남겨둘 수 없었고, 건물 자체도 철거과정에서 알려진 바로는 빈약한 콘크리트 뼈대 등 별로 대단할 것도



(그림 6) 궁화문 뒤쪽의 조선총독부 건물과 성공회성당 도승

없는 건물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은 명동성당, 구 서울역사, 구 한국은행본관, 구 제일은행 본점 쯤 될 것이다. 이들과 비슷한 반열에 들 만한 다른 건물로는 너무나 많이 훼손된 신세계백화점 구관과 광통관, 아예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겨 앉은 구 벨기이영사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또한 궁궐 안에 있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덕수궁 내의 석조전과 서별관, 지금은 덕수궁 담 밖에 떨어져 골목 속에 숨어있는 중명전이 원래 있었던 주위의 적지 않은 전각들—만희당, 흠흥당, 장기당, 양복당과 경효당, 수풍당과 정이당, 그리고 강태실, 환벽정 등—이 있었던 구역이었으나 일제 때 모두 헐리고 종명전 혼자만 남아 국치의 현장이었던 역사성마저 잊은 채 한 때는 사유화되어 온통 망가진 것이 근래에 다시 서울시가 사들여 외톨이로 남겨졌다. 또 이를 중 비교적 좋은 석조건물로 성공회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유럽인들의 충실히 기록 보존의 혜택으로 건립 초기 일부만 지어져 사용되었던 것을 처음 설계도에 의해 충실히 완성된 예로, 유럽인에 의한 설계가 일본인들이 설계한 다른 건물과는 역시 그 격이 다를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또 요즈음 많은 구설어 오르내리는 서울시 청사가 있다.

일제가 당시 경성부 건물로 한성의 한복판, 덕수궁 쪽 앞에 지은 이 건물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놀로 된 석조건물로 오해하고 있는 콘크리트 업무용 건물이다. 아울러 이 건물은 헐린 구 총독부 건물과 함께 무식한 신문기자들이 아무렇게나 붙여준 서양의 무슨 무슨식 건물과는 동떨어진 그냥 그 당시 신식 관청건물을 뿐으로 당시 시민 통치의 기념물 같은 건물이어서 입이 쓴 건물이다. 그러나 이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건물들은 우리 현대건축의 시발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 한국건축사의 중요한 보물로 지켜져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건축문화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의 근대건축문화재들은 현실적인 이해와 맞물릴 때 어이없이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말살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 기습적으로 헐어버린 옛 국도극장 건물이 좋은 예로 기억된다.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경우는 명동의 옛 국립극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일이다. 이 건물은 그 내부가 이미 완전히 훼손되었지만 이 땅이 암울했던 일제 때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장소이고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이와는 다른 역사적 문화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긍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승례문은 태조 5년인 1396년에 만든 것이 2년 뒤 크게 고쳤고, 세종 30년인 1448년에 다시 고쳐지는 것이 그간의 숫한 전란을 겪으며 버텨오다가 한국병합 초기에 총독부에 의해 서울성곽이 철거되면서 도로 속의 섬처럼 남게 되었다. 화재로 훼손되기 직전의 승례문은 1961년부터 1963년에 걸쳐 완전히 해체하여 정밀실측 도면을 작성하고 많은 부분 새 자재로 보충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승례문은 조선 초에 건립된 목조건축물이 지금 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왔기 때문에 국보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쉼 없이 손질 되었지만 조선 초의 우리 전통건축문화의 보술을 지켜왔기에 한국전통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보 1호의 자리를 누려왔던 것이다. 이는 “이조 백자가 깨어진 것을 접차저로 불여놓아도 국보나”는 식의 망발을 하는 것은 건축물의 특성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바람 잡는 언론의 횡포일 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곱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전통건축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서울시내에 즐비하던 한옥들이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지 않은 건물들이 경제논리로 하루 밤 사이에 뭉개져 버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백제의 옛 도읍지로 지목받고 있는 풍납토성 안의 땅을 몽땅 민간에 팔아먹은 일. 벼짓이 한양 도성 인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 터 안에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을 짓고 궁궐 정문은 엉뚱한 곳에 북원해 놓아 우리의 건축문화에 관심있는 외국인 건축학자라도 올 때면 나도 함께 죄인 된 심정으로 민망하기 짹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화재를 다루어온 모습인 것이다.

더욱이 조선이 건국되어 새 도읍지로 한양을 정해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둘러 5백년 도읍으로 성곽도시 한성이 만들어지면서 세워진 4대문과 4소문 중 으뜸으로 도성의 얼굴이었던 승례문이 활활 타올랐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이사회

제1회 이사회

2010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지정 추진에 관한 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변경에 관한 건, 주요현안 관련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건,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 지원금 회수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기에 관한 건,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안)에 관한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 「건축사동록원」업무대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건, 추대회원 제도 개선에 관한 건, 회관 회의실 사용 및 무상 임대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회원 영입에 관한 건,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건,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주요현안 관련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지정 추진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함.
- 제2호 :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변경에 관한 건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주요현안 관련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4호 :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 지원금 회수에 관한 건
-친환경 사업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소요된 1,500만원은 협회 홍보지 광고료로 대체회수하기로 함.
- 제5호 :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에 관한 건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를 국제 관례에 맞게 통일하기로 하고, 권고(안)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각 시도건축사회로 송부하기로 함.
- 제6호 :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 계획(안)에 관한 건
-차기 이사회 이전까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7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
-차기 이사회 이전까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8호 : 「건축사동록원」업무대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건
-등록원 업무대행을 위해 협회의 기금에서 9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예산(안)을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건축사법 개정(안)중 등록원 부분도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함.
- 제9호 : 추대회원 제도 개선에 관한 건
-추대회원 자격기준(25년 또는 30년)에 따른 전체회원수 대비 추대회원 구성비율을 조사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 제10호 : 회관 회의실 사용 및 무상임대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의 회의실 사용 건은 회관 관리소위원회에서 서울건축사회와 협의하기로 함.
-여성건축가협회 무상 임대 건은 통합분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조정해 나가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회

원 영입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특별회원 대상자: 53명)
- 제2호의안: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사전 수락여부를 국제위원회에서 타진한 후 수여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시행하기로 함.
- 제3호의안: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장양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함.
- 제4호의안: 주요현안 관련 회원 의견수렴에 관한 건
 - 설문조사는 제2안(협회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회장 명의로 시행)으로 하여 회원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협회회관 지하 주차장 바닥 크래에 따른 사공사와 설계감리자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2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제44회 정기총회 의제의 건
 - 제44회 정기총회 의제로 준비된 9개의 안에 동의함.
- 제2호: 회원의견 수렴결과에 따른 총회안 건 상정의 건
 - 회원의견 수렴내용 중 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시.도건축 사회장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제3호: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의 건
 - 원안대로 표기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2009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 2009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을 원안대로 협의 검토하고, 결산 및 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토록 합의함.
- 제2호: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에 관한 건
 - 제3호의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 보완토록 함.
- 제3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추가 검토할 사항과 2009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수입 수정부분을 심의하여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 재경위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제2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청관 개정 검토(안)에 관한 건
 - 청관 개정(안) 제5조의1의 협회 부설기구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바, 해당 조문의 '설치, 운영한다'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협의함.
- 제2호: 현 개정안대로 하는 1안과, 제5조의1을 제2항으로, 제5조의2를 제3항으로 하는 2안을 준비하여, 협회 행정위원회와 논의한 후 이사회와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함.
- 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관 개정(안)이 있을 경우 부칙의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획팀과 논의하여 부칙의 시행시기에 개정되는 각 항을 일일이 열거, 명시 할 수 있도록 협의함.
- 제3호: 공제사업 준비자금 차입(안)에 관한 건

- 차입금액 상환 조건은 "사업개시 이후 2년 기간, 3년 분할 상환"으로 수정할 것을 협의함.

■ 제2회 회관관리소위원회

제2회 회관관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회관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회관관리규정 중 제3조, 제4조 및 제13조를 개정키로 협의함.
- 제2호: 회관 회의실 사용 및 임대관리에 관한 건
 - 회관 회의실 사용 및 임대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함.

▲ 기타사항

- 회관 1층 로비의 교육장 설치검토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단체로써의 이미지와 건축설계 의도가 훼손됨은 물론, 교육장 설비비용 대비 활용도와 예식임대사업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할 때, 현 로비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선거사무 추진일정에 관한 건
 - 본협회 2010년도 감사선거 추진일정을 원안과 같이 추진키로 함.
- 제2호: 선거사무에 관한 건
 - 선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 기타사항

-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논의키로 함.
-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여 개정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에 관한 건
-후보자 피선거권 등록서류 검수 등 감사선거 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제5회 통합추진위원회

제5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건축사단체 통합에 관한 죄단회 개최에 관한 사항 중 진행순서, 죄단회 좌석배치, 논의 내용 및 배부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

■제6회 통합추진위원회

제6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협회 주요 현안에 관한 회원 의견 중간 집계 결과 전체 회원의 40% 육박하는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것은 협회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며, 특히 건축사단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 전체 회원의 4분의 3 이상인 76% 정도가 찬성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임.

최종 집계 이후에 단체통합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할지 여부는 이사회 판단에 맡길 것이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 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2월 9일(화) 13시 30분에 갖기로 하고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또한, 정관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들 각자가 수정할 사항들을 사전 검토기로 함.
▷ 최종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의견 개진 방향
▷ 정관개정 방향

▷ 제2회 이사회(10.2.10)에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제6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

제6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가 지난 2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43회 정기총회(09.2.25) 상정안과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09.11.3) 상정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10.1.11)의 협의결과에 따라 작성된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변경안과 오늘 논의된 정관개정 변경안에 대하여 오늘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동의 하였고, 이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하여 서명 하였음.

■제7회 통합추진위원회

제7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협회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10.2.8일 통합추진대표위원회들이 합의한 '정관개정 변경안' 및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변경안'을 제2회 이사회(10.2.10)에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대표로 위원장이 서명하였음.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각 위원회 사업 조율 및 지원에 관한 건
-각 위원회 또는 협회는 연구용역에 대해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 있는 적용방안을 도출할 것을 건의

• 제2호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에 대한 제안 의견 검토와 추진 방안에 관한 건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건축사의 업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제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임.

• 제3호 : 건축사 직능 개선(안)/LEED Architect 등의 대처에 관한 건

-국내에서도 LEED AP(Accredited Professional), GA에 대응할 친환경 건축 설계전문가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노력이 시급함.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교부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올해 1월 8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 최종합격자는 454명으로 남성 373명(82.2%), 여성 81명(17.8%)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늘 이 기까지 여러분들이 쏟은 노력과 열정에 대해 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여러분들의 능력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건축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강연회와 함께 정부로부터 친환경 건축인력 양성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작년부터 친환경건축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협회는 장기적으로 전 건축물이 친환경건축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회원 대상 최초 ‘주요정책 현안 설문’ 실시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시·도건축사회 주관으로 협회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자·감리자 분리 문제,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 부활 문제,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법인화 문제, 건축사단체 일원화 문제(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 등 4가지로 전체 회원수 7,945명 중 3,300명이 참여해 41.54%의 응답률을 보였다.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응답현황은 〈표1〉과 〈표2〉와 같다.

〈표1〉 현안별 응답현황

주요 현안	찬성	반대	무응답	참여회원
1.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자·감리자 분리 문제	1,686명	1,611명	3명	3,297명(찬성을 51.09%)
2.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 부활 문제	2,272명	1,919명	9명	3,291명(찬성을 68.85%)
3.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법인화 문제	1,610명	1,653명	37명	3,263명(찬성을 48.79%)
4. 건축사단체 일원화 문제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	2,524명	764명	12명	3,288명(찬성을 76.48%)

〈표2〉 시도건축사회별 설문결과

구분	설계감리분리				등록기준 부활				법인대형화 문제				단체통합				참여 회원	회원수	응답률
	찬성	반대	무응답	찬성률	찬성	반대	무응답	찬성률	찬성	반대	무응답	찬성률	찬성	반대	무응답	찬성률			
서울	253	454	0	35.79%	508	195	4	71.85%	314	386	7	44.41%	551	151	5	77.93%	707	2,369	29.84%
부산	78	154	0	33.62%	148	84	0	63.79%	87	144	1	37.50%	145	87	0	62.50%	232	670	34.63%
대구	227	136	0	62.53%	222	139	2	61.16%	165	192	6	45.45%	295	67	1	81.27%	363	592	61.32%
인천	95	39	1	70.37%	71	63	1	52.59%	63	70	2	46.67%	87	47	1	64.44%	135	325	41.54%
광주	49	117	1	29.34%	114	52	1	68.26%	126	40	1	75.45%	139	28	0	83.23%	167	264	63.26%
대전	53	44	0	54.64%	72	25	0	74.23%	49	48	0	50.52%	62	35	0	63.92%	97	333	29.13%
울산	29	55	0	34.59%	58	26	0	69.05%	46	35	3	54.76%	73	9	2	86.90%	84	213	39.44%
경기	431	141	0	75.35%	428	144	0	74.83%	305	263	4	53.92%	425	147	0	74.30%	572	983	58.19%
강원	33	25	0	56.90%	39	19	0	67.24%	29	29	0	50.00%	37	20	1	68.79%	58	204	28.43%
충북	0	0	0	0.00%	0	0	0	0.00%	0	0	0	0.00%	0	0	0	0.00%	0	269	0.00%
충남	109	62	0	63.74%	118	53	0	69.01%	95	75	1	55.56%	141	30	0	82.46%	171	289	59.17%
전북	75	102	0	42.37%	112	65	0	63.28%	82	95	0	46.33%	143	33	1	80.79%	177	274	64.60%
전남	94	45	0	67.63%	111	28	0	79.86%	55	79	5	39.57%	126	13	0	90.65%	139	207	67.15%
경북	81	89	0	47.65%	109	61	0	64.12%	85	82	3	50.00%	134	35	1	78.82%	170	397	42.82%
경남	56	109	1	33.73%	121	45	0	72.89%	79	86	1	47.59%	118	48	0	71.08%	166	438	37.90%
제주	23	39	0	37.10%	41	20	1	66.13%	30	29	3	48.39%	48	14	0	77.42%	62	118	52.54%
합계	1,686	1,611	3	51.09%	2,272	1,019	9	68.85%	1,610	1,653	37	48.79%	2,524	764	12	76.48%	3,300	7,945	41.54%

한편, 우리 협회는 열악한 건축환경을 극복하고 건축사들의 위상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공제사업 관련안과 건축사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불합리한 발주제도의 개선,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을 전문가인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비롯하여 건축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록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 건축사가 친환경 전문가로 자격을 갖출과 동시에 협회가 친환경 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고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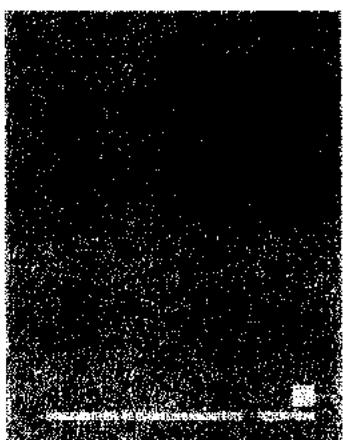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지역별 최종합격자를 대표한 16명이 최영집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0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54명 명단, 본지 통권 489호(2010년 1월호) 92페이지 참조)

우리 협회, (주)이나우스아카데미와 MOU 체결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28일 (주)이나우스아카데미(이하 이나우스)와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부위탁훈련인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및 단기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이나우스는 훈련생 모집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단체는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 홍보 방안,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우리 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 보급하고 있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회원 및 학생에 한하여 3만 5천원에 판매

하고 있다. 본 작품집은 한정판으로 조기 매진이 예상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글로벌건축 최고위 과정 제 6기 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제6기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 4(목)부터 6월 17일까지 16주간 이뤄지며, 지원 자격은 건축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면 된다. 교육시간은 1일 3시간(18:30~21:30)이다.

교육장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약간의 인원을 모집한다. 교육신청은 서울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 팝업창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서울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587-7063, 글로벌건축 최고위 과정 카페 : cafe.naver.com/globalarch.cafe

광주건축사회,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 가져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정철)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거노인 집고치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통한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와 '우리 사회의 위상과 권익신장 발판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청 후원과 (주)토방하우징 협찬

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봉사활동 대상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 323-3번지와 337-2번지 두 건물의 지붕개량과 창호 및 도배 공사로서 약 30여명이 참가해 봉사의 기쁨을 함께했다.

전북건축사회, 온정의 손길 봉사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1월 1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관내 저소득 세대를 직접 방문, 200만원 상당의 난방용 유류(상품권)를 전달했다.

전북건축사회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랑 나눔을 실천, 전문 자격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해마다 사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계소식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 서울에서 개최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 (2010 UIFA/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 가오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는 2008년에 부산의 아카시아대회에 이어 건축계에서는 국제대회가 두 번째, 세계대회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행사가 여성건축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건축인들의 축제로, 서울의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홍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후원을 기대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0 세계여성건축가대회'는 'Green Environment'라는 주제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건축가들의 역할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세계 여성건축가들의 단합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여성건축가의 역할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수건축을 시찰의 체험적 교육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세계여성건축가대회는 1963년 프랑스 건축가인 Solange d' Herbes de la Tour 에 의해 창립된 80여 개국의 여성건축가들의 연합이며, 오늘날 UIFA의 목표는 국가적 경계선을 넘어 건축, 도시계획, 환경디자인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여성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건축, 도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문가적 역량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계

여성건축가대회는 1963년 Paris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차의 대회가 개최됐다.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 제 1기 모집

간향미디어랩(대표 전진삼)은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을 개설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졸업 전, 현장의 정보전달과 예비 저널리스트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확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간향건축 저널리즘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9개월, 총 15회 워크숍)이며, 모집인원은 10인 이내이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월)부터 3월 6일(토)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네이버 카페 'AQkorea' 게시판 발표 및 개별 통지)이다.

• 워크숍 프로그램 개요

- 3월 27일: 1강_입교식 및 강의(저널리즘 세미나 1)
- 4월 24일: 1강_강의(인문교양 세미나)
- 5월 22일: 1강_강의(기초취재실습 1)
- 6월 26일: 1강_강의(기초취재실습 2)
- 7월 8일/ 15일/ 22일/ 29일: 4강_강의 및 실습(현대건축세미나 및 현장실습 1)
- 8월 5일/ 12일/ 19일/ 26일: 4강_강의 및 실습(현대건축세미나 및 현장실습 2)
- 9월 18일: 1강_강의(사회교양 세미나)
- 10월 16일: 1강_강의(저널리즘 세미나 2)
- 11월 20일: 1강_과정종합보고회 및 수료식

• 문의 : 간향미디어랩 02-2235-1960, widear@naver.com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 제2차 추천작 발표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는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2009~2010년도)의 제2차 추천작이 선정됐다.

추천작은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건축가의 정체성, 김소연作」과 「The World after the Eden, 박성용作」,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의 도시건축 1960-74, 서정 일作」 등 총 3편이다. 운영위원회는 1, 2차 추천작을 중심으로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통해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

그램을 지원하고, 그 가운데 매년 1편을 당선작으로 선정, 시상하게 된다. 당선작은 추후 5월 15일 격월간 건축리포트「와이드」誌 2010년 5~6월호 지면에 발표와 함께 개별통지되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상패 및 상금 500만원과 단행본 출간 및 인세가 지급된다.

'심원문화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한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의 인연을 회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로서 첫 번째 후원 사업으로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 문의 : 02-2235-1960

'공간' 전시회_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



공간 500호를 기념해 공간이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장소의 기록, 기억의 재현'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열린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1960~1980년 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소와 도시의 기억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전시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설 연휴 휴무)까지이다. 공간사옥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전시되며, 참여 작가에는 강홍구, 김도균, 김용관, 박완순, 안성석, 이예린, 한성필 등이다.

• 문의 : 공간 02-3670-3639, www.vmspace.com

제25회 건축사진아카데미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 2010년 3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12주간 건축사진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건축사진 아카데미는 아니로그 방식의 활영법과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방법 그리고 자신들의 건축작품을 표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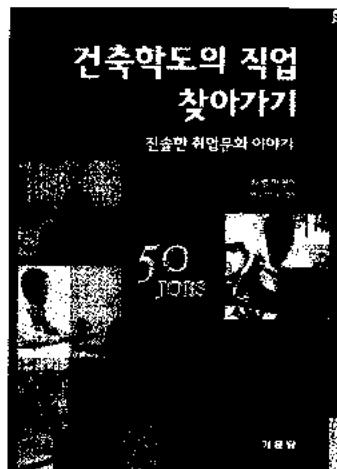
- 시간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이론강의/토요일은 과제 진행과 실습
- 장소 :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06-2 청암빌딩 1층)
강남스튜디오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22(신회빌딩 B1)
- 일정
 - 1주차 : 오리엔테이션-건축을 보는 눈/건축사진의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
 - 2주차 : 카메라의 종류와 사용법/건축사진에서 필요한 카메라알기
 - 3주차 : Digital Camera의 기본적인 사용법/과제 : 각자 카메라로 표현하기(주제파악)
 - 4주차 : 과제에 대한 평과/디지털카메라 Raw파일 사용과 응용 프로세스
 - 5주차 : 건축모형에 대한 이해와 촬영방법/당일 모형 촬영/촬영 결과물 평과 및 보완/토요일 경기도 여주답사
 - 6주차 : 디지털 카메라를 위한 포토샵 활용(Photoshop setting, Image adjustment)/토요일 출사/서울시내 현대건축
 - 7주차 : 3~6주차에 진행한 결과물에 대한 중간평과와 카메라사용에 대한 보충설명
 - 8주차 : 전통건축 or 현대건축 공간에 대한 이해/주말 출사 - 전통건축
 - 9주차 : 주말 출사 - 현대건축 실습촬영
 - 10주차 : 8~9주차에 대한 평과 및 포트폴리오 만들기
 - 11주차 : Portfolio 만들기
 - 12주차 : Presentation과 총평
- 문의 : 02-444-7088

바로잡습니다

본지 12월 호의 25~31쪽에 된 회원작품의 「현동 도요타 자동차자동차복합건물」의 설계자가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로만 기재되었으나, 당 건축물은 컨셉단계에서 미국 LA의 'DRDS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의 요청에 따라 설계사를 '(주)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DRDS Architecture'로 바로잡습니다.

신간안내

건축학도의 직업 찾아가기



이기라시 타로 저, 최병하 편역 | 256쪽 |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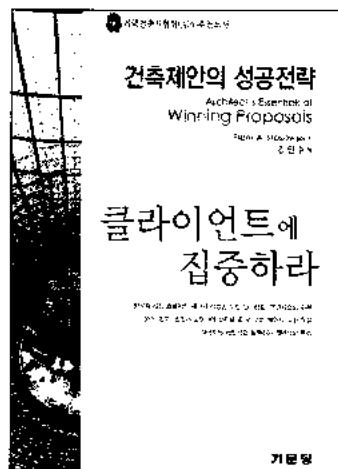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랫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갖기를 바란다. 졸업생들에게 직업과 직장은 사회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 책에서 저자 이기라시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직종 중에 몇몇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는 부문도 있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직종과 자질은 자연스럽게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학하는 건축학도들은 건축을 배움으로써 얼마만큼 다양한 업종이 기다리고 있는지, 건축이 얼마나 넓고 할 일도 많은지, 그리고 취업의 범위를 얼마만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미리 취업준비의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5

건축제안의 성공전략 – 클라이언트에 집중하라



Frank A. Stasiowski 저, 강인수 역
| 254쪽 | 기문당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용역제안서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디자인이 수반되지 않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브리핑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걸친 전 제안과정에서 건축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팁과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주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단순한 가격제안에서부터 현상설계, 텐키설계에 이르는 다양한 수주활동이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고 설득하는 '제안'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유익하다.

• 문의 : 02-2295-6171~5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통계
statistics

2009년 건축허가 현황(12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용도별

구 분	당월(12월)			누계(1~12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9,455	21,106	8.5%	229,352	212,347	-7.4%
	연면적	15,099,789	21,551,008	42.7%	120,657,768	105,137,022	-12.9%
주거용	동 수	5,942	7,698	29.6%	76,357	72,891	-4.5%
	연면적	7,814,324	14,711,344	88.3%	38,462,009	41,917,425	9.0%
상업용	동 수	5,731	5,884	2.7%	71,752	63,776	-11.1%
	연면적	2,555,410	2,405,524	-5.9%	33,265,143	24,398,535	-26.7%
공업용	동 수	1,994	2,011	0.9%	23,732	19,407	-18.2%
	연면적	1,502,151	1,435,155	-4.5%	18,503,530	11,542,240	-37.6%
교육 및 사회용	동 수	1,405	1,489	6.0%	14,146	14,784	4.5%
	연면적	1,147,918	1,225,375	6.7%	13,588,013	11,261,530	-17.1%
기 타	동 수	4,383	4,024	-8.2%	43,365	41,489	-4.3%
	연면적	2,079,986	1,773,610	-14.7%	16,839,073	16,017,292	-4.9%

■ 구조별

구 分	당월(12월)			누계(1~12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9,455	21,106	8.5%	229,352	212,347	-7.4%
	연면적	15,099,789	21,551,008	42.7%	120,657,768	105,137,022	-12.9%
철근	동 수	16,771	18,291	9.1%	194,265	178,182	-8.3%
철골조	동 수	14,908,302	21,324,362	43.0%	117,843,237	102,487,236	-13.0%
조적조	동 수	1,780	1,569	-11.9%	24,156	22,225	-8.0%
	연면적	127,846	132,650	3.8%	1,949,745	1,755,057	-10.0%
목 조	동 수	878	1,115	27.0%	10,184	11,022	8.2%
	연면적	60,991	87,767	43.9%	819,134	839,046	2.4%
기 타	동 수	26	131	0.0%	747	918	0.0%
	연면적	2,650	6,229	0.0%	45,652	55,683	0.0%

■ 시도별

구 分	당월(12월)			누계(1~12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9,455	21,106	8.5%	229,352	212,347	-7.4%
	연면적	15,099,789	21,551,008	42.7%	120,657,768	105,137,022	-12.9%
수도권	동 수	6,771	7,626	12.6%	82,416	68,600	-16.8%
	연면적	6,911,361	13,598,667	96.8%	57,497,034	52,568,063	-8.6%
서울	동 수	776	1,309	68.7%	13,786	10,606	-23.1%
	연면적	1,388,708	1,667,957	20.1%	15,591,646	9,014,552	-42.2%
인천	동 수	1,037	800	-22.9%	8,556	7,687	-10.2%
	연면적	1,142,962	2,224,254	94.6%	5,917,119	5,976,123	1.0%
경기	동 수	4,958	5,517	11.3%	60,074	50,307	-16.3%
	연면적	4,379,691	9,706,457	121.6%	35,988,269	37,577,389	4.4%
제주	동 수	12,684	13,480	6.3%	146,936	143,747	-2.2%
	연면적	8,188,428	7,952,341	-2.9%	63,160,734	52,568,959	-16.8%
부산	동 수	534	618	15.7%	6,043	5,575	-7.7%
	연면적	369,668	491,596	33.0%	3,746,054	3,178,603	-15.1%
대구	동 수	365	521	42.7%	5,150	4,586	-11.0%
	연면적	390,800	746,840	91.1%	3,314,142	2,840,146	-14.3%
광주	동 수	277	356	28.5%	3,541	3,325	-6.1%
	연면적	259,512	482,758	86.0%	2,313,491	2,252,342	-2.6%
대전	동 수	490	313	-36.1%	3,973	3,415	-14.0%
	연면적	1,545,336	252,955	-83.6%	5,158,120	1,850,221	-64.1%
울산	동 수	359	502	39.8%	4,921	4,348	-11.6%
	연면적	167,938	664,302	295.6%	3,377,559	2,328,007	-31.1%
강원	동 수	1,155	1,223	5.9%	13,976	13,820	-1.1%
	연면적	559,393	555,366	-0.7%	4,163,090	4,351,244	4.5%
충북	동 수	1,013	1,360	34.3%	13,563	13,239	-2.4%
	연면적	536,938	832,606	55.1%	5,198,676	5,048,666	-2.9%
충남	동 수	1,641	1,614	-1.6%	17,482	16,012	-8.4%
	연면적	1,394,576	1,156,021	-17.1%	8,533,277	7,203,977	-15.6%
전북	동 수	1,134	1,153	1.7%	13,712	13,715	0.0%
	연면적	327,145	626,726	91.6%	4,298,256	4,577,648	6.5%
전남	동 수	1,598	1,668	4.4%	16,307	18,344	12.5%
	연면적	528,680	651,703	23.3%	4,116,677	4,321,152	5.0%
경북	동 수	1,765	2,004	13.5%	22,224	22,670	2.0%
	연면적	819,432	740,652	-9.6%	7,395,511	6,381,599	-13.7%
경남	동 수	1,867	1,782	-4.6%	22,056	20,698	-6.2%
	연면적	1,092,556	596,701	-45.4%	9,991,885	6,808,728	-31.9%
제주	동 수	486	366	-24.7%	3,988	4,000	0.3%
	연면적	196,454	154,115	-21.6%	1,553,996	1,426,626	-8.2%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9년 12월말

구 분 전체 서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회원수 사무소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14인	15인	16인	17인	18인	19인	19인	2,579	7,306	8,039
합계	5,120	5,120	110	220	10	30	5,330	5,460	1,610	1,610	257	514	57	171	24	96	28	188	1,976	2,579	7	7,306	8,039
서울	889	899	30	60	3	9	932	968	871	871	149	236	37	111	12	48	15	93	1,084	1,421	6	2,016	2,389
부산	465	465	18	36	2	6	485	507	94	94	19	38	3	9	0	0	3	26	119	167		604	674
대구	415	415	21	42	4	12	440	469	58	58	20	40	3	9	2	8	2	10	85	125		525	594
인천	258	258	3	6	0	0	251	264	55	55	8	16	0	0	1	4	0	0	64	75		325	339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41	41	5	10	2	6	3	12	0	0	51	69		252	271
대전	234	234	7	14	1	3	242	251	35	35	8	16	4	12	2	8	1	17	50	88		292	339
울산	175	175	6	12	0	0	181	187	20	20	1	2	1	3	0	0	0	0	22	25		203	212
경기	718	718	3	6	0	0	721	724	23	23	21	42	2	6	0	0	3	15	257	294		978	1,018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7	27	2	4	0	0	0	0	1	5	30	36		200	208
충북	189	189	4	8	0	0	203	207	30	30	4	8	0	0	2	8	2	16	38	62		241	269
충남	220	220	1	2	0	0	221	222	44	44	5	10	1	3	2	8	0	0	52	65		273	287
전북	239	239	4	8	0	0	243	247	20	20	3	6	2	6	0	0	0	0	25	32		268	279
전남	180	180	0	0	0	0	180	180	16	16	2	4	0	0	0	0	1	6	19	26		199	206
경북	344	344	4	8	0	0	348	352	34	34	4	8	1	3	0	0	0	0	39	45	1	387	397
경남	390	390	6	12	0	0	396	402	25	25	5	10	0	0	0	0	0	0	30	35		426	437
제주	106	106	0	0	0	0	106	106	9	9	1	2	1	3	0	0	0	0	11	14		117	120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원수				비율	회원수 회원수
	개인	2인	3인	4인		
합 계	8,039	10			100.0%	23
서 울	2,389	3			33.9%	10
부 산	674	1			7.9%	9
대 구	594	0			7.7%	0
인 천	339	0			3.8%	0
광 주	271	0			3.7%	0
대 전	339	1			3.7%	0
울 산	212	0			2.6%	0
경 기	1,018	2			12.2%	2
강 원	208	0			2.6%	0
충 북	269	0			3.0%	0
충 남	287	3			3.1%	0
전 북	279	0			3.0%	0
전 남	206	0			1.9%	0
경 북	397	0			4.6%	1
경 남	437	0			5.0%	1
제 주	120	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율
회원 수	5,460	2,579	86	8,039	
비 율	67.92%	32.08%	1.08%	100%	
사무소수	5,330	1,976	-	7,306	
비 율	72.95%	27.05%	-	100%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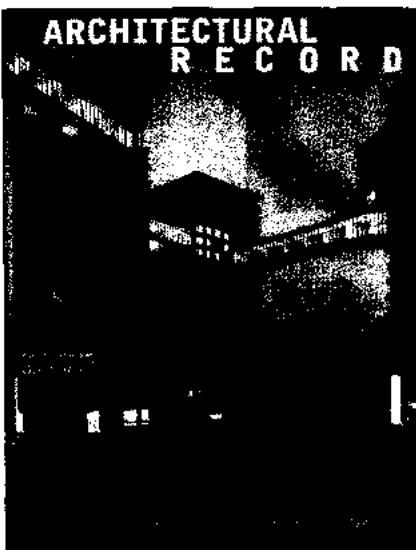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新建築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Steven Holl Architects의 Linked Hybrid, Coop Himmelb(l)au의 High School #9, 그리고 Toyo Ito & Associates의 National Stadium을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호에서는 'Building Type Study' 섹션에서는 'Schools of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교육관련 제품들의 소개 및 Schwarts/Silver Architects의 Jeremiah E. Burke High School, Johnson Fain의 Roy Romer Middle School, Hickok Cole의 Latin American Montessori Bilingual Public Charter School, Allied Works의 Booker T. Washington High School, Ehrenkrantz Eckstut & Kuhn의 PS 59-The Beekman Hill International School, Orcutt Winslow의 Phoenix Union Bioscience High School, 그리고 Cunningham Group의 Washinton Technology Magnet Middle School와 같은 중, 고등학교 건축 디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Books 섹션에서는 'Vertical Reading'이라는 주제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Judith Dupré & Adrian Smith의 'Skyscrapers: A History of the World's Most Extraordinary

Buildings' 와 Antonino Terranova & Gianpaola Sporito의 'New Urban Giants: The Ultimate Skyscraper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Books

Skyscrapers: A History of the World's Most Extraordinary Buildings:
by Judith Dupré & Adrian Smith,
Black Dog and Leventhal Publishers,
2008

New Urban Giants: The Ultimate Skyscrapers: by Antonino Terranova & Gianpaola Sporito, White Star, 2008

"Shelf-scraper"는 Judith Dupré의 베스트셀러인 'A History of the World's Most Extraordinary Buildings'에 불여진 가장 적절한 용어다. 1996년 초판이 발행된 이 책은 현재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개정판으로 세로 45.7cm, 가로길이 17.7cm로 이탈리아 보마대학 출신 작가들, Antonino Terranova와 Gianpaola Sporito가 쓴 세로길이 38.1cm인 'New Urban Giants: The Ultimate Skyscrapers'보다 더 세로로 긴 형태를 하고 있다. Dupré의 책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인쇄하여 그 역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1980년대, 90년대의 고층건물을 보면서 현재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초고층건물들이 들어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 책의 컨셉과 볼륨으로 덕분에 원쪽 페이지는 이 책에 소개된 61개 초고층건물의 완전한 사진이 실려 있으며 각 사진에는 'Ancient Root', 'Material and Technology'와 같은 주제로 간단하고 지적인 작가의 글이 실려있다. Foster의 "erotic gherkin"으로부터 Calatrava의 "Turning Torso", 그리고 SOM의 "Burj Dubai"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이 책에서 현재 가장 관심사인 초고층 빌딩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건축까지 다루고 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의 요약된 내용이 흑백으로 인쇄된 흐릿하게 프린트된 이미지 위에 쓰여 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New Urban Giants : The

'Ultimate Skyscrapers'는 Dupré의 형식이 컬러로 인쇄된 듯한 멋진 책으로 이 책에 소개된 32개의 초고층빌딩은 모두 오른쪽에 이미지가 실려있다. 이탈리아의 White Star 사가 떠 낸 이 책에서 다룬 건물들은 상당히 국제적이다. 1/3은 유럽의 건물, 1/3은 중국의 건물, 나머지는 미국의 4개 건물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지어진 건물들을 다루고 있다. 유명하지는 않으나 1996년에 지어진 비교적 높았던 건물인 중국의 Shenzhen에 있는 Shung Hing Square이 첫 예로 나온다. 엄격한 법률과 전통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유럽의 건물은 매우 작다. 이 책에 소개된 Vienna Twin Towers, Barcelona의 Torre Agbar, 그리고 Paris La Defense에 있는 Tour EDF가 150m 이하의 건물이다. 2004년에 완공된 509m의 Taipei101은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큰 건물로 되어 있고 엄청난 Burj Dubai는 2008년 가을에 완공될 건물로 160개 층으로 되어 있어 Taipei101보다도 300m나 높다. 이 책은 지어진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건물은 네 페이지 이상 드로잉, 단면도, 내부 사진, 그리고 평면도도 보여주고 있고 각 건물의 사진들은 잘 선택되어져 있으며 프린팅한 상태도 매우 좋다. 그러나 본문체가 가늘어서 역시 앞서 소개한 책과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Building Types Study—Schools of the 21st Century

Jeremiah E. Burke High School, Massachusetts/Schwartz/Silver Architects

Boston의 Dorchester에 위치하고 있는 Jeremiah E. Burke High School의 리노베이션은 Thomas M. Menino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전 몇 년간 진행해오던 것을 모두 백지화했다. 이제 업데이트하고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 근처의 분관과 같은 도서관과 프로그램을 결합하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했던 Boston시는 Boston에 기반을 둔 Schwartz/Silver Architects



Jeremiah E. Burke High School

에게 커뮤니티 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1934년에 지어진 이 학교를 리노베이션하고 확장하는 이 작업을 일임하였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시장이 연원했던 '공공 교육 지계'를 구현하기 위한 시설이 완성되었고 이어서 교육과 교양이 도시 전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Boston Center의 협력으로 Youth&Families, Boston Public School, 그리고 Bonston Public Library로 확장되어 갔다. 자동차 정비소와 빈 주차장이 있는 바위투성이인 이 장소에서 가능성이라는 빛으로 Geneva Avenue에 면해 있는 이 새로운 건물은 놀보인다. 이 지역은 높은 범죄 및 살인율을 언급하면서 "이 곳은 Boston에서도 가장 혐한 곳입니다."라고 건축사 Schwartz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곳엔 아름다운 Art Deco 양식의 이 학교가 있습니다."라고 학교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Schwartz와 Silver는 외부 석조부분을 복구하고 내부와 시그查看全文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카페테리아를 확장시키는 등 아주 아무진 리노베이션을 하였다. 학교 체육관을 최소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여기에는 새로 들어설 건물에 농구장을 만들려는 건축사의 앞선 의도가 숨어있었다. 공공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도로 레벨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운동장은 건물의 맨 위층에 위치하였고 고등학교 도서관은 그 중간에 배치되었다. 프로그램 요소들과의 연결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방과 후에는 그러한 시설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학교에 사로운 건물을 조화롭게 연결시키기 위해 화강석과 벽돌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Schwartz/Silver는 알루미늄으로 된 체육관의 전체 매스를 가

볍게 하기 위해 스틸 프레임으로 된 고층창을 체육관에 설치하였다. 저녁이면 빛이 나는 투명한 불빛은 개방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학교도서관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된 디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층의 공공도서관의 중앙에 있는 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각 도서관은 학교 수업이 끝나 학교 도서관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까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체육관은 옛 건물의 3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체육관은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Schwartz/Silver는 옛 건물과 새 건물이 가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선과 사용과 단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사들은 시장의 공동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Latin American Montessori Bilingual Public Charter School, Washington, D.C./Hickok Cole

2003년 57명의 미취학 아동들로 Washington, D.C.의 난동쪽에 있는 교회의 지하실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Latin American Montessori Bilingual Public Charter School(LAMB)은 유목민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LAMB이 제공하는 교육자인 Maria Montessori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과 더불어 두 개 언어의 집중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6년 동안 4번의



Latin American Montessori Bilingual Public Charter School

이전을 해야했다. 다른 학교와 학기를 공유하거나 이제야 영원한 보금자리가 된 D.C. 근처의 Brightwood에 있는 새롭게 단장한 20세기에 지어진 학교에서 한 학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한 증축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LAMB는 마지막 한 해를 다른 곳에서 보냈다. 방방하듯이 지냈던 스텁과 학생들은 작년 1월 미연방 스타일로 지어진 이 곳으로 돌아왔다. D.C.에 있는 회사인 Hickok Cole은 이제는 랜드마크가 될 이 건물 프로젝트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을 맡았다. 거의 백년 가까이 된 이 건물은 현재 4학년까지 모두 171명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늘어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했으며 교육에 대한 LAMB의 이념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2층 건물 뒤에 건축사는 사무실과 두 개의 교실을 포함한 완전히 벽돌로 된 박스 형태로 된 건물을 지었다. 기존의 건물과 증축된 부분 사이에는 유리창으로 된 동선으로 활용된 직선의 공간을 만들어서 연결하였다. 이 슬롯같이 생긴 공간은 새로운 주 출입구가 되어 건물의 방향을 기존의 복잡한 남쪽을 향한 도로로부터 근처 공원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공간의 배열 역시 이 대지가 가지는 가파른 경사를 고려하게끔 하여 두 개 층에 입구가 설치되었다. 윗층은 플라자로부터 접수처로, 아래층은 골장 지하의 다목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성인과 아동의 스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핸드레일을 가진 계단이 두 개층을 서로 연결한다. 복도에서는 역사적인 벽돌로 된 벽이 왼쪽에 노출되어 새로 지어진 건물의 스텔로

된 기둥과 보와 대조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와같이 보이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Montessori 철학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LAMB의 교장인 Diane Cottman은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구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교육 도구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폭풍우에 대한 누수를 막기 위해 전체 토비를 덙는 녹색 지붕을 설치하였다. 비록 지붕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은 평범하지만 매력이 있다. 이 역사가 깊은 건물 안에서 시공사는 석조벽에 석고반죽을 입혀 수리하였으며 천장에는 목재로 된 패널을 붙여 조명이 새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건물에 있는 교실에는 대단히 천장을 설치하여 천장에서 배관 조직이 부분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으며 넓게 훑힌 창문은 외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

인 Holly Lennihan은 이러한 조용한 환경은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은 그림을 걸기 위해 갤러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Phoenix Union Bioscience High School, Arizona / Orcutt/Winslow

Phoenix의 시의 중앙에 자리잡은 Phoenix Union Bioscience High School은 Ariznona의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다니는 학교로 도시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생명공학 연구와 개발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400명의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분야의 특기자들로 프로젝트나 인턴쉽을 통해 학교 근처의 병원이나 생명공학 연구소를 이용한다. “우리는 교육에 있어 다방면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 사회 안에서의 파트너와의 관계, 학교라는 벽을 넘어 교육을 확대 학교라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교장인 DeeDee Falls는 이야기한다. 직사각형 형태의 이 건물에 있는 15개의 교실은 다양한 수업교육회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결합이 되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한다.

2층과 3층에 있는 반대편 끝에 있는 두배 크기의 교실은 생명윤리와 물리(Phisics)와 대수학(Algebra)가 결합된 ‘Phalgebra’와 같은 팀티칭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교사전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되며 단과대학이나 생체의학 캠퍼스에서나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이나 협업이 강조된다. 학생들의 교육

Phoenix Union Bioscience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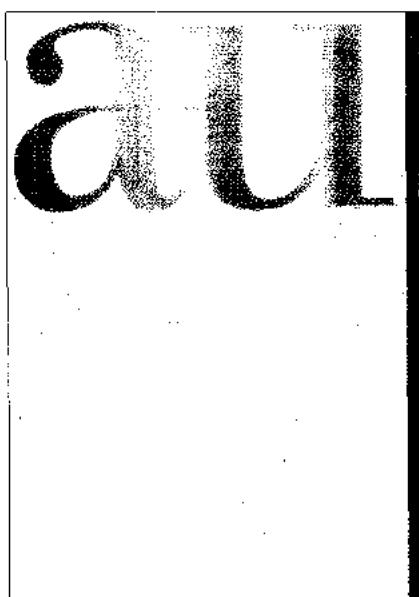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개방되고 유연한 공간은 교실과 복도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일곱 개의 하이테크 연구실에는 생체 의학 관련 시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연구실을 따라서 만든 연구실도 있으며 매연후드, 원심분리기, 그리고 그 외의 매우 전문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바루가 달려 움직이는 키오스크,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카트, 그리고 여러 명이 앉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과 매우 녹립적인 공간은 마치 대학과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철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고 교장은 이야기한다. Orcutt Winslow의 건축사들은 BIM을 사용하여 그들의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우리는 조명스위치로부터 가스 포트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하였다.”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건축사이인 Russ Sanders는 이야기한다. Sonoran 사막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문이 없는 콘크리트 패널을 동서쪽에 배치하여 태양열 흡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3층 높이의 넓고 밝은 “Town Hall”은 남쪽 벽을 따라 위치해 있어 까페테리아와 조회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하나의 덩어리로 된 계단실은 학교의 꼭대기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LEED 인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건물의 연구실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가 공급되고 물이 없는 화장실과 유량이 낮은 소변기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디자인 되었다. 광전지 패널을 위한 건물의 구조는 나중에 늘어나는 학생들의 실험을 고려하여 지붕에 설치하였다. 개교 이래 Bioscience High School의 테스트 점수는 교육에의 독특한 접근방법이 성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장의 말에 따르면 수학점수는 Arizona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반 이상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역 출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는 자신감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이 학교를 사랑한다.”고 교장은 강조한다.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a+u



도요 이토-건축과 장소성 (Toyo Ito-Architecture and Place)

『a+u』에서는 지금까지 2번 도요 이토(Toyo Ito)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2004년 5월호(Under Construction)와 2005년 6월호(이미지를 넘어)다.

본호는 그에 이어 3번째 특집(472호)으로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이고, 또한 곧 착공 예정인 도요 이토(Toyo Ito)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건축과 장소성』이라는 테마 아래 선택된 것은 대만(타이페이와 타이중), 스페인(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미국 서해안(버클리), 칠레(마르베야), 싱가포르, 일본의 세토우치(이마바리)의 6개 지역.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6개 지역으로부터 받은 부지 상황, 공사 사진 등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수록하려고 노력했다. 또 6개 지역에서 「건축 만들기」를 위해 생각한 것, 경험한 것, 서로 다른 것을 이토씨와 스텝이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것을 통해 각지에서의 이토씨의 보다 실제적, 실천적인 일의 측면이 전해지길 바란다.

권말의 마초바라 하로시 사회의 좌담회에서는 건축이 경제원리 안에서 소비된다는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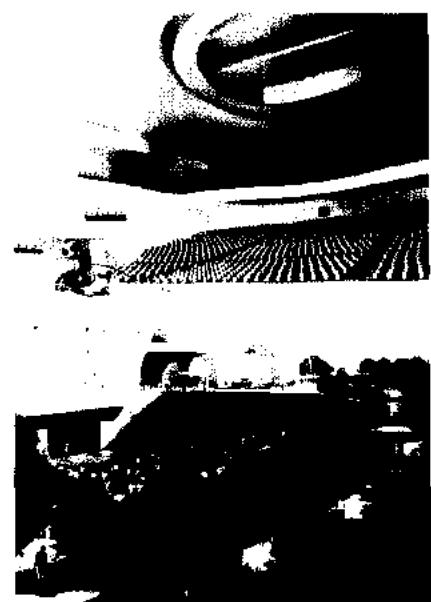
서 한층 유연하고, 참을성 있게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건축사의 자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이중 시립 오페라 하우스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대만 타이중시에 계획 중인 극장건축이다. 본격적인 오페라가 상연 가능한 2,011석의 대극장, 연극주체의 800석의 플레이하우스, 그리고 200석의 블랙 하우스, 또 상업 존과 주차장, 극장부문의 백업 존의 프로그램이 가능적으로 구성된다. 2005년의 국제설계경기에서 우리들이 제안한 것은 ‘Sound Cave’라 불리는 수평방향에서도 수직방향에서도 연속하여 가는 네트워크 모양의 동굴적 공간이다. 3차원 곡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한 번 보면 복잡하고 끝이 없으나 그 구성 원리는 단순 명쾌하다. Cartesian Grid 안에 체크무늬 모양으로 배치된 A와 B의 2종류의 원을 서로 옮겨가면서 평행으로 적층시켜 어느 쪽인가 한 방향 종류의 원끼리를 최단거리에서 끌어간다. 그러면 연속적인 1장의 Shell 곡면에 의해 나누어지고, 평면적이고 단면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A, B 2개의 공간이 출현한다. 더욱 우리가 ‘Emerging grid’라 부르는 개념에 따라 Grid 자체를 유연(Flexibly)하게 형성시켜 가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보다 풍부한 동굴적 공간을 생성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A, B 공간을 계속 나누어 구조체가 되는 자유곡면 Shell은 현수모양곡면(懸垂面)



'Catenoids'로 정의되고, 그 합리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무수한 변수가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배적인 형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구조상과 음향상의 요청이고, 또 그들은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적 판단을 도모하면서 'Emerging grid' 조정이 설계팀에서 공유한 컴퓨터로 3D 모델 상에서 반복되었다.

한편, Catenoids에 대해 수평·수직방향으로 끼워넣는 것으로 바닥이나 구획벽을 형성하는 요소를 우리들은 'Plugs'라고 정의하고 있다. 'Plugs'는 동글적 공간을 건축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동굴을 가지고 숨기려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기능적인 조건을 계속 풀리어 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인간이 그 본능을 일깨우는 듯한 살아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분쟁 속에서 'Plugs 바닥'의 레벨이나 'Plugs 벽'의 위치는 신중하게 결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감에 있어 가장 큰 포인트는 이 Catenoids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성립시킬 것인가, 어떻게 만들까였다.

전례 없는 구조체의 실현을 위해 Arup과 협의를 거듭하고 Racing Car의 구조설계부문의 협력도 얻어 시공 핸들링이 가능한 두께 (400mm 내외)의 구조체로 결론 지어졌다. 더욱 설계단계에서 실제적으로 Mockup을 제작하고 그 실현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현지 대만의 의욕있는 시공회사도 당초는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여 입찰에 주저하였으나 Mockup의 설명회 등의 노력의 결과로, 끝 착공을 맞이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도전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주거

Belle Vue Residences

열대우림을 개척해 만들어진 적도지하의 근대도시인 싱가포르는 열대의 강한 나무들과 현대건축이 함께 공존하면서 급속히 발전을 계속해 왔다. 그 싱가포르 변화가 오차드 로드를 따라 지구(地區)의 고지대에 위치한 하이클래스 콘도미니엄 계획이다.

우리들은 이 계획에서 자연과 함께 있는 생활을 실현하는 풍경과 건축이 일체가 된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부지는 대통령 관저와도 가깝고, 건축높이가 5층으

로 제한된 특별경관지구에 지정되어 있다.

그 결과 집합주택은 이웃농과의 간격이 좁은 고밀도 배치를 해야 하고, 얼마나 그 밀도감을 느끼고 또한 기존 수목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형식을 탐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건물을 나무로 옮기고 숲을 만들도록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건물의 코어부분을 첫 묘목이라 생각하고 숲을 만들기 위해 토지에 묘목을 심듯이 부지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 9개의 코어를 배치하고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각각의 코어로부터 4 방향으로 주거를 전개시켰다. 각각의 주거는 나무가 빛을 받아 가지와 잎을 프랙탈 (Fractal)하게 분기(分岐)하면서 성장하고 넓혀 나가듯이 많은 빛과 바람을 실내로 받기 위해 분기하거나 접속하면서 서로의 상대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유스럽고 다양한 평면형을 가진 5층 건물로 4개동, 총 수 176의 집합주택이 큰 안뜰을 둘러싸는 것처럼 탄생되었다. 이 수상(樹狀)의 평면형은 고밀도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각 주택의 주요한 시선에서 벗어남도 가져다 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안뜰은 수영장을 포함하는 큰 수면으로 채우고 열대의 풍부한 식재와 함께 물과 초록이 넘치는 장소가 된다. 각 주택은 기본적으로 2 가지로 나누고 그 선단부가 각각 거실과 주요 침실로 할당하고, 거주자는 다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4방향으로 성장한 각 주거는 나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펼쳐지고 프랙탈 모양의 무수한 주름을 형성한다.

안뜰의 초록은 그 주름 구석구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개구부가 있는 정면 외관을 통해 거주자의 생활로 침투한다. 이것은 20세기에 수많이 만들어진 수평·수직에 연속한 같은 입체 모양으로 형성하는 판모양의 집합주택에서는 없었고, 자연과 건축의 관계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현재, 2010년의 준공을 향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후의 시간 경과와 함께 안뜰이나 주위에 심어진 묘목나 강한 열대 수목이 생장하고, 드디어 풍경과 건축이 군연일체가 된 장소가 탄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호는 창간 8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기획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음 10년을 향한 23명의 건축사의 제언과 2001~2009년까지 일본건축의 연대기를 연재하고 2010년 대표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즈마이리 이마멧 기념관 (The Delegation of the ISMAILI IMAMAT)

MAKI AND ASSOCIATES IN ASSOCIATION WITH MORIYAMA & TESHIMA ARCHITECTS

거리 속 풍경

'이즈마이리 이마멧 기념관'은 캐나다의 수도를 흐르는 오타와 강변을 따라 'Confederation Bluebird'라 불리는 성공 거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 거리는 「역사의 길」로 알려져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파라먼트 힐, 총독부, 수상공저로 한 나라의 주요기관을 비롯, 시민·문화시설, 각국의 대사관 등이 줄지어 있다. 이 건물은 이슬람교 시아 이즈마이리파 제 49대 이마부(최고지도자)인 아가 칸이 상징적인 존재인 것을 세계에 알리는 비종교 시설이다. 또 동시에 캐나다에서 그의 몇 개의 활동단체의 시설이고, 전통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거리를 배경으로 격조 높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아가 칸의 비전

이 건물의 미션은 이슬람교의 생활과 정신을 서양 문화와 전통을 가장 좋은 혼례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 장소에서 캐나다 정부나 민간기업, 기타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대화나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파트너 쉽이 구축되고 있다.

더욱 보다 좋은 세계 실현을 향해 인도적인 프로그램도 행해지고 있다. 아가 칸의 비전이란 수정이 가진 신비성과 관련된 신화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슬람의 기도침과 장소성을 상징적으로 관련짓는 것이다. 여러 형태나 각도의 면을 만드는 것으로 빛의 움직임에 따라 오브제 그 자체가 달라지는 표정을 보여준다.

깊은 아름다움과 끊임없고 속 깊은 신비성을 상징하는 듯한 美(美)와 신비가 지(知)와 이루어진다는 이슬람 사상이 이루어진 건축이다. 4m의 고저 차이가 있는 부지에 짓는 이 건물은 공공적으로 열린 공원 안에서 화강암의 포디엄에 파빌리온으로서 놓여진 것으로 엄격한 존재감을 빛낸다.

건물을 길고 가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렇 모양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외부와는 다른 두 가지 '내포된 성역'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유리의 어트리움과 'Chahrbagh'라 불리는 페르시아·이슬람 문화의 전통적 정원을 상기시키는 안뜰이고, 이들 내·외부의 두 개의 상징적인 공간은 다른 건축의 기능을 모은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 기능에 녹립성과 프라이버시도 부여하고 있다.

통행인도 부지 주변으로부터 어트리움이나 아뜰 일부를 담시아로 볼 수 있다.

층에 의한 여러 가지 빛

수정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고투과 유리, 반투명 유리나 하얀 불투명 유리와 같은 여러 투명도의 유리를 건물 전체에 배치하고, 끊임없이 보이는 법이 변화하는 질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투과 유리에 더해 주변 환경 변화를 섭세하게 비춘 건물을 실현하기 위해 반투명의 세라믹 후릿유리와 함께 네오파리에라 불리는 흰 결정화 유리를 채용했다.

입면구성은 흰 네오파리에를 큰 면으로 사용하고, 커튼 월 부분은 세로방향으로 띠



모양의 투명 유리와 반투명 유리를 교대로 배치하고 있다.

대칭적인 유리면으로 구성되는 17m 높이의 어트리움을 중심으로 건축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 투명한 다면체가 오타와의 스카이라인에 특징 있는 실루엣을 비추고 있다. 어트리움 내부는 삼각형의 글래스 화이버 크로스패널로 구성된 비대칭의 우산 모양의 막이 큰 차양으로서 상부 공간을 꾸미고 있다.

고정된 패널의 틈새로부터 빛이 반사되고 마치 공간 전체가 빛과 그림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시계와 같다.

어트리움의 내부벽면은 캐나다인 메이플에서 완성되어 그것과는 별도로 'Jali'라 불리는 이슬람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기하학 모양의 알루미늄 주조 스크린 층이 디자인되어 있다. 상기에 기술해 온 구성 요소 모두가 언제나 빛에 의해 변해가는 공간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건축 전체는 완전한 투명, 여러 가지 반투명의 상호작용에 의해 아름다운 빛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 수정이 사람에게 아름다움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 이 건물이 사람들을 낙관적으로 만들어 주고, 매료시키고, 계발되는 원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크린 서로 겹치기

건축의 상징이 되는 유리돔은 고투과 유리를 사용해 투명도를 높이고, 표면이 매끈하게 되도록 표면에 캡이 없는 특수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순수 스텀마리온 자체가 유리지붕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자 모양의 실리콘 압출재를 흘려보내 공기층부로 나치(Niche) 가 있는 복층 유리의 내측 유리를 스틸로 toggle을 사용해 고정하고 있다.

실리콘 압출재는 서멀 브레이크(Thermal Break)인 것과 동시에 누수 시의 판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기후, 하루 동안의 온도변화, 에너지 절약에 관한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천공면 유리의 단열성능은 두개의 공기층을 가진 Triple Grating이 요구되었다. 어트리움 내부에 늘여뜨려진 글래스 화이버 메쉬 스크린은 섬유 자체가 빛을 투과하고, 확산함에 따라 공간에 부드러운 빛을 유도하고 있다.

스크린은 알루미늄 압출형재로 3각이나 사다리꼴로 짜여진 플레이임에 캔버스처럼 펼쳐지고 있다.

형재(型材)는 선단(先端)이 테이퍼(taper) 되어 있고, 플레이임 그림자가 스크린에 가능한 한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각 플레이임은 모두 다른 형태로 상면(上面)에 168개, 남측에 36장이 있고, 현장의 스텀플레이임의 취부 모자를 계측하여 사이즈 조정을 하면서 늘여 뜨렸다. 게다가 그 아래에 알루미늄 캐스트 스크린을 채용했다.

멀리서 알루미늄이 가진 가벼움과 가까이 서는 주물인 것으로 인한 중량감을 함께 갖고 있다.

토론토 교외의 자동차 부품을 주조하는 제조업체가 제작을 담당하고, 다른 2개의 스케일의 육각형 모양을 겹쳐 주조하는 것으로 가느다란 단면을 가능하게 하고 뒷면, 다른 스케일을 느낄 수가 있다. 또 보는 각도에 따라 시선의 벗어남이 변화한다.

(가와자키 고타 / 신종합계획사무소)

JFE 케미컬, 케미컬연구소 (JFEケミカル, ケミカル研究所)
KINO ARCHITECH

감아싸기[소용돌이(渦)]로 주어진 조건을 풀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폴탈이나 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세계 굴지의 재료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JFE케미컬의 새로운 연구소. 시공주가 요구한 것은 '연구효율', '보안성', '쾌적성', '상징성' 4가지. 시장에 맞추어 실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실험실, 높은 보안성이 확보되면서도 개방적인 짐무실, 건물 구석구석까지 펼쳐진 변화에 풍부한 재충전 공간, 국내외로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들의 요망에 응하였다.

평면의 검토에서는 먼저 주요 룸(실험실, 짐무실, 회의실, 강당, 응접실 등)을 개방 복도를 따라 직선상으로 나열하고, 끝부분 각각에 내객용 출입문과 연구소원용 출입구를 만들었다. 개방 복도로 하는 것으로 실험실로의 출입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실험실내

의 칸막이의 유동성(Flexi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 2개의 동선을 양끝에서부터 시작하면 필요한 경계에서 보안성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 설계 중에 나타나는 세세한 요망에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향후 개선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이들 주요 룸을 입체적으로 펼쳐놓는다. 가장 기밀성이 높은 짐무실과 회의실을 직선상에서 일단 떼어두고 다른 룸이 감아싸면서 그들을 에워싼다.

3층 강당에서는 재충전 공간을 볼 수 있다. 강당은 칸막이 벽에 의해 3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짐무실은 다른 것에서 평면적으로 격리되어 높은 보안성이 확보되면서 단면적으로는 감아싸기의 중심에 있고, 다른 층의 실험실로 최단거리로 접근 가능하다. 또, 감아싸기 중심으로는 내부를 경유한 뒤,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천천한 도착하기 때문에 하나의 층을 경과하는 것에 의한 보안성을 계속 확보하면서 개방적이고 쾌적한 짐무공간이 된다. 재충전 공간은 개방 복도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하면 이동 중인 짧은 시간에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접근성을 겸한 정원을 에워싸는 것처럼 감아싸는 것으로 각 공간에 고저(高低) 차이가 생겨, 여러 각도에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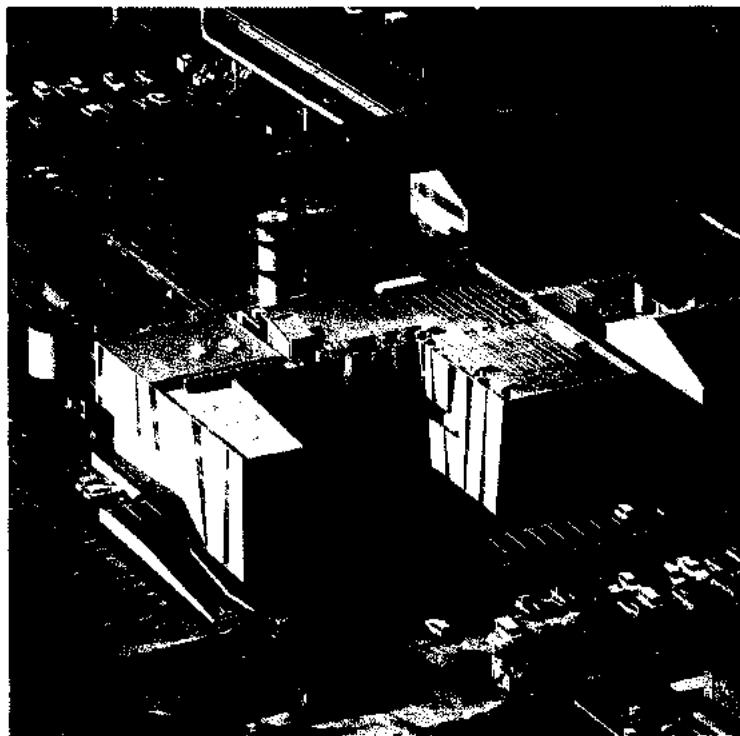
'소용돌이(渦)'에 의한 상징성

'소용돌이(渦)' 형태를 이루면서 3개의 주어진 조건에 대응했다. 더욱 이 '와(渦)'라는 형태야말로 마지막 조건인 상징성의 열쇠가 된다. 눈에 띄게 중점을 두는 표층적인 간판으로서의 건축이 아닌 충실한 내용으로부터 떠오르는 상징성을 둥반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상징적인 건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상징적이 건축이 JFE 케미컬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세계에 어필하기 위한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3개의 내진코어

감아싸는 볼륨에 따라 생기는 2개의 샤프트와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중앙계단실을 내진코어로서 계획했다. 이를 코어로 대강 평면상에서 정삼각형이 형성되고, 내진 계획상 조화를 이룬 구성이 되었다.



커튼월과 일체화하는 라티스 구조

라면도, 트러스도 아닌 그 중간적인 라티스 모양의 기둥이 수평력과 연직력을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하여, 라티스 구조라 이름 지었다. 커튼월의 기초도 겸하는 라티스 구조는 압출성형 시멘트 판의 최대치수와 개구부의 강화유리 최소 치수로 정한 3도, 6도, 12도로 경사가 성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가 외벽 기초를 겸하는 것으로 골격이 커튼월을 통해 투과하여 보이는 풍경이 되고 있다.

외벽 구성

라티스 구조는 규칙성이 완만하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외벽이나 개구의 기초로서의 기능도 한다. 라티스 구조가 그 대로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 골격이 외벽과 샤프를 통해 비추어 보이는 듯한 풍경이 된다.

유동성 있는 실험설비 인프라

실험실에는 유동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험대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물을 만들었다.

배수구를 바닥에, 천정에는 같은 모듈로 캐이블 랙을 나열하였다.

그 외 급배기, 급수, 실험용 가스에 대해서도 캐이블 랙이 만드는 그리드를 기준으로 하여 레이아웃하고, 실험내용의 변경에 따른 가제품의 레이아웃 변경에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다.

입체 평옥(平屋)에 의한 급배기구의 처리

본 건물은 직선보양 불룸이 '와(渦)'를 감

는 형상이기 때문에, 1층 상부에 옥상 공간이 생긴다.

그 이점을 살려 2층 짐무실의 창유리를 내측으로 셋백(setback) 시키고, 1층 실험실용의 급배기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주거지역으로는 배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구는 3층의 옥상까지 끌어당길 필요가 있으나, 1층의 배연과 채광에 이용할 수 있다.

연구소에는 대량의 갤러리나 벤트 캡이 연결되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외벽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다. ■

김동범

(주)건축사사무소 오투엔비
by Kim, Dong-bum